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 취업과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 취업과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

2010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 취업과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 조경옥, 조무현. — 전주 : 전북
발전연구원, 2010
p. ; cm. — (Jthink ; 2010-PR-05)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6612-003-1 93330 : 비매품

332.276-KDC5
306.845-DDC21

CIP2011000456

연구진

연구책임 조경욱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조무현 · 전북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자문위원 고재영 · 남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장

권순희 · 전주교대 교수

김광혁 · 전주대학교 교수

박성숙 ·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부장

이지훈 · 전주다문화지원센터 소장

연구관리 코드 : 10JU2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정책적 배경

- 2008년 3월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4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근거한 전국 다문화가족 대상의 전수조사가 2009년 시행됨으로서 모든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다양한 특성 및 문제, 그리고 복지욕구 등을 반영하는 통계자료의 생산이 가능
- 다문화가족 실태 전반에 관한 전수조사의 원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은 지역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지역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게 됨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다문화정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및 자녀양육에 관련된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역량강화와 인적자원 활용은 여성가족부가 2011년 주요 핵심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들이 전북지역에서 경험하고 당면하는 문제점과 욕구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역현실에 부합하는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시책 등을 제안할 수 있는 기초자료제공
- 아울러 지금까지의 다문화지원 정책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정착과 역량강화 등에 집중화되어 왔으나 다문화가족 자녀 수 및 취학자녀 등의 증가로

학교생활 적응 문제, 교육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다문화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가구 및 특성

– 조사완료가구 및 완료율

지역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다문화가족수	조사완료가구	완료율
전국	131,702	73,669	55.9
전북	5,436	4,043	74.4

– 조사완료 결혼이민자의 지역별 남녀 수

지역	계		남성		여성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전국	73,669	100.0	4,275	100.0	69,394	100.0
전북	4,043	5.5	46	1.1	3,997	5.8

– 조사완료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국적별 인원

지역	국적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등)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일본	북미, 서유럽등	기타
전국	26,646	9,692	19,405	6,274	1,040	1,054	1,927	3,827	896	2,908
전북	864	564	1,310	605	43	54	221	283	13	86

– 조사완료가구의 시군별 분포

총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5,436	982(18.1)	619(9.5)	770(14.2)	515(9.5)	278(5.1)	425(7.8)	371(6.8)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221(4.1)	167(3.1)	179(3.3)	159(2.9)	234(4.3)	348(6.4)	269(4.9)

○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내용 및 문항

구분	조사문항
일반적 사항	결혼전 국적, 성, 출생연도, 배우자의출생년도, 교육수준, 수학년 수, 배우자의교육수준, 한국어능력정도, 한국입국년도, 한국입국목적, 한국거주기간, 한국국적취득시기, 체류자격, 국적 또는 영주권취득계획, 월평균가구소득, 가족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취업	배우자의 취업, 배우자의직종,배우자의고용형태,한국으로 오기 전 취업여부, 직종, 한국에서의 현재취업여부, 직종, 고용형태, 구직경로, 평균근무시간, 평균임금, 직업상의 가장 큰 어려움, 노동조합가입여부,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취업의향, 취업하는데 가장 필요한 도움, 직업훈련의 참여경험, 직업훈련의향, 취업을 위해 희망하는 교육
자녀양육	자녀유무, 자녀수, 자녀출생년월, 자녀의 성, 자녀의 취학여부, 미취학자녀의 시설 또는 기관이용여부, 이용하는 시설 또는 기관유형,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미취학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 후 양육형태, 초등학교 자녀 교육상 가장 어려운 점, 초등학교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 배우자의 현 임신여부, 향후 자녀를 가질 계획 및 자녀수,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여부 및 도움정도,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 필요도, 자녀양육 학습지원 여부 및 도움정도, 자녀양육 학습지원 필요도

II. 연구결과

가.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특징: 사업과 예산

- 2010년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총 8가지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의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2010년도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총 예산(안)은 512억 원으로 2008년과 비교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예산이 증가함
 - 전라북도 2010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7,471 백만 원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 지도에 해당하는 각종 교육비 사업으로 2,682백만 원이며 전체 사업비의 35.9%를 점유하고 있음. 다음으로는 이주여성 경제·사회적 자립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2,295억 원이며 전체사업비의 30.7%이고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예산은 409백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5%에 해당하고 있어 결혼이민자의 2세대를 위한 교육비 지원이 매우 미흡함

- 국비와 도비 및 시군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예산구성 측면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지도>이주여성의 경제사회적 자립지원>다문화가족지원 시스템 등의 순으로 예산비중이 큼.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의 예산은 국비 지원을 제외하고 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업비는 12.1%정도의 비중을 지나지 않음. 또한 결혼 이민자의 자녀학교생활 지원예산은 전액 교육청지원 예산에 해당하고 있어 자녀양육비 지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매월 10만원)하는 사업비에 그치고 있음

나.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의 일반적 특성

□ 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출신국

- 1995년 이전에는 일본과 중국조선족의 비율이 높았으나 2000년 이후에는 베트남>필리핀>태국>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캄보디아 결혼이민자의 경우 입국연령이 매우 낮으며 학력수준이 낮음

○ 연령

- 25~29세가 25.7%로 전국 및 다른 시도와 비교해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 따라서 결혼과 가족, 자녀양육 등에 대한 경험부족과 인식부족이 낮음으로 인하여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강화 필요함

○ 입국시기 및 체류기간

- 전라북도 결혼이민자의 입국 시기는 2005년 이후의 입국이 59.6%로 전국 평균(54.1%)과 비교하여 최근 입국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초기 정착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함

- 입국시기에 따른 연령 및 교육수준의 특성으로는 2005년 이후에는 24세가 이하의 입국이 급증하고 있고 2000년 이후부터 중졸이하의 비중이 높아지다가 2005년에는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연령과 학력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특징을 보임

▶ 언어교육과 기타 사회적응교육 강화 필요

- 5년 미만의 거주비율이 63.8%로 결혼이민자들의 체류기간이 전국평균에 비하여 길지 않고 최근 입국이 많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2년 미만의 체류기간은 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초기정착지원 군 중심으로/시 지역은 체류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체제안정과 자녀 중심의 보육과 교육지원의 비중이 커져야 함

○ 교육수준

- 고졸(41.1%) > 중졸(29.2%) > 대졸(20.1%) > 초졸이하(9.7%)로 고졸 및 대졸 이상의 비율은 전국평균 보다 낮고 중졸 및 초졸이하 비율은 전국평균 보다 높음
- 출신국별로는 대졸이상의 학력이 필리핀(53.1%) > 일본(49.9%)인 반면 캄보디아는 중졸이하의 학력이 69.8%로 가장 낮은 교육수준을 보임

○ 한국어 능력

- 전라북도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말하기·읽기·쓰기)은 전국평균에 비하여 모두 낮았으며 특히 말하기 능력의 경우, ‘(매우)잘한다’의 비율이 29.2%로 전국평균이 37.3%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임
- 지역별로는 모든 영역에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한국어능력이 높게 나타났음. 연령과 체류기간에 따른 한국어 능력은 비례관계에 있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수준이 높음에 따라 한국어 능력이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 및 삶의 만족도

- 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이 300만원미만이 전북 77.3% < 전국78.4%로 결혼이민자들은 비교적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

- 특히 가구소득이 100만원미만의 최저 빈곤소득층은 전북 27.9% > 전국 21.3%로 전북결혼이민자의 빈곤이 심각한 수준임(농촌, 연령이 높을수록, 체류기간이 길수록 저소득층 비율이 높음)
-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비율은 16개 광역시·도중 전남과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나 전북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문제에 대한 정책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줌
- 삶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매우)만족의 비율이 전국 56.8% > 전북 53.7%)
- 삶의 만족도는 연령, 교육수준, 체류기간과 반비례하여 연령과 교육수준이 낮고,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만족도는 높게 나타남

다. 취업실태와 근로조건

1) 결혼이민자의 취업실

○ 취업률과 입국 전 취업경험률

-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전국 40.2%/전북 33.3%)은 대체로 저조하였고 전국과 비교해서도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10위에 해당함. 이는 농업 등의 1차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북의 산업구조의 특성상 국내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비해 결혼이민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입국 전 취업경험률은 74.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이를 입국 후 취업률(33.3%)과 비교해 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으로의 이민 이후 노동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이는 결혼 및 임신,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과 본국에서 취득한 학위나 자격증 등이 한국에서 거의 통용되지 않는 이민 장벽이 원인으로 보임
-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내 체류 기간이 길수록, 입국 전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가 취업률이 높음. 출신국별로는 북미·유럽과 필리핀 등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와 중국조선족, 일본 등 비교적 체류 기간이 길고 연령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취업률이 높고 취업률의 시군별 차이는

거의 없음

○ 결혼이민자의 직종

- 취업을 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큰 반면, 전문직 종사자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는 높아서 전라북도의 이민시장이 전국보다 훨씬 전문직과 저숙련직으로 양극화되어 있음. 또한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도 전국에 비해 훨씬 높아서 이들을 전문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출신국별는 영어를 사용하는 북미·호주·유럽 출신과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전문직 종사 비율이 높고,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의 경우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농림어업 종사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전주, 남원, 무주, 장수는 상대적으로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반면, 진안, 순창, 고창, 임실지역 거주자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또한 익산, 정읍, 진안은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결혼이민자의 근로조건과 구직경로

○ 근로조건

- 여성결혼이민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39.22시간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나, 이들이 대부분 시간 탄력성이 있는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의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근접한다는 것은 불안정 고용에 장시간 근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특징적인 것은 주 19시간 이하 근무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인데, 이는 고용상태가 가장 불안정한 일용직 혹은 파트타임 근로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암시
- 불안정 고용과 장시간 근로라는 특징과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특징짓는 것이 바로 저임금임. 전북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90.16만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경북과 함께 최하위였음. 이는 전북의 결혼이민자들이 서비스 및 단순노무직과 농림어업 등 근로소득이 낮은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상용고가 아닌 임시·일용직의 형태가 많기 때문임

○ 결혼이민자의 직업상의 고충

- 전북의 결혼이민자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낮은 임금’, ‘자녀양육’순으로 높음. 전국 조사결과에서는 ‘저임금’의 문제보다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높았던 것에 비추어보면, 전북의 결혼이민자들은 주변의 태도나 편견 등의 포괄적 차별보다는 저임금이나 자녀양육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더욱 큰 고충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구직경로

-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개인적 네트워크 이용률은 전국에 비해 높은 반면 사설 기관과 대중매체 및 전단지 이용률은 낮음.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의 함의를 갖는데, 하나는 전라북도에서 이민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호나 능력을 고려한 능동적 구직행위가 어렵고, 일자리를 타인으로부터 소개받는 것에 의존하는 수동적 구직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3) 미취업 결혼이민자의 취업관련 태도

○ 결혼이민자의 미취업 사유

- 결혼이민자들의 낮은 취업률에는 ‘자녀양육 책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자녀양육기를 벗어난 4, 50대의 경우조차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높아서, 전반적으로 가사일과 자녀양육이 취업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서 현재와 같은 언어 중심적 지원책들은 대단히 편향적이고 제한적인 것임을 확인해 주는 결과임

- 결혼이민여성들 역시 일반적인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패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이민에 따른 친족지원망의 부재로 일-가족 양립을 고립적으로 혼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큼. 따라서 일-가족 양립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미취업 결혼이민자의 향후 취업희망

- 미취업 결혼이민자들의 대부분이 향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취업희망률이 더 높았으며 체류기간은 2~5년 미만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음

○ 미취업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도움

- 전북의 미취업 결혼이민자들은 취업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음. 필요한 도움으로는 ‘일자리 알선’과 ‘한국어 교육’이 가장 높은 반면, 전국 조사결과는 ‘자녀교육 및 양육 지원’과 ‘일자리 알선’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음. 이는 연령이 낮고, 체류기간이 짧은 결혼이민자가 전북에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자녀양육기인 30대에서 ‘자녀보육, 양육 지원’을 가장 많이 호소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음
- 체류기간은 2년 미만까지 ‘한국어 교육’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며, 체류기간이 길수록 ‘일자리 알선’에 대한 수요가 ‘자녀 보육·양육 지원’보다 많아졌음. 그러나 체류기간의 길고 짧음과 무관하게 ‘자녀보육, 양육지원’에 대한 수요는 일관되게 높음. 이러한 사실은 주로 미취학 아동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 정책이 향후에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함

4)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및 교육

○ 직업훈련 참여경험 및 직업훈련 요구도

-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16.3%로 저조하나, 향후 참여 의향률은

높음. 전북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전국 평균 참여율보다 높은데도 취업률이 전국보다 낮은 것은 전북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이 기술이나 훈련의 부족 이외의 요인에 의해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됨

- 또한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향후 직업훈련 참여 의향이 높았다. 이는 체류기간이 짧은 이민자들에게 주로 일상적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교육 편향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 오히려 언어나 한국문화 이해 중심적인 현재의 프로그램이 직업훈련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 입국 전과 입국 후 취업경험이 있거나 향후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직업훈련 참여율이 높았고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자일수록 향후 취업 의향이 높아 취업연계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함을 시사.

○ 향후 직업훈련 요구 영역

- 향후 직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영역으로는 어학에 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컴퓨터/정보통신 교육에 대한 요구도도 높음. 어학에 관한 요구가 높은 것은 언어가 기본적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던지간에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임. 따라서 현재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직업훈련의 영역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업기술 및 기능교육과 병행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농어업/원예 관련 교육 요구도는 전국보다 높았음. 이는 전라북도의 일자리 특성상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나 농림어업 관련 일자리를 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취업경험이 없고, 교육수준이 낮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경우, 음식, 미용/피부, 간병/간호 등의 개인서비스직에 필요한 훈련요구가 높음

라. 자녀양육 및 교육

○ 자녀구성 및 추가자녀계획

- 결혼이민자들의 평균 현존 자녀 수는 1.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많았으며 특히 2자녀 이상의 비율이 높아 다문화가족에서의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추가희망 자녀수는 0.6명, 기대자녀수는 1.7명임
- 결혼이민자들의 자녀는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비중이 미취학 연령 자녀와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은 크게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과 양육, 취학자녀에 대한 교육 등 두 개의 축으로 구분되어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미취학자녀의 양육 및 보호

- 다문화가족의 미취학 자녀의 보육·교육시설 이용률은 60.8%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전북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이 전국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미취학 자녀의 시설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엄마가 부재한 동안의 보호라는 목적 외에도 자녀의 교육에 대한 목적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취학 자녀를 보육시설·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만 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아서’가 가장 큰 이유로 결혼이주여성의 거주환경이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앞서 일-가정양립이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와 일치되는 부분임.
-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본인 도는 배우자’가 86.9%로 가장 많고 문제가 되는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도 결혼이민 여성의 연령이 높고, 중학교 학력이하의 학력수준이 낮으며, 1~2년 미만의 체류기간이 짧은 집단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자녀의 언어 및 발달과정에 주의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초등학교 방과 후 보호

- 결혼이민자의 초등학교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본인 및 배우자 32.5%,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20.6%, 사설학원 12.2% 등으로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이용률이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다문화 가족의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학교교육 및 시설을 통한 보호와 교육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길 필요가 있음. 문제가 되는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도 13.6%나 되어 방과 후 결혼이민자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자녀 교육 상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음. 구체적으로 ‘예습·복습의 학습지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숙제지도하기’, ‘학원비 마련’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국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전라북도의 결혼이민자들은 학습지도 면에서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습부진 등의 어려움은 6.1%로 낮은 편임
- 결혼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 필요한 지원은 기초교과 지도 > 학교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 한국어 및 한글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학습지원 경험과 도움정도

- 다문화가족의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경험률은 41.0%,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경험률은 43.4%로 전국 평균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남.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을 받은 결혼이민자의 57.9%,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을 받은 결혼이민자의 64.6%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향후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5.7%로, 아직 계획한 출산을 다 마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는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자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3.2%로 전국 조사결과 62.7%보다 10.5% 포인트 높았음. 이는 전북 다문화가족의 초등학교 이상의 취학 아동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됨. 따라서 향후 자녀

양육 및 지원에 관한 정책방향은 다문화가정의 보육 서비스지원과 더불어 학령기 아동에 대한 정책지원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으로 인한 빈곤재생산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과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Ⅲ. 정책제언 : 다문화가족 취업과 자녀양육 지원 개선방향

가. 다문화가족 자립과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도시와 농촌 지역특성 반영한 특화사업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본 실태조사에서도 다문화가족의 거주지역의 차이에 따라 체류기간, 언어 능력의 정도와 취업욕구, 자녀양육과 교육에서의 욕구와 현실적인 제약사항이 많이 다름. 결혼이민자의 애로사항과 욕구가 지역적으로 다르다는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최일선의 서비스지원 센터가 획일적·일률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
-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어교육,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필수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그 이외의 프로그램은 지역의 여건과 전문인력 활용정도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이양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면 종사자 중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센터에서는 상담 프로그램을 특화하고, 가족통합교육 전문 인력이 있는 센터는 가족통합 프로그램을 특화하며, 지역의 농특산물을 창업화 하는 센터는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차별화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각 센터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의 추진과 그에 따른 사업인력 및 평가에 따라 예산지원도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다문화유관 협력기구 역할정립과 결혼이민자의 의사결정권 부여

- 전라북도는 2009년 1월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을 위

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자문·심의와 유관기관간의 다문화사업에 대한 협의 및 시책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북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와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회”, “거주의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등의 협력기구가 발족되어 있는 상태임

- 이러한 협의체의 성격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확립하고 아울러 이 협의체에는 반드시 여성결혼이민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있어 결혼이민자의 요구를 수렴하도록 함. 일본의 가나가와현에서는 공모를 통해 2년 임기로 구성된 20명의 ‘외국국적 현민 가나가와회의’에서 제안하는 제언의 70%를 정책반영 비율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복지자원이 부족한 동부권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개발

- 2005년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거주경향은 연령이 낮고 학력수준이 낮은 캄보디아나 태국 여성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특히 동부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가구 비율이 타 지역(진안 42.2% 전주 21.5%)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취업에 대한 의지가 높고 체류기간도 짧아 한국사회적응과 언어교육에 대한 지원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무주와 진안에서 가장 높았으며 방과 후 초등학생을 돌보는 사람에 있어서도 아이혼자 지내는 비율은 임실, 순창, 진안, 고창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동부권 지역에 해당하는 군 단위의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교육 및 취업관련 지원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지원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점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식 교육과 자원봉사의 지원 및 다른 지역의 시설연계를 구축하는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함

○ 취업지원과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예산확대

- 전라북도 2010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7,471 백만 원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 지도에 해당하는 각종 교육비 사업으로 2,682백만 원이며 전체 사업비의 35.9%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예산은 409백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5%에 해당하고 있어 결혼이민자의 2세대를 위한 교육비 지원이 매우 미흡함
- 국비와 도비 및 시군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의 예산은 국고비 지원을 제외하고 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사업비는 12.1%정도의 비중을 지나지 않음 또한 결혼이민자의 자녀학교생활 지원예산은 전액 교육청지원 예산에 해당하고 있어 자녀양육비 지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에 그치고 있음. 타 지자체의 경우, 다문화가족의 자녀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지자체(충남)도 있으며 보육시설에서의 외국인 자녀 5인 이상일 경우 보육시설 도우미를 파견(서울시)하거나 다문화다민족어린이집 지정에 따른 교재교구비 지원(서울, 경북) 등 보육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나. 직업교육 개선과 취업연계 활성화 방안

○ 취업과 자녀양육을 위한 특화된 언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 결혼이민자들은 같은 지역 안에서도 여러 개의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단체가 유사한 영역에 대한 유사한 수준의 언어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모든 기관이 비슷한 수준의 입문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필요한 욕구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언어교육으로 제한되어 결혼이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는 역부족임

- A기관은 자녀양육을 위한 한국 전래동화를 엄마와 아이가 동시에 읽고 말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한다거나 B기관은 구직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기관별로 특화되고 차별화 된 교육을 갖춘다면 다양한 수준의 질 좋은 전문교육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언어를 교육하는 기관도 언어교육기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취업관련 기관에서는 구직기술교육에 관련된 언어를 기초부터 심화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녀양육과 관련된 언어교육은 자녀양육시설인 보육시설, 초등학교 등과 연계하도록 함

○ 취업관련 이력 DB 구축 및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강화

-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입국 이전에 모국에서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력자의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지만 미취업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심각한 것도 전북지역의 특성 가운데 하나였음.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이 원하는 취업과 직종을 다양화하고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의 개인 정보와 취업이력 등에 관한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11년부터는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취업지원이 확대될 전망 이므로 이들이 원하는 직업교육과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정보에 대한 DB구축이 시급함
-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취업경로를 보면, 사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결혼이민자의 공공 취업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고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코디네이터를 둔다든가 결혼이민자의 특화된 취업지원 사이트를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결혼이민자의 취·창업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활용

-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양성평등 촉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여성단체의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1998년부터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여성계의 현안이슈 예를 들면 출산장려를 위

한 인식개선 사업이나 일반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일부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다문화관련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관련된 사업은 너무 미미한 상태임

- 따라서 여성발전기금 사업 중 지정 공모사업인 일자리 갖기, 저출산 극복, 성매매 및 성폭력 예방 등의 사업 중 일자리 갖기 사업에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갖기 사업과 다문화가정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의 사업에 여성발전 기금의 5~10%정도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전문농업인 육성 및 인력자원화에 대한 정책지원

- 국제결혼이 주로 농가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농가의 유지와 재생산,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동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이 고령화와 여성화되어 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이 농촌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전문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 또한 고령화 되어 있는 농촌의 새로운 주역으로서 그들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하며 통합적 사회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력과 자원을 잘 연계하는 것도 필요함. 특히 요즈음 농촌은 젊은 귀농인의 정착으로 농가의 새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들이 미래의 농촌을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기대 또한 큼. 귀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농업에 관한 기술을 터득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의 농업 멘토로서의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음

○ 결혼이민자 전문직에 대한 직종개발 : 다문화전문인력 양성

- 결혼이민자들의 전문 직종에 대한 선호는 높으나 적합 직종이 많지 않음. 어학강사나 통번역 및 상담 등의 직종이 결혼이민자들이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전문직에 해당하나 근로조건이 계약직이거나 일당직으로 이들의 언어자본을 싼 값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주변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의 취업 및 창업에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같은 처지에 놓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직업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음. 다문화서비스 직종은 우리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현재 열려 있는 흔하지 않는 사무직, 그 중에서도 전문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분야가 이민자가 잘 할 수 있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임이 틀림없음
-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화된 직종으로서 능력수준에 따른 급여나 대우수준을 제시하고 이들의 신분을 안정되게 정착시켜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한국인 전문 인력과 함께 다문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함

다.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정책의 강화

○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춘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은 일회적이거나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임. 특히 1세대를 위한 한국어교육은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반면, 2세대를 위한 한국어교육은 거의 없거나 검사 및 교정 차원에서의 지원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인지적·정의적 발달에 따라 즉 1세에서부터 아동양육지원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시작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그리고 중등교육과정까지 연계되어진 다문화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반드시 필요함
- 언어와 기초학습지원 교육과 더불어 지역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것임

○ 방문지도사의 전문성 강화와 자녀양육 상담지원 강화

- 최근의 전라북도 유입되는 결혼이주민의 특성은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주로 군 단위에서의 결혼이주민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결혼과 더불어 자녀양육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들이 느끼는 문화적 충격은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의 발달

단계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학습과 더불어 인지적 발달에 따른 전문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방문교육사업의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방문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담보하는 방안이 필요함. 아동양육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 및 교재의 개발과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지역특성 및 대상자 요구를 반영하여 규모 및 교육프로그램을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다문화가족지원 지역 센터에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함

○ 방과 후 자녀돌봄과 교육 지원 확대

- 본 연구결과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이 32.5%, 학교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은 20.6%로 전라북도의 경우 전국조사보다 학교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율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학교교육 및 시설을 통한 보호와 교육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문제가 되는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도 13.6%나 되어 방과 후 결혼이민자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함.
- 또한 결혼이민자들은 초등학교 자녀 교육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국평균보다 많으며 구체적으로는 ‘예습·복습의 학습지도’, ‘숙제지도’ 등 기초학력에 관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전라북도 농촌지역의 보육시설 및 사설학원 등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개인적 교육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대학생의 자원봉사자, 교육계은퇴자와 결혼이민자 자녀와의 연계를 적극 지원하여 학습에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라. 다문화가족 취업과 자녀양육을 위한 제안사업

구분	프로그램 내용	주요대상	운영형태	기대효과
교육/ 보육 서비스	엄마와 함께 책임기	영유아/부모	-방문교사와 연계하여 동화책을 주기적으로 배포하고 엄마에게 책 읽어주기 지도 -짧은 동화(전래동화, 역사 등)를 지속적으로 영유아에게 읽어주도록 지도	-영유아 및 부모의 언어능력 증진 -한국 전래동화 등을 통한 문화이해 -자녀와의 정서교감 증진 등
보육 서비스	다문화보육 교사 지원	보육시설아동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자녀 5인 이상 보육시설에 다문화보육강사 파견	-다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 -결혼이민자의 전문직 업으로서 자긍심 고취
농촌 일자리 창출	귀농인-결혼 이민자 멘토멘티지원	결혼이민자	-귀농인이 농촌에 정착하는 성공적인 과정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고 농업에 관련 지식을 교육시키는 멘토-멘티 사업	-농촌에서의 성공적인 정착과 농업인력 자원화
지역사회 지원	영유아교육 기관 관계자 인식증진교육	영유아대상, 교사, 원장 및 시설장	-다문화에 대한 인식증진과 아동의 이해 및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교육 이수 -다문화가족 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시설 및 기관에 대해 의무교육	-다문화 이해증진과 다문화학급 운영을 위한 구체적 교수방법 교육

목 차

제 1 장 서 론	3
제 1 절 연구배경 및 내용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6
4. 용어정의 및 통계해석 시 유의사항	8
제 2 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정책	13
제 1 절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일반현황	13
1. 국제결혼 추이	13
2. 전라북도 시·군별 결혼이민자 현황	17
3.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19
4. 전라북도 국제결혼가정의 특징	22
제 2 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	26
1. 중앙정부	26
2.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34
3. 전라북도 다문화관련 사업추진 현황	37
제 3 절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45
1. 취업지원 및 직업교육	45
2. 자녀양육지원 사업	48
제 3 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실태 및 특성: 취업과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55
제 1 절 일반현황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55
1. 입국시기·목적 및 출신국가	55
2. 다문화가족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1
3.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 및 한국 거주기간	66
4.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71

제 2 절 취업실태와 근로조건	74
1. 가구소득 및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74
2. 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	87
3. 결혼이민자의 근로조건과 구직경로	102
4. 미취업결혼이민자의 취업관련 태도	117
5.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및 교육	128
제 3 절 자녀양육 및 교육현황	138
1. 자녀구성 및 추가자녀 계획	138
2. 미취학자녀의 양육 및 보호	148
3.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보호	158
4.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경험 및 도움정도	169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7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187
1.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의 일반적 특성	187
2. 취업실태와 근로조건	191
3. 자녀양육 및 교육	201
제 2 절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개선 및 사업 발굴	205
1. 다문화가족 취업과 자녀양육 지원 정책개선 방향	205
2. 다문화가족 취업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제안사업	217
참고문헌	221

표 목 차

<표 2-1> 전국 시·도별 결혼이민자 증가추이(2007~2009)	16
<표 2-2> 전북 시·군별 결혼이민자 증가추이(2007~2009)	17
<표 2-3> 전북 결혼이민자 시·군별 성별분포 현황(2009)	18
<표 2-4> 전북과 전국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	19
<표 2-5> 국제결혼 이혼건수(2004~2009)	20
<표 2-6> 전북 국제결혼 이혼건수(2004~2009)	21
<표 2-7> 전북과 전국 결혼이민자의 이혼·별거 이유	21
<표 2-8> 전라북도 시·군별 국제결혼가정 현황	22
<표 2-9> 전라북도 시·군별 학령기자녀 현황	25
<표 2-10>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2010)	26
<표 2-11>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현황(2009)	27
<표 2-12> 중앙부처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총괄현황(2008~2010)	29
<표 2-13> 전라북도 시·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현황	34
<표 2-14>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 현황	35
<표 2-15> 2009년도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실적	38
<표 2-16> 다문화가족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현황	39
<표 2-1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 지도 사업 지원현황	40
<표 2-18> 시·군 지역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현황	40
<표 2-19> 이주여성 경제·사회적 자립 지원 현황	41
<표 2-20> 이주여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현황	42
<표 2-21> 외국인 건강감진 및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현황	42
<표 2-22> 외국인 건강감진 및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현황	43
<표 2-23> 다문화정책의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현황	43
<표 2-24> 2010년 전라북도 다문화정책 예산 현황	44
<표 2-25>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아동지원 정책)	50
<표 2-26> 주요 시·도별 다문화가족 영유아자녀 보육지원 사업	51
<표 2-27> 교육청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사업(경기도)	52

<표 3-1> 전북과 전국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	55
<표 3-2>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입국시기	56
<표 3-3>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별 입국시기	57
<표 3-4> 전북 14개 시·군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	57
<표 3-5> 전북과 전국 결혼이민자의 입국목적	58
<표 3-6>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입국목적	59
<표 3-7>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별 입국목적	60
<표 3-8> 전북 14개 시·군 결혼이민자의 입국목적	60
<표 3-9> 전라북도 출신국별 결혼이민자의 연령	61
<표 3-10>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연령별 배우자의 연령분포	62
<표 3-11> 전북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평균 연령	62
<표 3-12>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교육수준	63
<표 3-13>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교육수준별 배우자의 교육수준 분포	64
<표 3-14> 전북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 혼인상태	64
<표 3-15>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혼인상태	65
<표 3-16> 전북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	66
<표 3-17>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거주지역	67
<표 3-18> 전북과 전국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	67
<표 3-19>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한국 거주기간	68
<표 3-20>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한국 거주기간	69
<표 3-21> 전북 14개 시·군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	70
<표 3-22> 전북과 전국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71
<표 3-23>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한국어 말하기능력	72
<표 3-24>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읽기 능력	73
<표 3-25>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쓰기 능력	73
<표 3-26> 시·도별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	74
<표 3-27>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가구소득	75
<표 3-28>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월평균 가구소득	76
<표 3-29> 전북 14개 시·군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77
<표 3-30> 전북과 전국 결혼이민자의 모국가족과 다른 모국가족과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비교 ..	78

<표 3-31> 시·도별 다문화가족의 다른 한국가족과 비교한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78
<표 3-32>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다른 한국가족과 비교한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80
<표 3-33>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다른 한국가족과 비교한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81
<표 3-34>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다른 한국가족과 비교한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82
<표 3-35> 전국과 전북의 결혼이민자의 현재 삶의 만족도	83
<표 3-36>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현재 삶의 만족도	84
<표 3-37>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삶의 만족도	85
<표 3-38>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	86
<표 3-39>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 취업여부 및 입국전 취업경험	87
<표 3-40>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취업여부	88
<표 3-41>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취업여부	89
<표 3-42>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 취업여부	90
<표 3-43>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한국 입국전 취업 경험률	91
<표 3-44>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한국 입국전 취업 경험률	92
<표 3-45>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한국 입국전 취업 경험률	92
<표 3-46>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의 직종	93
<표 3-47>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직종	95
<표 3-48>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직종	96
<표 3-49>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직종	97
<표 3-50> 전북 및 전국 결혼이민자의 종사상 지위	98
<표 3-51>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종사상 지위	99
<표 3-52>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종사상 지위	100
<표 3-53>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종사상 지위	101
<표 3-54> 전북 및 전국 결혼이민자의 주당 근로시간	102
<표 3-55>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103
<표 3-56>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주당 근로시간	104
<표 3-57>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주당 근로시간	104
<표 3-58>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의 근로소득	105
<표 3-59>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근로소득	106
<표 3-60>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근로소득	107

<표 3-61>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근로소득	108
<표 3-62> 전북과 전국 결혼이민자의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109
<표 3-63> 전북과 전국 결혼이민자의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110
<표 3-64>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111
<표 3-65>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112
<표 3-66>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 구직경로	113
<표 3-67>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구직경로	114
<표 3-68>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구직경로	115
<표 3-69>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구직경로	116
<표 3-70>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 미취업 사유	117
<표 3-71>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미취업 사유	118
<표 3-72>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미취업사유	119
<표 3-73>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미취업사유	120
<표 3-74>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 향후 취업 희망	121
<표 3-75>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향후 취업 희망률	122
<표 3-76>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향후 취업 희망률	123
<표 3-77>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향후 취업 희망률	123
<표 3-78>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	124
<표 3-79> 전북 결혼이민자 특성별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	125
<표 3-80>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	126
<표 3-81>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	127
<표 3-82>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참여율 및 참여 의향률	128
<표 3-83> 전북 결혼이민자 특성별 직업훈련 참여율 및 의향률(1)	129
<표 3-84> 전북 결혼이민자 특성별 직업훈련 참여율 및 의향률(2)	130
<표 3-85>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직업훈련 참여율 및 의향률	131
<표 3-86>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참여율 및 의향률	131
<표 3-87>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요구영역	132
<표 3-88>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직업훈련 요구영역(1)	134
<표 3-89>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직업훈련 요구영역(2)	135
<표 3-90>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직업훈련 요구영역	136

<표 3-91>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요구영역	137
<표 3-92> 전북과 전국의 다문화가족 현 배우자와의 현존자녀수	138
<표 3-93> 전북의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현 배우자와의 현존자녀수	139
<표 3-94>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현 배우자와의 현존자녀수	140
<표 3-95>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현존 자녀수	140
<표 3-96>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 자녀 연령분포	141
<표 3-97> 전북과 전국의 다문화가족 현재 임신여부 및 추가희망 자녀수	142
<표 3-98>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임신여부 및 추가희망 자녀수	143
<표 3-99>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임신여부 및 추가희망 자녀수	144
<표 3-100>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임신여부 및 추가희망 자녀수	144
<표 3-101>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현 배우자와의 기대자녀수	145
<표 3-102>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기대자녀수	145
<표 3-103>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기대자녀수	146
<표 3-104>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기대자녀수	147
<표 3-105>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미취학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 또는 기관	148
<표 3-106>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미취학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 또는 기관	149
<표 3-107>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미취학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 또는 기관	150
<표 3-108> 전북 14개 시·군별 미취학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 또는 기관	151
<표 3-109>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미취학 자녀를 시설 또는 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	151
<표 3-110>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미취학 자녀를 시설 또는 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	152
<표 3-111>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미취학 자녀를 시설 또는 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	153
<표 3-112>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미취학 자녀를 시설 또는 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	154
<표 3-113>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보육·교육시설(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	155
<표 3-114> 전북 결혼이민자의 보육·교육시설(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	155
<표 3-115>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보육·교육시설(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	156
<표 3-116>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보육·교육시설(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	157
<표 3-117>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방과후 초등학생 자녀 돌보는 사람	158
<표 3-118>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방과후 초등학생 자녀 돌보는 사람	159
<표 3-119>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방과후 초등학생 자녀 돌보는 사람	160
<표 3-120>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방과후 초등학생 자녀 돌보는 사람	161

<표 3-121>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 상 가장 어려운 점	162
<표 3-122>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초등학생 자녀 양육 상 가장 어려운 점	163
<표 3-123>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초등학생 자녀 양육 상 가장 어려운 점	164
<표 3-124>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 상 가장 어려운 점	164
<표 3-125>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165
<표 3-126> 전북 결혼이민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166
<표 3-127>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초등학생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167
<표 3-128>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168
<표 3-129>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받은 비율 ..	169
<표 3-130> 전북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받은 비율 ..	170
<표 3-131> 전북 다문화가족의 출신국별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받은 비율 ..	171
<표 3-132> 전북 14개 시·군별 다문화가족의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받은 비율 ..	172
<표 3-133>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의 도움정도	172
<표 3-134> 전북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의 도움받은 정도	173
<표 3-135> 전북 다문화가족의 출신국별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의 도움받은 정도 ..	174
<표 3-136> 전북 14개 시·군별 다문화가족의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의 도움받은 정도	175
<표 3-137>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의 필요도	175
<표 3-138> 전북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의 필요도	176
<표 3-139> 전북 다문화가족의 출신국별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의 필요도	177
<표 3-140> 전북 14개 시·군별 다문화가족의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의 필요도	178
<표 3-141>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학습지원의 도움정도	178
<표 3-142> 전북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자녀양육·학습지원의 도움정도	179
<표 3-143> 전북 다문화가족의 출신국별 자녀양육·학습지원의 도움정도	180
<표 3-144> 전북 14개 시·군별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학습지원의 도움정도	180
<표 3-145>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학습지원의 필요도	181
<표 3-146> 전북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자녀양육·학습지원의 필요도	182
<표 3-147> 전북 다문화가족의 출신국별 자녀양육·학습지원의 필요도	183
<표 3-148> 전북 14개 시·군별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학습지원의 필요도	183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단계 및 방법	8
<그림 2-1> 전국 국제결혼 증가 추이(2000~2009)	14
<그림 2-2> 전라북도 국제결혼 증가 추이(2000~2009)	15
<그림 2-3> 전라북도 국제결혼가정 세대수	23
<그림 2-4> 전라북도 시·군별 국제결혼이민자 현황	23
<그림 2-5> 전라북도 시·군별 국제결혼가정 자녀 현황	24
<그림 2-6>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 체계도	36
<그림 2-7>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48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자료의 수집과 분석
4. 용어의 정의 및 통계해석 시 유의사항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내용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가간 교역, 기술, 자원, 노동력의 이동이 증가하는 세계화의 진전은 범지구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국제 이주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 유입하는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가정은 가파른 수치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행안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최근 10여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2007년 100만 명을 초과한 이후 2009년 현재 외국인 주민¹⁾이 110만 명으로 총 인구의 2.2%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와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은 1990년 4,710건에서 2000년 12,319건으로 2.6배 증가하였고, 매년 10,000건씩 증가하여 2008년에는 26,204건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결혼대비 국제결혼비율은 1990년 1.2%에서 2008년 11.0%를 차지하여 다문화가족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2009).

전라북도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국제결혼건수가 2005년 2,915건에서 2009년 현재 총 6,545건으로 불과 4년 동안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2007년 3,275명에서 2008년 4,283명, 2009년 5,474명으로 매년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다문화가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은 사회적 낙인, 법적·제도적인 차별 등으로 사회문화의 적응, 부부생활, 경제생활 및 자녀양육, 취업측면에서 일반가족보다 몇 배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사회지원이 미비하여 가족안정성 유지와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다(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09).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언어소통의 미숙함, 학교

1) 외국인 주민은 90일 초과 체류인,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그 자녀를 포함한다.

및 지역사회에서의 따돌림 경험, 부적응 경향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연 및 학습능력 저하 등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급증하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 및 정책보고서 또한 일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그 내용 또한 몇몇의 주제와 관심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모든 결혼이민자를 대표하는 정책수립의 기본 자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4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근거한 전국 다문화가족 대상의 전수조사²⁾가 2009년 시행됨으로서 모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다양한 특성 및 문제, 그리고 복지욕구 등을 반영하는 통계자료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족 실태 전반에 관한 전수조사의 원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은 지역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지역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다문화정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및 자녀양육에 관련된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역량강화와 인적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지역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지역현실에 부합하는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특화추진 시책 등의 발굴, 제안

2) 전국 다문화가족 전수조사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차원에서 공동펀드에 의해 2009년 7월부터 2009년 10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분석결과는 2010년 3월 19일자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주관 하에 발표됨. 본 조사는 다문화가족의 결혼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주거 및 경제생활, 건강 및 보건의료, 복지실태 및 욕구 등 생활실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국내 최초의 다문화가족 전수조사 임.

을 연구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다문화지원 정책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정착과 역량 강화 등에 집중화되어 왔으나 다문화가족 자녀 수 및 취학자녀 등의 증가로 학교생활 적응 문제, 교육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다문화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구체적 시책발굴과 제안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분석 자료를 토대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의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책개발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다.

제 1장에서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배경 및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관한 과정과 자료의 수집 및 활용 연구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 2장에서는 다문화가족 현황 가운데에서도 본 연구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의 취업현황과 자녀+양육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보고서 등을 통해 살펴보고 당면 현안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3장에서는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현황을 제시하고, 국제결혼의 추이와 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도내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국제결혼 현황 및 지역별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외에도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예산 등을 분석하였으며 타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지원 방안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시사점 등을 도출하였다.

제 4장에서는 전국다문화실태조사를 토대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의 일반현황 및 한국어 능력, 취업실태와 근로조건, 자녀양육 및 교육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전북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요약결과를 기반으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 자녀양육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1) 기초통계 수집 및 문헌연구

- 전라북도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족 관련 기초통계 수집 및 분석
- 관련 논문 및 자료집, 정책연구보고서 검토
-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 14개 기초자치단체 관련 행정자료 수집 및 분석
- 타 자치단체의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및 자녀양육 관련 수범 사례 수집 및 분석

(2) 실태조사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의 원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은 기본적으로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료의 수집방법과 분석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 전수인 154,333명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대상자의 표집방식은 16개 시·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시 작성한 다문화가족기초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파악한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족 수는 6,532명이었으나 본 실태조사를 통해 현지 조사원이 확인한 결과 5,436명이 최종 조사대상이 되었으며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³⁾

3) 조사는 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차 조사는 2009년 7월 20일~9월 20일까지 2개월간 실시되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결과 부진한 8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 21일~10월 31일까지

된 것은 4,043명이다.

그러나 전수조사에서 완전한 응답을 얻지 못할 경우 응답률 차이를 조정하여 전수조사에 따라 보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성별, 국적별 응답률에 따른 사후조정을 실시하여 응답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중치 적용 결과, 전라북도는 5,436명(여성결혼이민자 5,335명과 남성결혼이민자 101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5,436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거주지역, 가구소득,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출신국가, 체류기간, 직업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분야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의 취업 및 자녀양육에 해당하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조사문항
일반적사항	결혼전 국적, 성, 출생연도, 배우자의출생연도, 교육수준, 수학년수, 배우자의교육수준, 한국어능력정도, 한국입국년도, 한국입국목적, 한국거주기간, 한국국적취득시기, 체류자격, 국적 또는 영주권취득계획, 월평균가구소득, 가족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취업	배우자의 취업, 배우자의직종,배우자의고용형태,한국으로 오기 전 취업여부, 직종, 한국에서의 현재취업여부, 직종, 고용형태, 구직경로, 평균근무시간, 평균임금, 직업상의 가장 큰 어려움, 노동조합가입여부,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취업의향, 취업하는데 가장 필요한 도움, 직업훈련의 참여경험, 직업훈련의향, 취업을 위해 희망하는 교육
자녀양육	자녀유무, 자녀수, 자녀출생년월, 자녀의 성, 자녀의 취학여부, 미취학자녀의 시설 또는 기관이용여부, 이용하는 시설 또는 기관유형,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미취학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 후 양육형태, 초등학교 자녀 교육상 가장 어려운 점, 초등학교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 배우자의 현 임신여부, 향후 자녀를 가질 계획 및 자녀수,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여부 및 도움정도,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 필요도, 자녀양육 학습지원 여부 및 도움정도, 자녀양육 학습지원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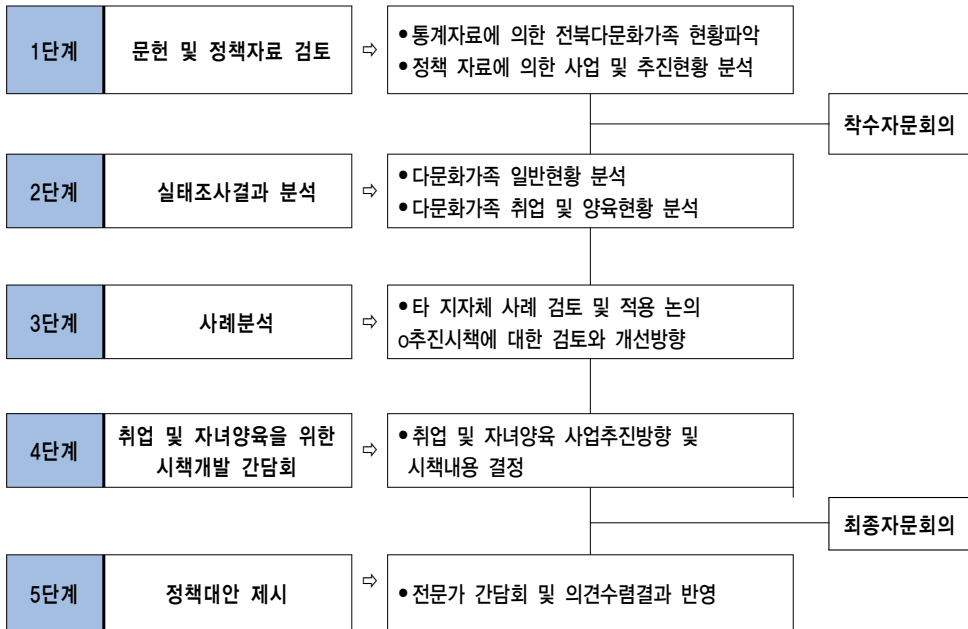
(3)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회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유관기관 개별면담 및 간담회
- 보육시설 운영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공무원 개별면담 및 간담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방법은 조사원의 가구방문에 의한 응답자의 자기기재식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원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지도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국적으로 160명이 동원되었다. 조사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 통반장 등 현지조사원 약 3,000명으로 구성되었다.

- 연구방법 및 방향, 시책개발 관련 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 착수자문회의, 최종자문회의 등 총 2회 실시

본 연구의 진행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1-1〉 연구단계 및 방법

4. 용어정의 및 통계해석 시 유의사항

(1)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3월 21일 제정, 2008년 9월 22일 시행)에 따르면,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뜻한다 : 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정의에 따르면 귀화한 외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정의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다문화가족은 154,333가구⁴⁾이다(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09).

(2) 통계해석 시 유의사항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분석방법은 기본적으로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수집된 원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통계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해석상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이해해야 하는 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고서에서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는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된 것은 결혼이민자라 칭하였고,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그들 가족을 통칭하고 있다.

둘째, 거주지역별 구분을 함에 있어 도시와 농촌이 아닌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1996년에 시행된 전국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동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읍·면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 각 통계표에는 ‘무응답’ 수가 표시되지 않았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질문항에 따라 무응답에 차이가 컸기 때문인데, 통계표에서 제시된 실제 수는 무응답을 제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응답자 및 응답가구의 특성별 설문 문항 분석결과에서 설문 문항에 따라 제시된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응답자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4) 전국의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다문화가족 수는 131,702가구임



제 2 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정책

- 제 1 절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일반현황
- 제 2 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
- 제 3 절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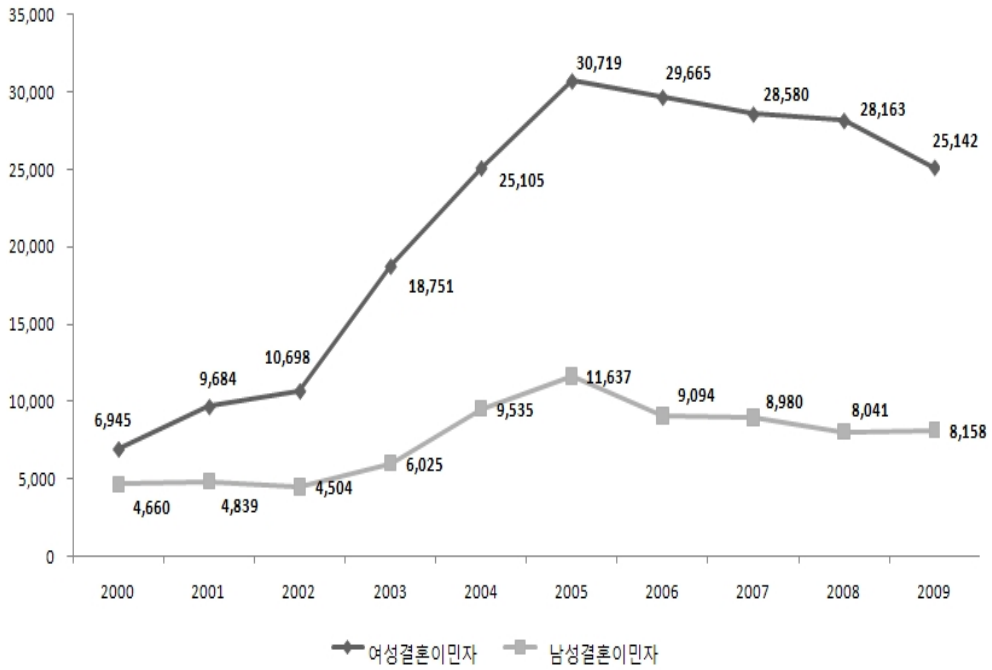
제 2 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정책

제 1 절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일반현황

국제결혼의 증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사회의 결혼이민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남성결혼이민자와 비교해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절에서는 국제결혼의 전국적인 증가 추세를 살펴보고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제결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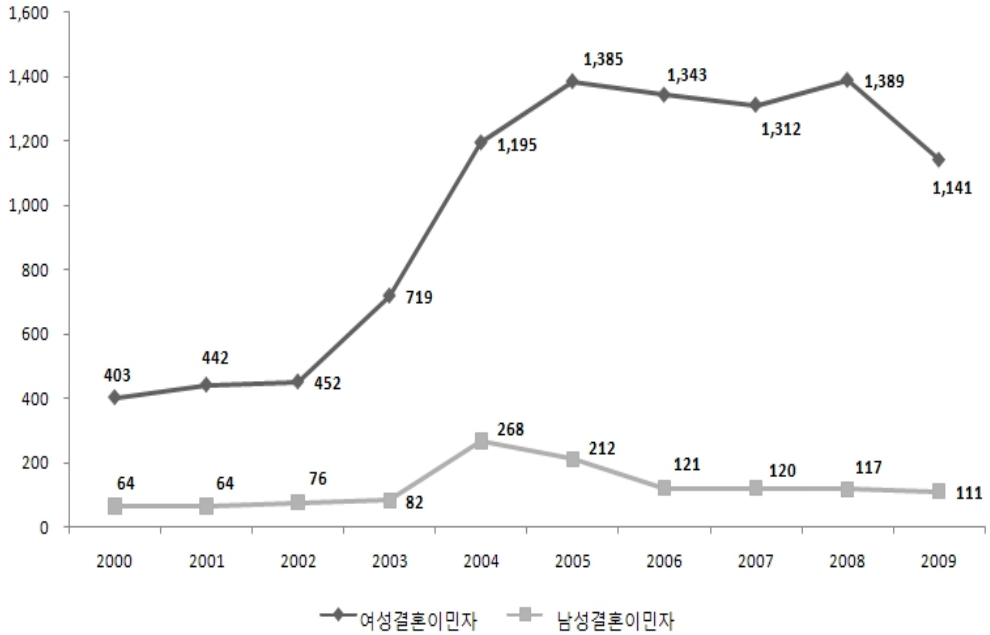
<그림 2-1>은 전국의 국제결혼 증가 추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것이다.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한 건수는 2000년에 4,666건에서 2005년 11,637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09년 8,158건에 이르고 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건수는 2000년 6,945건에서 2002년 10,698건으로 다소 완만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까지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여 30,719건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다소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09년 25,142건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2000년 6,945건에서 2009년 25,142건으로 국제결혼건수가 18,197건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1〉 전국 국제결혼 증가 추이(2000~2009)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전라북도의 국제결혼 증가 추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국 국제결혼 증가 추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결혼건수는 2000년 403건에서 2002년 452건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 1,385건에 이르렀다. 이후 다소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현재 1,141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2000년 403건에서 2009년 1,141건으로 738건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며, 전라북도 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전라북도 국제결혼 증가 추이(2000~2009)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전국·시도별 결혼이민자의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표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9년 현재 혼인귀화자 포함 전국 결혼이민자는 167,090명이며, 2007년과 비교하여 40,095명이 증가하여 비율로는 2007년 대비 31.6%가 증가하였다. 전국 결혼이민자의 증감율을 살펴보면, 전북의 경우 2007년 대비 결혼이민자의 증가율은 53.6%로 경남 60.3%에 이어 전국에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증감수도 전국 16개 시·도중 8번째로 높은 증감수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전북의 결혼이민자 분포는 4.04%를 나타내고 있다.

〈표 2-1〉 전국 시·도별 결혼이민자 증가추이(2007~2009)

(단위 : 명, %)

구분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			결혼이민자 증감수 (C)-(A)	2007년대비 결혼이민자증 감률	2009년 결혼이민자 분포
	2007(A)	2008(B)	2009(C)			
전국	126,995	144,385	167,090	40,095	31.6	100.0
서울	35,897	36,532	39,275	3,378	9.4	23.5
부산	6,342	7,287	7,526	1,184	18.7	4.5
대구	3,809	4,436	4,965	1,156	30.4	3.0
인천	7,489	8,291	10,486	2,997	40.0	6.3
광주	2,497	2,807	3,267	770	30.8	2.0
대전	2,542	3,032	3,623	1,081	42.5	2.2
울산	2,053	2,431	2,950	897	43.7	1.8
경기	31,987	39,395	44,760	12,773	39.9	26.8
강원	3,250	3,636	4,188	938	28.9	2.5
충북	3,787	4,160	4,927	1,140	30.1	3.0
충남	5,321	5,874	8,003	2,682	50.4	4.8
전북	4,390	4,947	6,743	2,353	53.6	4.04
전남	5,080	5,919	7,290	2,210	43.5	4.4
경북	5,416	6,503	8,057	2,641	48.8	4.8
경남	6,147	7,934	9,586	3,709	60.3	5.7
제주	948	1,201	1,444	496	52.3	0.9

주 : 각년도 기준일은 년 4월 30일임.

자료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실태조사」, 각년도

2. 전라북도 시·군별 결혼이민자 현황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결혼이민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전라북도에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2009년 현재 전주시에 1,419명이 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익산시(1,172명), 군산시(737명), 정읍시(53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2009년의 결혼이민자 증감율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완주군으로 2007년 239명에서 2009년 472명으로 무려 약 94.5%의 증가율을 보였다. 김제시도 2007년 245명에서 2009년 446명으로 약 8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안군(68.7%), 남원시(60.4%), 임실군(57.3%), 군산시(56.9%) 순으로 결혼이민자의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표 2-2〉 전북 시·군별 결혼이민자 증가추이(2007~2009)

(단위 : 명, %)

구분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			결혼이민자 증감수 (C)-(A)	2007년대비 결혼이민자증감률
	2007(A)	2008(B)	2009(C)		
전국	126,995	144,385	167,090	40,095	31.6
전북	4,390	4,947	6,743	2,353	53.6
전주	888	855	1,419	531	59.8
군산	471	529	737	266	56.5
익산	785	823	1,172	387	49.3
정읍	431	467	535	104	24.1
남원	240	269	385	145	60.4
김제	245	305	446	201	82.0
완주	239	340	472	233	97.5
진안	141	167	190	49	34.8
무주	94	122	140	46	48.9
장수	138	182	190	52	37.7
임실	138	183	217	79	57.3
순창	167	203	220	53	31.7
고창	234	263	318	84	35.9
부안	179	239	302	123	68.7

주 : 각년도 기준일은 년 4월 30일임.

자료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실태조사」, 각년도

〈표 2-3〉 전북 결혼이민자 시·군별 성별분포 현황(2009)

(단위 : 명, %)

구분	여성결혼이민자		남성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성별구성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여성	남성
전국	149,853	100.0	17,237	100.0	89.7	10.3
전북	6,545	100.0	198	100.0	97.1	2.9
전주	1,344	20.5	75	37.9	94.7	5.3
군산	718	11.0	19	9.6	97.4	2.6
익산	1,112	17.0	60	30.3	94.9	5.1
정읍	519	7.9	16	8.1	97.0	3.0
남원	382	5.8	3	1.5	99.2	0.8
김제	441	6.7	0	0.0	100.0	0.0
완주	463	7.1	0	0.0	100.0	0.0
진안	189	2.9	0	0.0	100.0	0.0
무주	139	2.1	0	0.0	100.0	0.0
장수	188	2.9	0	0.0	100.0	0.0
임실	216	3.3	0	0.0	100.0	0.0
순창	218	3.3	0	0.0	100.0	0.0
고창	318	4.9	0	0.0	100.0	0.0
부안	298	4.6	0	0.0	100.0	0.0

주 : 각년도 기준일은 년 4월 30일임.

자료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실태조사」, 각년도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중국 조선족인 3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한족 등 중국(27.3%), 베트남(1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전국적인 현황과 다르게 베트남 출신이 2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중국 조선족(22.0%), 한족 등 중국(19.9%), 필리핀(13.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국적별 현황은 전체적인 현황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북미·호주·서유럽의 경우는 남성 결혼이민자가 여성결혼이민자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2-4〉 전북과 전국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북			전국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중국(조선족)	1,194 (22.0)	31 (30.7)	1,163 (21.8)	40,000 (30.4)	3,949 (34.2)	36,051 (30.0)
중국(한족 등)	1,081 (19.9)	28 (27.7)	1,053 (19.7)	35,914 (27.3)	2,988 (25.9)	32,926 (27.4)
베트남	1,534 (28.2)	1 (1.0)	1,533 (28.7)	25,688 (19.5)	127 (1.1)	25,561 (21.3)
필리핀	740 (13.6)	4 (4.0)	736 (13.8)	8,748 (6.6)	132 (1.1)	8,616 (7.2)
몽골	54 (1.0)	0 (0.0)	54 (1.0)	1,830 (1.4)	30 (0.3)	1,800 (1.5)
태국	70 (1.3)	0 (0.0)	70 (1.3)	1,726 (1.3)	23 (0.2)	1,703 (1.4)
캄보디아	242 (4.5)	0 (0.0)	242 (4.5)	2,628 (2.0)	5 (0.04)	2,623 (2.2)
일본	342 (6.3)	4 (4.0)	338 (6.3)	5,443 (4.1)	447 (3.9)	4,996 (4.2)
북미·호주·서유럽	33 (0.6)	24 (23.8)	9 (0.2)	2,428 (1.8)	1,874 (16.2)	554 (0.5)
기타	146 (2.7)	9 (8.9)	137 (2.6)	7,298 (5.5)	1,982 (17.2)	5,316 (4.4)
계	5,436 (100.0)	101 (100.0)	5,335 (100.0)	131,703 (100.0)	11,557 (100.0)	120,146 (100.0)

자료 : 여성부, 「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3.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2009년도 전체 이혼 중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9.4%에 달하고 있다. 국내 이혼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 있는 상황속에 조이혼율이 2.5%인데 비해,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역시 해마다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5〉 국제결혼 이혼건수(2004~2009)

(단위 : 명, %)

구분	국내결혼		국제결혼			구성비 (B/A)	구성비 (C/B)
	이혼건수 (A)	조이혼율 (천명당)	외국인 아내(C)	외국인 남편	소계(B)		
2004	138,932	2.9	1,567	1,733	3,300	2.4	47.5
2005 (증감률)	128,035 (-7.8)	2.6	2,382 (52.0)	1,789 (3.2)	4,171 (26.4)	3.3	57.1
2006 (증감률)	124,524 (-2.7)	2.5	3,933 (65.1)	2,203 (23.1)	6,136 (47.1)	4.9	64.1
2007 (증감률)	124,072 (-0.4)	2.5	5,707 (45.1)	2,964 (34.5)	8,671 (41.3)	7.0	65.8
2008 (증감률)	116,535 (-6.1)	2.4	7,962 (39.5)	3,293 (11.1)	11,255 (29.8)	9.7	70.7
2009 (증감률)	123,999 (6.4)	2.5	8,300 (4.25)	3,392 (3.0)	11,692 (3.9)	9.4	71.0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국제결혼이 증가한 만큼 이들이 이혼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북의 경우도 이러한 추세가 예외는 아니다. 전북의 경우 2009년 현재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381건으로, 전북 전체 이혼건수 4,285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에는 전북 전체 이혼건수에서 국제결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어 전북의 국제결혼 이혼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전북의 총 이혼건수에 대한 비율도 2004년 1.7%에서 2009년에는 8.9%를 차지하여 지난 5년 사이에 다섯배 이상 급증하였다. 2009년 국제결혼 이혼건수가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인 전북의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율은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태이다.

〈표 2-6〉 전북 국제결혼 이혼건수(2004~2009)

(단위 : 명, %)

구분	총 이혼건수	국제결혼 이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	건수	%	건수	%
2004	5086	84	1.7	61	1.2	23	0.5
2005 (증감율)	4471 (-12.1)	121 (44.0)	2.7	94 (54.1)	2.1	27 (17.4)	0.6
2006 (증감율)	4448 (-0.5)	233 (92.6)	5.2	193 (105.3)	4.3	40 (48.1)	0.9
2007 (증감율)	4417 (-0.7)	341 (46.4)	7.7	287 (48.7)	6.5	54 (35.0)	1.2
2008 (증감율)	3784 (-14.3)	413 (21.1)	10.9	358 (24.7)	9.5	55 (1.9)	1.5
2009 (증감율)	4285 (13.2)	381 (-7.7)	8.9	333 (-7.0)	7.8	48 (-12.7)	1.1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결혼이민자들의 이혼·별거 이유로는 성격차이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무능력(19.0%), 학대와 폭력(12.9%)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에도 성격차이가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무능력, 학대와 폭력에 대한 비율이 전국과 비교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2-7〉 전북과 전국 결혼이민자의 이혼·별거 이유

(단위 : 명, %)

구분	외도	성격 차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무능력	학대와 폭력	음주 및 도박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	계(수)
전북	14.5	24.2	8.1	22.6	17.7	6.5	6.5	100.0 (62)
전국	13.2	29.4	7.1	19.0	12.9	8.6	9.8	100.0 (3,669)

자료 : 여성부(2009),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4. 전라북도 국제결혼가정의 특징

2009년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 의하면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가정의 현황은 6,590세대이며,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1,410세대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익산(1,224세대), 정읍(611세대), 군산(520세대), 완주(509세대) 등의 순으로 결혼이민가정이 분포하고 있다.

전라북도 시·군별 결혼이민자 현황은 혼인귀화자를 포함하여 전주시가 1,419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익산(1,172명), 군산(737명), 정읍(535명), 완주(472명), 김제(446명)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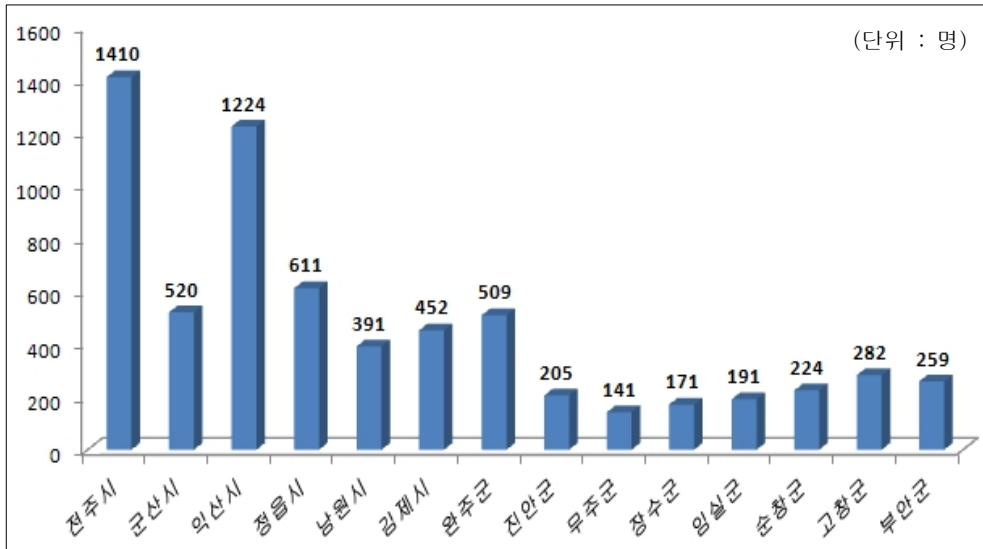
전라북도 시·군별 국제결혼가정 자녀 현황은 전주가 813명으로 가장 많으며, 익산(707명), 정읍(463명), 완주(410명), 김제(356명), 고창(3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전라북도 시·군별 국제결혼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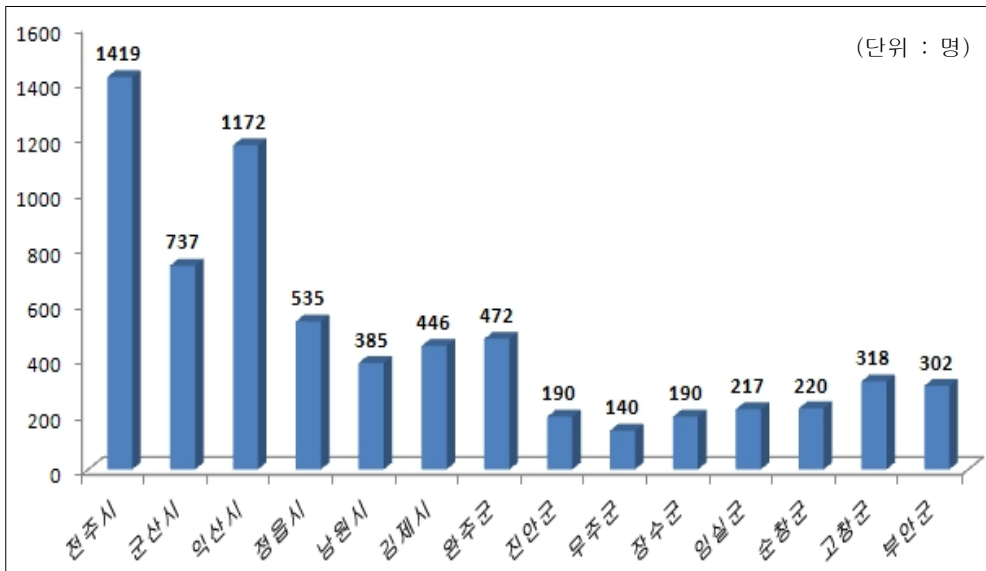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세대수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자녀 (외국인-한국인부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북	6,590	5,147	180	4,967	1,596	18	1,578	4,831	2,499	2,332
전주	1,410	1,043	62	981	376	13	363	813	408	405
군산	520	627	17	610	110	2	108	306	158	148
익산	1,224	950	59	891	222	1	221	707	342	365
정읍	611	391	15	376	144	1	143	463	244	219
남원	391	277	2	275	108	1	107	262	139	123
김제	452	334	5	329	112		112	356	184	172
완주	509	362	9	353	110		100	410	210	200
진안	205	151	1	150	39		39	249	139	110
무주	141	105	1	104	35		35	142	64	78
장수	171	128	2	126	62		62	192	98	94
임실	191	165	1	164	52		52	216	118	98
순창	224	166	2	164	54		54	198	130	68
고창	282	242		242	76		76	344	192	152
부안	259	206	4	202	96		96	173	7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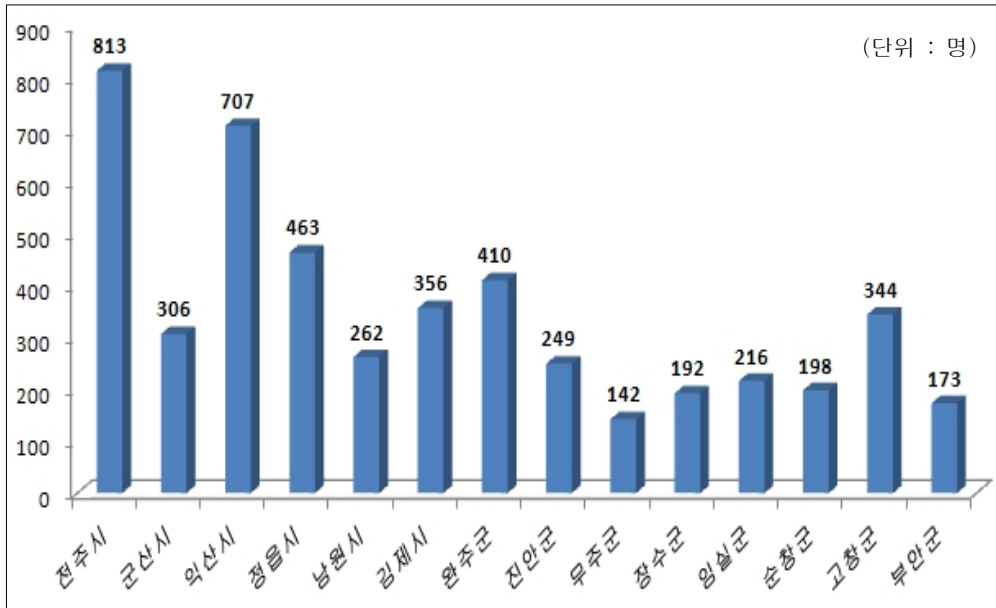
주: 자녀는 외국인과 한국인부모의 자녀이며, 세대수는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 취득자'의 자녀 및 세대수임
 자료 : 행안부(200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그림 2-3〉 전라북도 국제결혼가정 세대수



〈그림 2-4〉 전라북도 시군별 국제결혼이민자 현황



〈그림 2-5〉 전라북도 시·군별 국제결혼가정 자녀현황

2010년 현재 전라북도 국제결혼가정의 학령기자녀수는 총 2,119명으로 2008년과 비교해 609명이 증가하였으며,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지역별로도 전주, 군산 익산 등 도시 지역에 학령기 자녀가 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경우 순창과 고창 지역에도 도시지역과 비슷한 분포를 보여 이들 지역에 학령기 자녀의 수가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표 2-9〉 전라북도 시·군별 학령기자녀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초	중	고	총계	초	중	고	총계	초	중	고	총계
전북	1,326	154	30	1,510	1,607	224	40	1,871	1,674	387	58	2,119
전주	183	26	2	211	249	38	1	288	269	71	17	357
군산	80	8	4	92	94	16	1	111	112	22	3	137
익산	170	25	11	206	218	33	20	271	204	44	13	261
정읍	123	18	7	148	150	28	11	189	139	32	4	175
남원	137	8	0	145	145	13	0	158	145	26	1	172
김제	53	5	2	60	82	8	1	91	94	20	2	116
완주	89	9	0	98	111	12	0	123	128	16	0	144
진안	80	3	0	83	88	8	0	96	66	34	3	103
무주	30	5	3	38	30	4	2	36	48	7	5	60
장수	76	9	0	85	83	12	0	95	93	24	2	119
임실	49	11	0	60	52	8	1	61	51	10	1	62
순창	97	13	0	110	119	22	0	141	114	36	5	155
고창	92	8	0	100	107	12	3	122	123	26	2	151
부안	67	6	1	74	79	10	0	89	88	19	0	107

자료 : 전라북도 교육청 내부자료

제 2 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

1. 중앙정부

최근 외국인정책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마련과 함께 외국인관리 및 지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에 있다. 이중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들의 체류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여건 조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의 결혼이민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한시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에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2006년 4월에는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3차에 걸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발표하여 체류자격 불안정 문제, 생활상의 시급한 문제, 정보제공·취업·보건의료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부당국의 감독·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의 결혼이민자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방안 등도 포함하였다. 2006년에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전국에 21개소를 지정하였으며, 2007년에는 38개소로 확대, 2008년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80개소로 확대 운영하였다. 2010년 현재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17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2-10〉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2010)

(단위 : 개소)

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71	20	7	6	7	3	2	3	2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	10	15	14	16	16	14	2

자료 : 보건복지부,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사업으로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취·창업 지원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사업 외에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를 감안하여 실시하거나 센터의 필요에 의해 기타사업으로 통·번역 서비스 자조모임, 자원봉사단(멘토링 등) 운영, 다문화인식 개선사업, 홍보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11〉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현황(2009)

구분	세부내용
한국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를 이해하고 생활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단계별 한국어교육 실시 - 5단계 과정 : 초급 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과정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및 인권교육 : 국내체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생활관련 법률 - 결혼과 가족의 이해 : 결혼과 가족이해 증진 프로그램, 가족교육 관련 전문가안내 - 한국사회적응교육 : 공공기관 및 공중도덕, 건강과 의료·임신·출산, 정보화교육,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한국의 교육제도 - 다문화이해교육 :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가족의 문화갈등과 적응, 각국의 역사와 문화
가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 가족전체 통합교육, 부부 및 부모교육, 시부모교육(연간 3가지 이상 운영) - 배우자교육 : 예비배우자교육(연간 1회 이상), 배우자교육(연간 2회 이상) - 자녀지원 : 육아정보나눔터 또는 놀이방 운영, 부모와 자녀관계 및 자긍심향상 프로그램 운영, 정체성·사회성·언어학습 등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가족·개인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부모·자녀·성·경제문제 등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정서적 지원 및 정보제공 - 센터 종사자 중 1명은 전문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채용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상담이 가능하도록 자원봉사자 등을 확보토록 함
기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창업지원 상담 • 센터내방, 방문교육 대상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취·창업에 대한 욕구파악 및 취·창업관련 기초상담 실시(상담내용에 취·창업지원 내용 포함 가능) - 해당지역의 취·창업가능 일자리 탐색 및 개별센터에서 추진 가능한 직종 분석 - 취·창업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취·창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수요 및 일자리 제공 가능한 지역, 기업 특성을 감안한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수립·실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영농기술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들의 농촌적응 능력 배양 및 고령화·공동화되고 있는 농촌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을 농업 인력으로 자원화 ☞ 기본방향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일반, 기초영농교육, 농기계사용법, 현장체험 등 농촌지역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제공 ☞ 향후계획 : '09년 예산 10억 확보, 관련 사업안내 마련 ※ '08년에는 10억원으로 16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내 교육프로그램 활용 또는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취·창업 연계 및 알선프로그램 • 해당지역의 일자리제공기관과 결혼이민자 연계 활동(센터 직접 수행 또는 취창업지원 알선·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고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관련기관 활용 가능) - 지속적 취·창업자 상담 및 정보제공(자조모임 운영 등)

구분		세부내용
기타 사업	통·번역 서비스 자조모임 운영	- 초기 이민자들의 통역·정서지원 및 한국생활 멘토 역할 - 가족갈등, 행정·사법기관 방문, 병원진료 등 통역 지원 - 기타 한국어가 서툰 이민자의 생활현장 동행 등 다양한 지원 활동
	지역사회· 민간자원활 용 프로그램 운영	- 지역내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 Pool 구성 - 서비스 수요분석에 기반한 멘토 양성·활용 - 센터별로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구성·운영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 프로그램 전시, 다문화 음식체험, 의상체험, 전통공연 등 - 다문화강사를 학교와 유치원 등에 파견하여 어린이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 다문화캠페인과 언론매체 인터뷰 등 홍보활동
	지역사회 협력네트워 크 강화	-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 담당부서가 총괄 조정 역할 - 일선서비스 전달체계는 센터가 중심이 되어 관련기관-민간단체-기업간 협력네트워크 구성 -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서비스 접근성 강화
	정보제공 (홍보)	- 생활·정책 정보매거진 보급 확대 - TV 등 방송매체 활용 정보제공 활성화 - 외국인 남편 대상 정보제공사업 활성화 - 건강보험 가입 안내 홍보 강화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함께 2008년 9월에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이다(김영혜 외, 2009).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결혼이민자 지원은 각 부처별로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각 중앙부처의 관련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2010년도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총 예산(안)은 512 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8년과 비교해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한 예산이다.

〈표 2-12〉 중앙부처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총괄현황(2008~2010)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2009년 기준)	예산		
		2008	2009	2010(안)
보건 복지 ⁵⁾ (현재 여성가족부 로 이관)	□ 소계	23,167	29,745	36,357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2,064	5,165	1,275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2,770	4,844	8,278
	○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관리	1,500	1,350	
	○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16,652	16,652	24,354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	1,553	
	○ 국제결혼중개업 및 결혼이민자정책지원	181	181	450
	○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2010년도 신규)	-	-	2,000
여성 가족부	□ 소계	723	3,700	4,730
	○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예방	176	2,298	4,730
	○ 폭력피해이주여성 긴급구호 및 상담전화 운영	547	1,202	4,730
	○ 이주여성 취업지원	-	200	-
법무부	□ 소계	1,530	3,661	4,670
	○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1,530	2,461	1,861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운영	-	1,200	2,809
문화체육관광 부	□ 소계	2,077	3,507	3,718
	○ 이주민 문화적응 및 교류지원	1,400	1,420	1,970
	○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	800	
	○ 다문화사회의 한국어교육진흥	560	580	356
	○ 중앙박물관 운영-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63	37	37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다문화가정을 위한 독서진흥 콘텐츠 개발	39	50	500
	○ 국악원 공연활동-다문화가족을 위한 공연(아시아, 우리는 하나)	15	25	25
	○ 국립어린이민속박물관-다문화교육	-	95	80
○ 다문화가정 자녀대상 한국어 방문학습교재 개발	-	500	750	
행정안전부	□ 소계	-	2,429	820
	○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	2,429	820
교육과학 기술부	□ 소계	434	800	500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434	800	500
농림수산 식품부	□ 소계	-	426	426
	○ 농업인교육훈련 - 이주 여성농업인 1:1 맞춤형 영농교육	-	426	426
총 계		27,931	44,268	51,221

주1: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사회의 한국어교육진흥 사업을 2010년도에 폐지(명칭폐지)하고 한국어 교원양성 및 교육자료개발 사업(세부사업)의 세부사업인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양성 과정 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주2: 교육과학기술부는 특별보부금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2009 7월~2010년 6월간 총 35억 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을 별도로 추진 중임.

자료 : 고혜원(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체계화 방안'

5) 정부는 2010년 3월 19일부터 가족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였으며,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는 여성가족부⁶⁾,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부처이다. 이중 여성가족부는 동 사업의 주무부처로서⁷⁾ 부처별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의 연구검토 및 각 부처 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업무를 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각 부처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한국어와 문화, 가족 제도 등을 익혀 지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활용하여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을 지원하고 상담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스템 구축 및 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유관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주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결혼이주민들의 농업인 교육 및 적응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을 위해 다국어 표지판 설치, 교육·의료·복지 등의 생활정보 제공, 지역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도우미 프로그램 연계, 다국어 민원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0년 9월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2011년도 ‘서민희망 예산’의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날 확정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언어교육 등 조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등이다.

6) 2010년 3월 19일 보건복지가족과 여성부 간의 기능조정을 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다문화관련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였다.

7)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외국인정책 주무부처는 법무부이다.

'서민희망 예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언어발달 지원 확대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료 전액 지원(28천명, 580억원(추계))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다문화 언어지도사(100→200명) 배치 확대
- 이중언어 역량개발을 위한 엄마(아빠)나라 언어 습득 지원(신규, 이중언어강사 100명)
- 동반입국 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신규, 10개 지역·3개월 과정)

□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제공, 언어교육 등 조기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를 통한 온라인 다국어 지원 확대(4→8개 언어), 해외공관 등에 정보매거진·리플렛 배포 확대
- 결혼이민자 대상 방문교육 서비스(한국어, 양육정보 등) 강화(방문교육 지도사 : 2,240 → 3,200명)

□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전액 지원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우선 제공
- 결혼이민자의 지역기업 일자리 발굴·취업 지원
(단순조립직, 양재, 미용, 바리스타 등, 지원수준 : 월 50만원)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 내국인가족과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다문화동아리 활동 (28→48개소) 및 다문화가정 어울림생활체육 지원 확대(다문화가정 family day 100개소 추가)
-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강사'로 양성, 학교·문화시설에 파견하는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공중파 TV,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매체광고를 적극 활용하여 대국민 인식 개선

국제결혼의 빠른 증가 추세와 함께 결혼이민 가정의 수 또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과 자립역량 강화,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많은 사업들이 유사·중복 지원정책이 많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하여 부처간의 갈등이 발생, 일회성 행사난 시혜성 지원에만 치중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2009)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평가」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동안 추진되어온 중앙부처의 결혼이민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대상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결혼이민자가족만을 사업대상자로 설정하고 있어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은 전체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예산의 1.2%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관련 정책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이민가족의 소득보장이 열악한 측면이 있어 빈곤가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관련 사업은 미미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에 적합한 직종 개발 및 직업교육 확대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들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자료·안내책자 개발, 각종 교육 사업들 간의 유사·중복으로 인해 예산 낭비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유사한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각기 나누어 수행하고 있고 상호 연계나 정보 공유가 없어 결국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조정기능을 활성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축제·행사·문화체험 등의 행사성·일회성 성격이 큰 사업들은 결혼이민자의 효과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악한 경제적 사정 하에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이러한 행사성·일회성 사업보다는 취업지원 등과 같이 그들에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집행의 측면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성격의 사업들에 나누어 투입하는 것보다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며 꾸준한 성과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들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각종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결혼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업성과 측면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를 위한 각종 사업들의 효과성이 낮게 나타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등 효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

께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총 이혼 대비 결혼이민자들의 이혼 구성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투입재원에 비례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의 이혼율 상승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전라북도 결혼이민자지원 사업체계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조직상으로 중앙부처(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본적·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전라북도는 중앙정부의 기본적 정책방향에 따라 시·군,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관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센터를 지정·관리하는 한편 관련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관리기관인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은 다문화가족정책 전달체계로서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전국의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 거점센터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내 센터 중 1개 센터를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관할지역 내에서 센터·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방문교육지도사의 교육, 신규센터의 사업 지원, 거점지역 내 지역센터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센터이다. 호남권은 익산에 거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32개 지역센터(전북 14, 전남 16, 광주 2)를 관리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군별 다문화업무를 수행하는 최일선 서비스 전달 기구로서 2006년 2개소가 설치된 이후 2010년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11개소는 국비로, 3개소는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다.

〈표 2-13〉 전라북도 시·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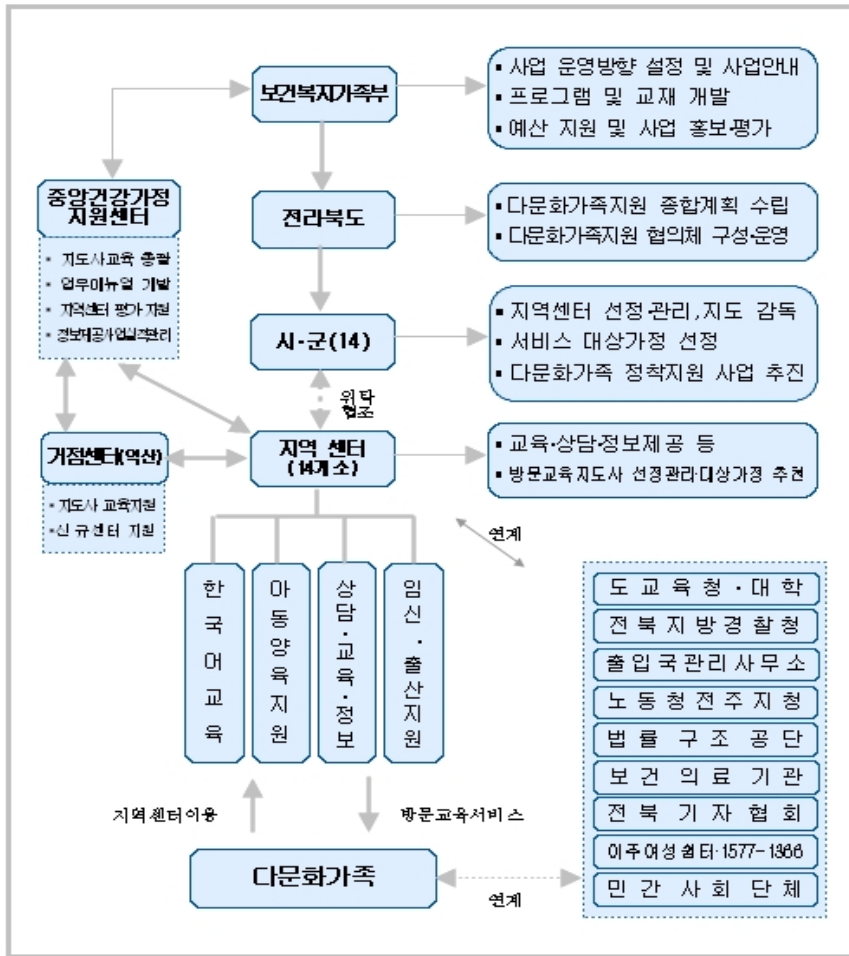
구분	서울	
국비지원 (11개 센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지방비 지원 (3개 센터)	진안, 무주, 부안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이 밖에 전라북도는 2009년 1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체계적 지원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전북 다문화가족지원 협의체’는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자문·심의기구로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시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유관기관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협의 및 시책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의회’는 도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지역센터별 회계처리 및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문화지원정책 현안 설명 및 의견수렴의 기능을 수행한다.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는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 거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정책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전북다문화 포럼’은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학술적·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표 2-14〉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 현황

구분	목적 및 기능	사업비
전북 다문화가족지원 협의체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자문·심의기구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시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유관기관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협의 및 시책 발굴	9.5백만원
전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의회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센터장, 종사자, 사업담당자 등 포함)을 대상으로 지역센터별 회계처리 및 각종 지원정책 정보공유 - 전라북도 다문화지원정책 현안 설명 및 의견 수렴	3백만원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 거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자문기구 -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정책에 대한 자문	3백만원
전북 다문화포럼	-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학술적·이론적 근거를 제시 하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소통의 장 마련	20백만원



〈그림 2-6〉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 체계도

3. 전라북도 다문화관련 사업추진 현황

전라북도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도에 추진한 실적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사업은 14개 시·군 가운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는 진안, 무주, 부안 등 3개소에 전액 지방비로 센터를 설치하여 14개 시·군 전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리적 접근성과 이용기회가 제한 적인 군 단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결혼이민여성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타 시도에 비하여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문화 적응교육의 생활농업기술 및 여성농업인 후견인제 등을 운영하였으며, 전라북도 농협전북지부에서는 이민여성을 위한 전통혼례식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을 돕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 사업 협의 및 시책발굴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를 발족하고 14개 다문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정책 지원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표 2-15〉 2009년도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실적

정책목표	세부사업
법적·제도적 체계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정(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등 행·재정적지원근거마련 • 체계적지원을 위한 민관거버넌스정비(0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 : 지원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 담당 -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 교육청, 지역센터, 유관기관·단체가 참여(28명)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시책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방향 협의(4회)
물적·인적자원 기반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설치(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설치 : ('08)7개소→('09)14개소 - 한국어교육, 문화이해교육, 가족교육·상담, 자조집단 육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 980백만원(개소당 70백만원×14개소) •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설치운영(09.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및 자녀들을 보호(2년까지)하고, 의료·법률 연계 지원 - 쉼터 운영 : 2개소(전주·익산) • 다문화 지원정책 관련 교육기관운영(09.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권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 익산센터('09. 1, 복지부) - 전북권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기관 : 우 석 대('09. 1, 법무부)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주관, 외국인주민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자치단체별 외국인 현황조사(국적별·성별·유형별) - 외국인주민 지원기구·단체 현황 파악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09.12.1 현재) : 2,926명 - 방문교육 서비스 : 지도사 418명 → 1,673가정(한국어 813, 아동양육 860) - 한국어 교재보급 및 「e-배움」 협약체결 - 이주여성 통번역사 양성·배치 : 72명 - 센터별 한국어 집합교육 강사 : 63명 - 국제결혼 사전 정보 교육(4회) : 160명 - 육아정보 나눔터 설치 : 9개 센터(국비) - 이주여성 영농기술 교육 : 7개 센터(전주, 김제 제외)
다문화사회·가족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인식제고 MOU(도↔기지협회) 체결('09.1.) •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책설명회(8회) • 다문화 포럼(5회) • 다문화정책 워크숍(4회) ○세계인축제 한마당(1회)

2010년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총 8가지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지원시스템 구축

다문화가족 지원시스템 구축은 호남권 다문화가족 거점센터로 익산시 지역센터를 재지정, 전라북도 14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다. 도 시책 사업으로는 지역센터 종사자 인력보강과 전북 다문화포럼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북 다문화가족지원 협의체, 전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의,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등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표 2-16〉 다문화가족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현황

사업	사업내용
호남권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재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제4권역 거점센터로 재지정(복지부, 09.12) - 관리대상 32개 지역센터(전북14, 전남 16, 광주2) - 조직관리 1명(거점담당) - 사업비 : 25백만원
전 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개 시군별 센터 운영 - 국비지원11개소, 지방비지원3개소 - 지원액 : 센터당 70백만원 - 사업비 : 980백만원
지역센터 종사인력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시책사업(10년 신규사업) - 가족상담업무 전담과 그에 따른 인건비 지급 - 사업비 : 269백만원
전북다문화가족지원 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자문 및 심의기구 - 위원 : 28명 / 연간 4회 - 사업비 : 9.5백만원
전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의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계처리 및 각종 지원 정책 정보공유 - 협의회원 : 120명 / 매월 정기 - 사업비 : 3백만원
거주의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을 향상을 위한 자문기구 - 위원 : 15명 / 연간 2회 - 사업비 : 3백만원
전북 다문화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학술적·이론적 논의(10년 신규) - 회원제 운영, 4개 분과(사회, 복지, 교육, 문화) - 사업비 : 20백만원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 지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 강사료 지원, 한국어교육 교재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성화사업으로는 이중언어 교실, 언어 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타사업은 방문교육 서비스와, 국제결혼 희망자(배우자)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 지도 사업 지원현황

사업	사업내용
기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강사로 지급 : 사업비 140백만원(도비 70, 시군비 70) - 한국어교육 교재 보급 : 18백만원(도비)
특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언어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지역센터(남원, 장수, 고창)에서 이주여성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 - 사업비 : 15백만원 • 언어발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지도사 인건비 및 운영비 - 사업비 : 328백만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번역사 인건비 및 운영비 - 사업비 : 350백만원 • 방문교육 서비스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아동양육지원 - 사업비 : 1,803백만원(국비 1,262, 도비 180, 시·군비 361) • 국제결혼 희망자(배우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을 희망하거나 관심 있는 한국인 남성 대상 - 사업비 : 28백만원(국비 19, 도비 3, 완주군 6)

(3) 시·군 지역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결혼이민자 송출국의 문화적 특성 및 국제결혼 중개행태 등을 이해하기 위해 출시국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주여성 송출국가 결혼정책, 민간 결혼 풍습제도, 이주여성 가정방문, 결혼이주 희망여성 인터뷰, 생활습관 및 문화체험 등에 대한 결혼이민자 출신국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센터에서 활동하는 방문지도사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다문화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다문화지원정책 우수사례에 대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표 2-18〉 시·군 지역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현황

사업	사업내용
결혼이민자 출신국 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의 송출국 사회문화 이해를 토대로 맞춤형지원서비스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송출국가 결혼정책, 민간 결혼 풍습제도, 생활습관 및 문화체험 등 - 사업비 : 300백만원(도비)
다문화 지도사 우수사례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센터 방문지도사 대상으로 전문성과 자질향상도모/년간 2회(7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10백만원(도비)
다문화종사자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종사자간 의견 및 정보공유 통해 우수사례발굴 및 전파/년간 2회(4월·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14백만원(도비)

(4) 이주여성 경제·사회적 자립 지원

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취·창업 직업교육, 자녀교육, 문화체험, 전통혼례, 친정부모 초청, 모국 방문 등 시·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를 자활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이주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표 2-19〉 이주여성 경제·사회적 자립 지원 현황

사업	사업내용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각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추진 - 취창업 교육 외 30개 사업 - 사업비 : 615백만원(시·군비)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확대(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특례 확대 적용 추진 건의
다문화가정 자활근로 추진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부터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급료를 지급 - 시·군별 1팀이상 이주여성 자활사업단 구성·운영 - 사업비 : 1,680백만원(국비 1,344, 도비 168, 시·군비 168)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서비스 활성화 - 다문화가정 후견인 사업 - 민간사회단체 연계 협력사업
취업정보제공 (전주고용지원센터)	- 직업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직업훈련 정보제공
결혼이민자 인적자원 개발(여성청소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문제 해소 지원 - 사업비 : 50백만원(09년도 실적)
결혼이민자 영어보조교사 채용(장수군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학력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 우수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보조교사를 양성하여 방과후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파견 - 사업비 : 161백만원(09년도 실적)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를 위한 특화된 사업 개발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통역, 농산물(생산·제조·판매), 공예품(제작·판매), 도우미 파견 사업 등
지역센터 취업 알선 창구 설치	• 취업알선 창구 설치를 통한 구직자와 구인자간 연계알선

(5) 이주여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이주여성 자녀 수 및 취학자녀 등의 증가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문제, 교육격차의 심화 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주여성 자녀의 보육 및 학교생활을 적응을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이주여성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학습 지원, 취학자녀 학교생활 적응지원, 초등학생 자녀 학습도우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0〉 이주여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현황

사업	사업내용
이주여성 자녀 보육료 지원 (여성청소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자녀의 건전한 발달 및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 - 23개월 미만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보육비지원 - 매월 1인당 100천원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학습 지원(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비 : 9개 사업 / 409/466백만원 - 다문화가정 교육전담실 운영 : 16,016천원 - 다문화가정 사랑방 운영 : 255,000천원 - 다문화이해 연구학교 지원 : 10,000천원 - 수기집 발간 및 공모 당선자 시상 : 10,150천원 - 우수사례집 발간 및 지도교사 표창 : 5,650천원 - 자료개발 및 입학 전 안내자료 보급 : 14,550천원 - 어울림 한마당 행사지원 : 28,100천원 - 초등학교 신입생 장학금 지급 : 70,000천원
취학자녀 학교생활 적응지원 (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취학자녀 후견교사제 운영 • 결혼이민자 자녀 도우미 친구 결연
초등학생 자녀 학습도우미 운영(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기초학습 및 교과지도 • 대학생과 초등학생간 1:1결연 학습지도

(6) 외국인 건강검진 및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현황

이주여성들의 의료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체계적인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라북도에서는 이주여성 건강행태조사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인 결혼이민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주여성 무료건강검진, 국적취득 전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들에게 무료진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1〉 외국인 건강검진 및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현황

사업	사업내용
이주여성 건강행태조사 (보건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및 건강행태 조사
이주여성 무료건강검진 (보건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의 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관리 - 사업비 : 74백만원(도비 22, 시군비 52)
외국인 무료진료 제공 (보건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무료진료 제공 - 국적취득 전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 - 사업비 : 90백만원(국비 63, 도비 27)

(7)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및 인권보호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법률지원, 상담 서비스, 통역요원 양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2-22〉 외국인 건강감진 및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현황

사업	사업내용
이주여성 상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콜센터) 이주여성 긴급전화 : 1577-1366 - (전북 콜센터) 전북여성 긴급전화 : 1366 / 사업비 : 192백만원(국비) - (민간 시설이용) 전북 이주여성 인권센터 : 227-2990 - (시군 지역센터)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센터 통역요원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통역요원 양성 및 전문통역요원 활용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 지원 - 사업비 : 56백만원(도비 28, 시군비 28)
보호시설(쉼터) 운영 및 기능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208백만원(국비 73, 도비 83, 시·군비 52)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 보호시설 기능보강 - 사업비 20백만원(국비 14,, 도비2, 시·군비 4)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에게 법률상담·소송서류·무료변론 등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전주·군산·정읍·남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전주·군산·정읍·남원)
이주여성 고충 상담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분야 : 출입국, 취업, 보건·의료, 생활안내 등 - 참여기관 : 도, 시군,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청 지청, 도교육청, 의료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8) 다문화정책의 사회적 인식개선 도모

다문화사회와 가족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기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 홍보,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 세계인축제 한마당,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3〉 다문화정책의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현황

사업	사업내용
다문화정책의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이해교육(도 공무원 대상) • 지역주민에 대한 다문화 교육·홍보 • 민간단체의 일회성 행사지원 자체 •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노인정책과) •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27백만원(도비) • 제15회 세계인축제 한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15백만원(도비) • 2010년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백만원(국비)

〈표 2-24〉 2010년 전라북도 다문화정책 예산 현황

단 위 과 제	사 업 비(백만원)				추진기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7,471.5(100.0%)	4,208	1,387.5	1,876	
1 다문화가족 지원시스템 구축	1,309.5(17.5%)	711	214.5	384	
① 호남권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재지정	25	25			도, 악산거점센터
② 전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980	686	98	196	도, 시군, 센터
③ 지역센터 종사인력 보강	269		81	188	도, 시군, 센터
④ 전북 다문화가족지원 협의체 운영	9.5		9.5		도
⑤ 전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의회 운영	3		3		도
⑥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운영	3		3		도
⑦ 전북다문화정책 포럼 운영	20		20		도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 지도	2,682(35.9%)	1,771	338	573	
① 한국어교육 강사로 지원	140		70	70	도, 시군, 센터
② 한국어 교육교재 보급	18		18		도, 시군, 센터
③ 이중언어 교실 운영	15	15			도, 시군, 센터
④ 언어발달 지원	328	230	32	66	도, 시군, 센터
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350	245	35	70	도, 시군, 센터
⑥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1,803	1,262	180	361	도, 시군, 센터
⑦ 국제결혼 희망자 교육	28	19	3	6	도, 시군, 센터
3 시군 지역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54(0.7%)	0	54	0	
① 결혼이민자 출신국 현지조사	30		30		도
② 다문화 지도사 우수사례 발표	10		10		도
③ 다문화종사자 워크숍 개최	14		14		도
4 이주여성 경제·사회적 자립 지원	2,295(30.7%)	1,344	168	783	
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각 시·군)	615			615	시군
② 다문화가정 자활근로 추진	1,680	1,344	168	168	도(사회복지과)
5 이주여성 자녀 학교생활 적응 지원	409(5.5%)	0	409	0	
①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학습지원	409		409		도 교육청
6 건강검진 및 무료의료 서비스	164(2.2%)	63	49	52	
① 이주여성 무료건강검진	74		22	52	도(보건행정과)
② 외국인 무료진료 제공	90	63	27		도(보건행정과)
7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및 인권보호	476(6.4%)	279	113	84	
① 전북여성 긴급전화	192	192			여성부
② 지역센터 통역요원 활동	56		28	28	도
③ 보호시설(쉼터) 운영 및 기능보강	208	73	83	52	도, 시군, 쉼터
④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	20	14	2	4	도, 시군, 쉼터
8 다문화정책 사회적 인식개선	82(1.1%)	40	42	0	
①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27		27		도
② 제15회 세계인 축제 한마당	15		15		도
③ 2010년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대회	40	40			보건복지가족부

제 3 절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1. 취업지원 및 직업교육

1) 부산시: 여성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GROW”⁸⁾

부산에서는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자활능력강화를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GROW’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GROW”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및 매뉴얼을 제작하는 프로그램 개발단계와 전문교육, 역량강화, 사후교육을 통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단계로 구성된다.

사업성과는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교육훈련과 네트워킹으로 인한 상호 정보교환 및 조리 분야 전문성 강화를 통한 개인의 역량의 향상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한국 사회적응에 기여하였고, 둘째, 지역 내 여성결혼이민자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관련기관에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지역의 언론매체가 본 사업을 집중 취재, 보도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에 기여하였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한국어 구사능력에 따른 프로그램 수행능력의 편차,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배타적 사회인식으로 인한 신원보증의 요구나 무임금 수습기간의 요구 등이 있었으며, 학력수준차로 인한 교육생 취업준비가 조절이 어려웠다. 또한 본인 취업의지에 반한 가족의 반대 등이 지적되었다.

8) 부산인적자원개발센터(2007). 「여성결혼이민자 자활능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GROW”」.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프로그램 운영>

□ 전문교육프로그램(차수별 75시간)

단계	목표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교육시간
1	전문인으로서 직업능력개발	도전, 조리사	한식중심의 조리실습, Team-teaching을 통한 효율성 제고	66시간
2	명절 음식 통한 한국사회 적응	명절특강	전통 명절음식 만들기 통한 한국문화 이해와 고국과의 비교	9시간

□ 역량강화 프로그램(차수별 14시간)

단계	목표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1	나에 대한 이해와 자존감 향상	당당한 나 그리기	자신의 강점과 자화상 그리기
2	한국사회의 가족과 여성에 대한 이해	대한민국 아줌마 화이팅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과 여성으로서의 나
3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공동체 인식	대화의 기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4	부산여성취업페스티벌	자신만만 직업탐색	취업페스티벌 행사를 통한 직업세계탐험

□ 사후교육 프로그램

단계	목표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1	결혼이민여성 가족간의 화목도모	Love UP	가족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체험
2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직업세계 이해	도전해 보세요	수요조사에 근거한 직업선정, 직업교육 체험
3	김치담기를 통해 즐기는 한국문화체험	김장합시다	김장김치 담기 특강
4	취업활동의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하도록 도움	성공코치	여성의 자기경영 특강 및 취업상담

2) 경상북도: 「이여가새 행복 2010」

경상북도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원체제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그 동안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추진해 온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2010년까지 단계별로 체계화하는 대형 프로젝트 ‘이여가새 행복 2010’사업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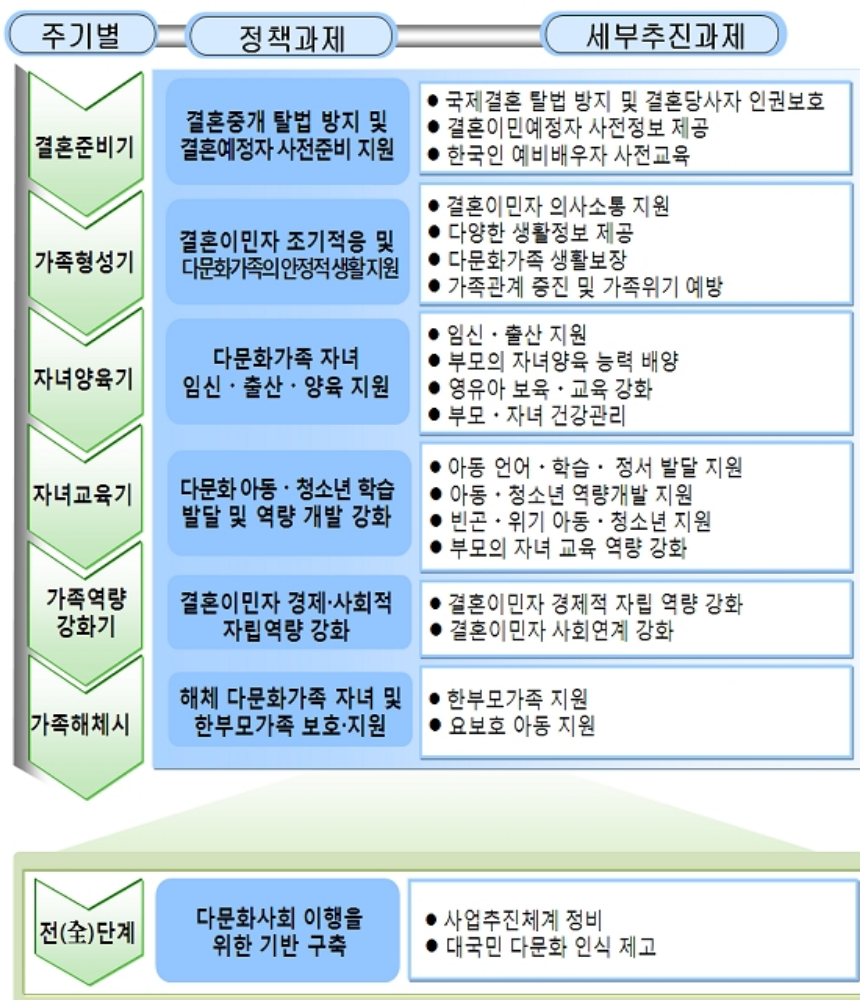
2008년에는 ‘이여가새 프로젝트’를 대폭 보강해 여성결혼이민자 종합지원대책 보고회를 갖고 새 경북 복지도정 뉴 모델인 ‘새 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또한 교육청, 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NGO 등과 협력해 ‘제도·기반정비’, ‘결혼 전 및 입국단계 지원’, ‘입국초기 조기적응 지원’, ‘정착기 생활지원’ 등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였다.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이주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은 이주여성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이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역섬유업체 등에 인턴사원으로 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 채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섬유업체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고 이주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기회 제공 및 정착의욕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방과 후·방문교사 양성과정은 외국어 교사와 외국인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써 이주여성의 경제활동능력을 배양하여 한국사회의 정착을 도모할 뿐 아니라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교수학습 지원센터의 한국어학당에서는 방문교사 교육을, 외국어학당에서는 방과 후 교사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후 즉시 현장교사로 활용 가능하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였다.

2. 자녀양육 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2008)는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유지,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육성, 국민의 다문화사회 이해증진을 목표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부 추진과제는 생애주기 순서로 진행되며,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강화기, 가족해체시, 전(全)단계로 구분된다.



〈그림 2-7〉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중, 아동들이 수혜대상이 되는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자녀양육기 단계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지원정책을 의미하며 세부추진과제는 임신출산지원과 부모의 자녀양육능력 배양, 영유아 보육교육 강화, 부모자녀 건강관리 등이 있다.

미취학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책은 부모의 자녀양육능력 배양을 위한 정책들과 영유아 보육교육 강화정책이다. 부모의 자녀양육능력 배양과 관련된 정책들은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보육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일정소득 이하의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자녀교육기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그 세부 추진과제는 아동 언어학습 및 정서발달 지원,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빈곤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부모자녀교육 역량강화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로 학령기 이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취학 전 영유아기 기본 언어·학습능력 지원정책 및 빈곤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정책, 부모의 자녀교육 능력강화 프로그램 활용 등은 영유아 및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다.

가족해체기 단계는 다문화가족이 해체되었을 경우 자녀 및 한부모가족을 보호 및 지원하는 정책으로 한부모가족지원, 요보호아동 지원이 있다. 이중 요보호아동 지원은 무연고방치아동을 보호하고, 무단출국자녀의 교육권 및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표 2-25〉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아동지원 정책)

구분		세부정책
자녀 양육기	임신출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 방문 지원 서비스 실시 •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 •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
	부모의 자녀 양육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효율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육아정보 나눔터 설치 • 부모-자녀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 실시 • 아버지 육아교육 실시
	영유아 보육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검토 •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사업 실시 • 보육시설에서의 다문화 프로그램 강화 • 아이돌보미사업 연계 강화
	부모자녀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건강검진사업 추진 •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실시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실시 • 자녀의 예방접종률 제고
자녀 교육기	아동 언어학습 및 정서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전 영유아 기본 언어·학습능력 지원 • 방과 후 인프라를 활용한 학습·성장 지원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역량개발 추진 •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 아동청소년 사회·문화 역량강화 지원 •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전문기관 육성
	빈곤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다문화 아동·청소년 상담지원 강화 • 위기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부모자녀교육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학교상담 시 통역요원 파견 • 부모의 자녀교육 능력 강화 프로그램 활용
가족 해체기	한부모가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이혼 후 실태 파악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한부모가족 수혜대상에 포함
	요보호아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연고·방치아동 보호 • 무단출국 자녀의 교육권·생활권 보장대책 검토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시·도별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가장 많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족 아동지원 사업은 보육료 지원, 다문화어린이집 시범운영 지원,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재원중인 시설에 도우미 지원, 한글교육 멘토, 출산육아용품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표 2-26〉 주요 시·도별 다문화가족 영유아자녀 보육지원 사업

구분	2008년 사업내용	2009년 사업계획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보육지원 : 0.76억원 서울의 글로벌화 전략 및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448호, 2008.8.14) 외국인 자녀 보육시설 지원계획 (보육담당관-5978, 2008.5.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보육지원 : 2.08억원 - 시비, 구비 50%, 274% 예산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다민족 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지원 · 2008년 시범운영으로 2개소 · 교재교구비 1회, 2,000천원, 학부모 · 소요예산 7,600천원(시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다민족 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지원 · 2009년 6개소로 확대 · 신규4곳 교재교구비 1회 2,000원 지원, 학부모교육비 월 300천원 × 12개월 · 소요예산 29,6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자녀 5인 이상 보육시설 도우미 지원 · 지정어린이집 2개소 포함한 13개소 · 도우미 인건비 매월 870천원 · 소요예산 75,460천원(시비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자녀 5인 이상 보육시설 도우미 지원 · 2009년 17개소로 확대 · 도우미 인건비 매월 870천원 × 12개월 · 소요예산 177,480천원(시비 100%)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학 전 다문화가정 자녀 한글교육 멘토 · 4,000천원(지방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언어치료 멘토 연계 · 5,000천원(지방비 100%)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년 사업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양육수당 지원 · 차상위 이하 시설 미이용 영아 · 1인당 월 100천원 · 대상-4인, 9개월 · 2,400천원(국비 60%, 지방비 40%)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육아용품 지원(춘천) · 1인당 10만원 상품권 · 42명, 4,200천원(시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육아용품 지원(춘천) · 1인당 10만원 상품권 · 예산 5,000천원(시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 취학 전 자녀양육비 지원(횡성군) · 1인당 월3만원 · 월 120명(연 1,410명) · 42,300천원(군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 취학 전 자녀양육비 지원(횡성군) · 1인당 월3만원 · 월 130명, 12개월 · 46,800천원(군비 100%)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가족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2008~2012) · 보육시설 이용하는 0~5세 아동 연 1,300명 ·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수납한도 범위 내에서 전액지원(보육시설에서 신청) · 2,496백만원(07년 792명, 1,99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가족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2008~2012) · 보육시설 이용하는 0~5세 아동, 연 1,300명 ·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수납한도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보육시설에서 신청) · 2,496백만원(도비 20%, 시군비 80%)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남군 결혼이민자 자녀보육료 지원(한시적) · 288명(1인당 28만원) · 85,100천원(국비 25%, 군비 75%) 	2009년 해당사업 없음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취학자녀 결연 대학생 활동비 지원 · 11개 시·군, 미취학 131명 · 60,000천원(각 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취학자녀 결연 대학생 활동비 지원 · 13개 시·군, 140명 · 65,000천원(도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용품 지원(포항시) · 한가정당 15만원 상당 · 90가정, 1,3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용품 지원(예천군, 포항시) · 한가정당 10만원, 15만원 · 예천군 5,000천원(군비 100%)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2009).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08~2012」

경기도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주로 중앙의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근거로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생애주기를 결혼준비기부터 가족역량강화기까지 총 5단계와 가족해체시, 전단계에서 실시하는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나, 경기도의 경우는 정착초기단계, 정착적응단계, 정착단계로 구분해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가족지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아동보육 지원책은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지원’으로 3인 이상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시설에 한해 월 60만원의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다문화교육,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학급 및 기초학력 책임지도, 방과후학교 다문화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역다문화교육 업무추진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은 <표 2-27>과 같다.

<표 2-27> 교육청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사업(경기도)

주요내용	소요예산
▪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운영	30백만원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도우미 강사운영	40백만원
▪ 다문화가정 방문상담 주간운영	200백만원
▪ 다문화가정 학생 정체성 확립 본국방문 프로그램 운영	102백만원
▪ 학부모 평생교육 ‘신바람 한글교실 운영’	125백만원
▪ 다문화교육센터 확대운영	300백만원
▪ 오색 다문화공동체 학교운영	264백만원
▪ 다문화 체험수기 공모전 실시	24백만원
▪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60백만원
▪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실시	144백만원
▪ 다문화교육 자료 및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55백만원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운영	100백만원

자료 :경기도(2009), 「경기도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보육지원 방안」, 재구성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실태 및 특성

- 제 1 절 일반현황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
- 제 2 절 취업실태와 근로조건
- 제 3 절 자녀양육 및 교육현황

제 3 장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및 자녀양육 실태 분석

제 1 절 일반현황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입국시기·목적과 출신국가

1) 입국시기

전북 결혼이민자들의 입국연도는 2005년 이후의 비율이 59.6%로 가장 높았으며, 2000~2004년이 23.5%이었다. 즉, 2000년 이후에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83.1%로 상당한 수준을 보였으며, 결혼이민자들의 입국시기가 전국 평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전북과 전국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

(단위 : %, 명)

구분	1990년 이전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년 이후	계(수)
전북	0.7	2.2	13.9	23.5	59.6	100.0 (5,049)
전국	1.1	3.3	14.6	27.0	54.1	100.0 (121,977)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입국시기를 살펴보면, 동 지역 거주자는 2005년 이후 63.8%, 읍·면 지역 거주는 2005년 이후 61.6%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2005년 이후 입국자는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24세 이하 여성결혼이민자의 98.0%가 2005년 이후 입국자였다. 전반적으로 35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2005년 이후 입국자가 가장 많았고, 35세 이상 연령층은 1995년 이후의 각 시기별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최근에 입국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의 81.2%, 중학교 학력자의 72.9%, 고등학교 학력자의 60.5%, 대학 이상 학력자의 41.6%가 2005년 이후 입국자였

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최근에 낮아지고 있음은 향후 한국의 인적자원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혼인상태별 입국시기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결혼이민자는 2005년 이후 입국한 비율이 63.1%로 가장 높았으며, 이혼 및 사별한 결혼이민자는 1995년 이후 각 시기별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2〉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입국시기

(단위 : %, 명)

구분		1990년 이전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년 이후	계(수)
지역	동	1.0	1.4	11.8	22.0	63.8	100.0 (2,337)
	읍면	0.4	2.6	13.7	21.7	61.6	100.0 (3,098)
연령	24세이하	0.1	0.0	0.6	1.2	98.0	100.0 (808)
	25~29세	0.0	0.1	0.4	11.4	88.1	100.0 (1,395)
	30~34세	0.0	0.3	3.2	34.1	62.4	100.0 (971)
	35~39세	0.4	2.4	27.0	35.0	25.2	100.0 (829)
	40~49세	1.4	6.2	32.4	27.1	32.9	100.0 (1,131)
	50세이상	5.3	6.3	23.3	30.3	34.7	100.0 (300)
학력	초등이하	0.2	0.6	3.6	14.4	81.2	100.0 (521)
	중학교	0.1	1.7	7.6	17.7	72.9	100.0 (1,569)
	고등학교	0.7	3.0	13.9	21.9	60.5	100.0 (2,210)
	대학이상	1.7	1.7	23.5	31.6	41.6	100.0 (1,082)
혼인 상태	배우자있음	0.7	2.0	12.6	21.7	63.1	100.0 (5,278)
	이혼	0.0	5.7	23.9	35.2	35.2	100.0 (88)
	사별	0.0	7.0	34.9	23.3	34.9	100.0 (43)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입국연도 분포를 살펴보면 일본 출신자는 1995~1999년 기간에 가장 많이 입국하였고, 중국 조선족, 태국, 북미·호주·서유럽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는 2000~2004년 기간에 가장 많이 입국하였으며, 중국 한족,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출신 이민자는 2005년 이후에 가장 많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캄보디아 출신의 98.3%, 베트남 출신의 89.7%, 중국 한족 등 출신의 79.5%, 몽골 출신의 74.1%, 필리핀 출신의 41.8% 등이었다. 중국 조선족, 일본, 북미·호주·서유럽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1995년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표 3-3〉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별 입국시기

(단위 : %, 명)

구분	1990년 이전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년 이후	계(수)
중국(조선족)	0.7	4.9	26.2	32.9	35.3	100.0 (1,193)
중국(한족 등)	0.2	0.8	4.9	14.6	79.5	100.0 (1,081)
베트남	0.0	0.0	0.8	9.5	89.7	100.0 (1,534)
필리핀	0.0	0.3	16.5	41.5	41.8	100.0 (740)
몽골	0.0	0.0	5.6	20.4	74.1	100.0 (54)
태국	0.0	0.0	4.3	57.1	38.6	100.0 (70)
캄보디아	0.4	0.4	0.0	0.8	98.3	100.0 (242)
일본	5.6	11.7	51.0	15.5	16.1	100.0 (341)
북미·호주·서유럽	0.0	0.0	24.2	66.7	9.1	100.0 (33)
기타	4.1	1.4	8.9	38.4	47.3	100.0 (146)

전북 14개 시·군의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를 살펴보면, 군산 72.8%, 임실 72.8%, 남원 68.8%, 익산 66.8%, 김제 64.6%, 완주 63.1%, 진안 62.0%가 2005년 이후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장수와 순창은 각각 52.8%, 54.1%가 2005년 이후 입국자로 나타나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최근 입국자의 비율이 다소 낮았다.

〈표 3-4〉 전북 14개 시·군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

(단위 : %, 명)

구분	1990년 이전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년 이후	계(수)
전주	0.9	2.0	14.5	21.7	60.9	100.0 (982)
군산	1.7	0.4	6.4	18.7	72.8	100.0 (518)
익산	0.1	1.3	11.2	20.6	66.8	100.0 (770)
정읍	1.0	1.9	16.1	23.2	57.8	100.0 (514)
남원	0.0	1.1	6.8	23.3	68.8	100.0 (279)
김제	0.5	1.7	9.2	24.1	64.6	100.0 (424)
완주	0.3	3.3	11.4	22.0	63.1	100.0 (369)
진안	0.5	2.3	17.6	17.6	62.0	100.0 (221)
무주	1.2	3.0	12.6	26.9	56.3	100.0 (167)
장수	0.0	2.8	19.1	25.3	52.8	100.0 (178)
임실	0.6	0.0	10.8	15.8	72.8	100.0 (158)
순창	0.9	7.3	15.5	22.3	54.1	100.0 (233)
고창	0.3	2.6	16.4	24.2	56.5	100.0 (347)
부안	0.0	3.0	19.3	21.9	55.8	100.0 (269)

2) 입국목적

전북 결혼이민자의 입국목적은 결혼, 취업, 친척방문, 사업 및 업무, 유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비율이 91.2%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국 평균 79.2%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비율이 2.9%, 친척방문차 입국하여 결혼한 비율은 1.6%, 사업 및 업무차 입국하게 된 비율이 1.5% 등이었다.

〈표 3-5〉 전북과 전국 결혼이민자의 입국목적

(단위 : %, 명)

구분	결혼	취업	친척방문	사업/업무	유학	기타	계(수)
전북	91.2	2.9	1.6	1.5	1.2	1.7	100.0 (5,330)
전국	79.2	7.3	4.0	3.5	2.1	3.9	100.0 (129,082)

전북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 입국목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비율이 동 지역은 87.4%, 읍·면 지역은 94.1%로 읍·면 지역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4세 이하 결혼이민자의 96.6%가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목적의 입국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혼이민자의 입국목적은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결혼목적의 입국 비율이 많았다. 즉,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는 각각 95.2%, 95.1%, 91.8%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학교 이상 학력소지자는 82.7%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는 유학목적의 입국 4.5%, 취업목적의 입국 4.7%로 다른 학력 계층에 비해 결혼입국 목적 이외의 입국목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입국목적은 살펴보면, 유배우, 이혼, 사별상태의 여성결혼이민자 모두에서 결혼목적 입국이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체류기간에 따른 입국목적은 살펴보면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결혼이민자의 입국목적은 95%로 가장 높았으며,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입국 목적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결혼목적

의 입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류기간이 긴 경우에도 결혼목적의 비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체류기간이 짧은 결혼이민자들에 비해 취업목적, 유학목적 등의 입국도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6〉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입국목적

(단위 : %, 명)

구분		결혼	취업	친척방문	사업/업무	유학	기타	계(수)
지역	동	87.4	4.7	1.4	2.2	2.3	2.0	100.0 (2,285)
	읍면	94.1	1.6	1.6	0.9	0.3	1.4	100.0 (3,045)
연령	24세이하	96.6	1.3	0.9	0.0	0.3	1.0	100.0 (799)
	25~29세	94.3	1.4	1.0	1.4	1.1	0.7	100.0 (1,359)
	30~34세	87.5	3.6	1.5	2.6	2.9	1.9	100.0 (953)
	35~39세	87.7	4.7	2.0	2.0	1.2	2.5	100.0 (811)
	40~49세	91.4	3.7	1.0	1.1	0.5	2.3	100.0 (1,109)
	50세이상	84.2	4.1	6.8	2.1	0.3	2.4	100.0 (292)
학력	초등이하	95.2	2.0	2.0	0.0	0.2	0.6	100.0 (502)
	중학교	95.1	2.5	1.2	0.6	0.0	0.6	100.0 (1,545)
	고등학교	91.8	2.4	1.5	1.9	0.6	1.8	100.0 (2,180)
	대학이상	82.7	4.7	2.1	2.5	4.5	3.5	100.0 (1,005)
혼인 상태	배우자있음	91.3	2.9	1.5	1.5	1.1	1.6	100.0 (5,185)
	이혼	92.7	2.4	2.4	0.0	2.4	0.0	100.0 (82)
	사별	92.9	0.0	0.0	0.0	0.0	7.1	100.0 (42)
체류 기간	1년 미만	95.0	0.6	2.5	0.2	0.0	1.7	100.0 (638)
	1~2년 미만	95.7	0.9	1.1	0.9	0.3	1.1	100.0 (791)
	2~5년 미만	92.2	2.0	1.7	1.7	1.1	1.3	100.0 (1,707)
	5~10년 미만	85.0	6.8	1.5	2.2	2.5	1.9	100.0 (1,100)
	10년 이상	88.3	4.4	1.0	2.2	1.3	2.7	100.0 (678)

결혼이민자의 입국목적은 국적별로 살펴보면, 결혼목적의 입국은 캄보디아가 9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베트남 97.5%, 필리핀 95.4%를 보였다. 반면, 북미·호주·서유럽 출신의 결혼목적 입국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몽골이 79.6%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목적 입국의 비율이 다소 낮았으며, 취업, 유학 등의 입국목적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7〉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별 입국목적

(단위 : %, 명)

구분	결혼	취업	친척방문	사업/사무	유학	기타	계(수)
중국(조선족)	87.8	4.5	3.0	1.7	1.4	1.6	100.0 (1,164)
중국(한족 등)	87.5	3.9	1.0	3.7	2.3	1.6	100.0 (1,064)
베트남	97.5	1.2	0.4	0.3	0.0	0.5	100.0 (1,508)
필리핀	95.4	1.0	2.1	0.0	0.0	1.5	100.0 (723)
몽골	79.6	5.6	5.6	0.0	7.4	1.9	100.0 (54)
태국	84.8	4.5	6.1	1.5	1.5	1.5	100.0 (66)
캄보디아	97.9	0.9	0.4	0.4	0.4	0.0	100.0 (235)
일본	91.4	0.3	0.0	0.6	2.9	4.7	100.0 (339)
북미·호주·서유럽	0.0	57.6	0.0	24.2	0.0	18.2	100.0 (33)
기타	76.6	7.6	5.5	1.4	3.4	5.5	100.0 (145)

결혼이민자의 입국목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주는 결혼목적 입국 비율이 84.9%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익산은 88.9%의 입국목적 비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 결혼목적 입국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군 지역에서는 무주 지역의 결혼목적 입국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무주는 결혼 목적 입국 이외에도 취업, 친척방문, 사업 및 업무, 유학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비율이 다른 군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8〉 전북 14개 시군 결혼이민자의 입국목적

(단위 : %, 명)

구분	결혼	취업	친척방문	사업/사무	유학	기타	계(수)
전주	84.9	5.2	1.6	3.0	3.3	2.0	100.0 (960)
군산	92.5	2.0	1.2	1.2	1.4	1.8	100.0 (507)
익산	88.9	4.0	2.1	2.1	1.7	1.2	100.0 (754)
정읍	91.1	3.9	1.6	1.2	0.4	1.8	100.0 (508)
남원	91.2	1.5	4.4	0.0	0.4	2.6	100.0 (272)
김제	95.7	1.2	1.0	0.7	0.0	1.4	100.0 (416)
완주	94.5	2.7	0.5	0.3	0.0	1.9	100.0 (366)
진안	94.9	1.4	0.0	0.9	0.0	2.8	100.0 (215)
무주	88.4	3.0	1.8	1.8	1.2	3.7	100.0 (164)
장수	95.9	1.2	0.6	2.3	0.0	0.0	100.0 (172)
임실	95.6	1.9	0.6	0.0	0.0	1.9	100.0 (158)
순창	95.7	1.7	1.7	0.0	0.0	0.9	100.0 (234)
고창	95.0	1.8	1.2	0.9	0.9	0.3	100.0 (339)
부안	91.6	1.9	2.3	1.9	1.1	1.1	100.0 (263)

2. 다문화가족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연령

전라북도 결혼이민자의 연령분포는 20대의 연령층이 4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 연령층 33.1%, 40대 연령층 20.8%, 50세 이상 5.5% 등이었다. 출신국 별로는 캄보디아가 20대 연령층의 비율이 8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81.1%로 높게 나타났다. 몽골, 태국, 중국(조선족), 필리핀은 30대 연령층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은 40대 연령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9〉 전라북도 출신국별 결혼이민자의 연령

(단위 : %, 명)

구분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세 이상	계(수)
중국(조선족)	1.0	10.4	17.0	22.6	34.6	14.4	100.0 (1,195)
중국(한족 등)	8.4	24.1	24.1	17.3	22.8	3.1	100.0 (1,081)
베트남	34.0	47.1	13.4	3.9	1.3	0.3	100.0 (1,533)
필리핀	7.3	17.2	22.5	25.9	23.3	3.8	100.0 (738)
몽골	5.5	32.7	36.4	16.4	9.1	0.0	100.0 (55)
태국	1.4	17.1	27.1	30.0	24.3	0.0	100.0 (70)
캄보디아	44.8	43.6	10.8	0.4	0.4	0.0	100.0 (241)
일본	0.0	0.6	5.6	16.4	65.2	12.3	100.0 (342)
북미·호주·서유럽	0.0	0.0	28.1	18.8	18.8	34.4	100.0 (32)
기타	12.3	16.4	28.1	19.9	17.8	5.5	100.0 (146)
전체	14.9	25.7	17.8	15.3	20.8	5.5	100.0 (5,433)

전라북도 결혼이민자의 연령별 배우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와 배우자간에 큰 연령 차이를 보였다. 24세 이하 결혼이민자의 60.9%가 40대 이상의 배우자와 살고 있었고, 25~29세 결혼이민자의 70.2%가 40대 이상의 배우자와 살고 있었다.

〈표 3-10〉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연령별 배우자의 연령분포

(단위 : %, 명)

결혼이민자 연령	배우자 연령						계(수)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세 이상	
24세 이하	1.0	0.3	7.2	30.7	58.2	2.7	100.0 (734)
25~29세	0.1	1.4	5.8	22.5	60.6	9.6	100.0 (1,315)
30~34세	0.3	0.3	6.9	15.2	65.6	11.7	100.0 (934)
35~39세	0.0	0.4	2.3	8.0	69.9	19.5	100.0 (800)
40~49세	0.0	0.0	0.0	2.6	47.2	50.2	100.0 (1,088)
50세 이상	0.0	0.0	0.0	1.1	4.0	94.9	100.0 (275)
전체	0.2	0.5	4.1	14.7	56.8	23.7	100.0 (5,146)

전라북도 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33.8세, 배우자의 평균연령은 45.2세로 11.4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캄보디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간의 연령차가 17.3세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17.0세, 필리핀 10.6세, 몽골 10.2세로 나타났다.

〈표 3-11〉 전북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평균 연령

(단위 : 세)

구분	결혼이민자(A)	배우자(B)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연령차이(B-A)
중국(조선족)	40.2	48.1	8.2
중국(한족 등)	34.2	44.3	10.0
베트남	26.7	43.6	17.0
필리핀	35.1	45.8	10.6
몽골	31.8	42.1	10.2
태국	35.1	44.5	9.3
캄보디아	25.6	42.9	17.3
일본	43.7	46.8	3.0
북미·호주·서유럽	44.8	41.0	-3.8
기타	34.4	44.2	10.7
전체	33.8	45.2	11.4

2)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교육수준

전라북도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가 4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중학교 29.2%, 대학 이상 20.1%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교육수준은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고학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신 국가는 북미·호주·서유럽 93.9%, 몽골 57.4%, 필리핀 53.1%, 일본 49.9% 등이었다.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출신국은 캄보디아로 69.8%가 중학교 이하 학력수준이었고,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61.2%가 중학교 이하 학력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 한족 등과 중국 조선족의 경우도 중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가 각각 40.3%, 40.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3-12〉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교육수준

(단위 : %, 명)

구분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계(수)
중국(조선족)	6.0	34.1	48.0	11.8	100.0 (1,192)
중국(한족 등)	3.5	36.8	43.8	15.9	100.0 (1,071)
베트남	19.9	41.3	35.3	3.5	100.0 (1,509)
필리핀	1.8	2.6	42.5	53.1	100.0 (734)
몽골	1.9	7.4	33.3	57.4	100.0 (54)
태국	24.3	18.6	32.9	24.3	100.0 (70)
캄보디아	31.0	38.8	23.3	6.9	100.0 (232)
일본	0.0	0.3	49.9	49.9	100.0 (341)
북미·호주·서유럽	6.1	0.0	0.0	93.9	100.0 (33)
기타	3.4	12.3	41.1	43.2	100.0 (146)
전체	9.7	29.2	41.1	20.1	100.0 (5,382)

결혼이민자와 배우자간의 부부간 교육수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 소지자 중 50.8%의 배우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중학교 학력소지자 결혼이민자의 62.2%의 배우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표 3-13〉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교육수준별 배우자의 교육수준 분포

(단위 : %, 명)

결혼이민자 교육수준	배우자 교육수준				계(수)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초등학교 이하	29.3	19.9	38.8	12.0	100.0 (443)
중학교	6.4	31.4	47.5	14.7	100.0 (1,401)
고등학교	7.0	14.6	60.5	17.9	100.0 (2,046)
대학이상	8.1	14.5	44.7	32.6	100.0 (1,033)
전체	9.1	19.8	51.5	19.5	100.0 (4,923)

3)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

전라북도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는 유배우 97.8%, 이혼 1.4%, 사별 0.8% 이며, 혼인상태가 이혼 및 사별인 비율은 체류기간의 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체류한 결혼이민자들 중 6.1%의 가족해체가 이루어 졌다.

〈표 3-14〉 전북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 혼인상태

(단위 : %, 명)

구분	유배우	이혼	사별	계(수)
1년 미만	98.9	0.2	0.9	100.0 (641)
1~2년 미만	99.4	0.6	0.0	100.0 (795)
2~5년 미만	98.9	0.7	0.4	100.0 (1,711)
5~10년 미만	96.6	2.4	1.1	100.0 (1,104)
10년 이상	93.9	3.8	2.3	100.0 (686)
전체	97.8	1.4	0.8	100.0 (4,937)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혼인상태는 미미하지만 북미·호주·서유럽의 6.1%, 필리핀의 4.7%, 중국 조선족의 4.1%가 가족 해체 상태에 있어 다른 국가의 결

혼이민자보다 가족해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몽골은 가족해체의 비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혼인상태

(단위 : %, 명)

구분	유배우	이혼	사별	계(수)
중국(조선족)	96.0	2.8	1.3	100.0 (1,188)
중국(한족 등)	98.2	1.8	0.0	100.0 (1,074)
베트남	98.8	0.8	0.4	100.0 (1,526)
필리핀	95.3	2.7	2.0	100.0 (737)
몽골	100.0	0.0	0.0	100.0 (54)
태국	98.6	0.0	1.4	100.0 (70)
캄보디아	99.6	0.4	0.0	100.0 (242)
일본	98.8	0.0	1.2	100.0 (341)
북미·호주·서유럽	93.9	0.0	6.1	100.0 (33)
기타	97.9	2.1	0.0	100.0 (144)
전체	97.6	1.6	0.8	100.0 (5,409)

3.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 및 한국 거주기간

1)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

전라북도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동 지역 43%, 읍·면지역 57%로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적인 상황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은 동 지역 72.1%, 읍·면 지역 27.9%로 주로 도시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전북의 경우 농촌지역이 많아 농촌총각과의 국제 결혼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16〉 전북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

(단위 : %, 명)

구분	전북		전국	
	수	비율	수	비율
동부	2,337	43.0	94,911	72.1
읍·면부	3,099	57.0	36,791	27.9
전체	5,436	100.0	131,702	100.0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북미·호주·서유럽 출신 이민자의 69.7%가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다음은 중국 한족 등 61.7%, 중국 조선족 51.8%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국 출신 결혼이민자는 82.9%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72.7%, 몽골 66.7%, 필리핀 65.9%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거주지역

(단위 : %, 명)

구분	동 지역	읍·면지역	계(수)
중국(조선족)	51.8	48.2	100.0 (1,194)
중국(한족 등)	61.7	38.3	100.0 (1,081)
베트남	32.6	67.4	100.0 (1,534)
필리핀	34.1	65.9	100.0 (740)
몽골	33.3	66.7	100.0 (54)
태국	17.1	82.9	100.0 (70)
캄보디아	27.3	72.7	100.0 (242)
일본	30.7	69.3	100.0 (342)
북미·호주·서유럽	69.7	30.3	100.0 (33)
기타	53.1	46.9	100.0 (147)
전체	2,339	3,098	100.0 (5,437)

2)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

전라북도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은 2~5년 미만이 3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10년 미만이 22.3%로 나타났다. 전국과 비교해 보면 1년 미만의 비율 13.0%로 전국 9.6%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전북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이 짧다고 할 수 있다.

〈표 3-18〉 전북과 전국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

(단위 : %, 명)

구분	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수)
전북	13.0	16.1	34.8	22.3	13.9	100.0 (4,955)
전국	9.6	13.7	35.7	25.4	15.6	100.0 (119,979)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한국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2년 미만의 비율은 동 지역이 30.4% 읍·면 지역은 28%로 동 지역이 약간 높으며, 5년 이상 거주 비율은 읍·면 지역 38%로 동 지역 33.8%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과거에는 농촌지역 총각들과의 혼인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농촌 총각의 도시지역으로의 이동과 함께 도시 지역 남성들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한 추세를 반영한 결과를 할 수 있겠다.

결혼이민자의 연령별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20대 연령층의 경우 2년 미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중반 이후의 연령층에서는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연령과 거주기간은 비례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교육수준에 따른 거주기간은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과 한국 거주기간이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국 거주기간이 길었는데, 이는 한국에 입국한지 오래된 이주민, 즉 과거 결혼이민자가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의하며, 반대로 최근 결혼이민자는 과거 결혼이민자보다 교육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혼 및 사별인 결혼이민자가 거주기간이 길었다. 반대로 유배우 상태의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은 다른 혼인 상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거주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애주기의 각 단계에서 이혼과 사별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표 3-19〉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한국 거주기간

(단위 : %, 명)

구분		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수)
지역	동	13.9	16.5	35.7	21.6	12.2	100.0 (2,122)
	읍면	12.3	15.7	34.0	22.8	15.2	100.0 (2,835)
연령	24세이하	33.5	33.8	32.5	0.3	0.0	100.0 (711)
	25~29세	15.0	22.3	53.8	8.7	0.1	100.0 (1,250)
	30~34세	12.3	13.5	38.3	34.3	1.6	100.0 (887)
	35~39세	6.7	9.3	21.1	37.6	25.2	100.0 (781)
	40~49세	5.2	7.1	20.9	30.4	36.5	100.0 (1,045)
	50세이상	1.8	3.5	33.3	27.7	33.7	100.0 (282)
학력	초등이하	16.6	17.9	49.4	12.3	3.8	100.0 (470)
	중학교	15.6	20.5	38.3	16.9	8.7	100.0 (1,409)
	고등학교	12.1	15.3	34.7	21.2	16.7	100.0 (2,204)
	대학이상	9.4	10.5	23.0	36.5	20.5	100.0 (1,018)
혼인 상태	배우자있음	13.1	16.4	35.1	22.1	13.3	100.0 (4,827)
	이혼	1.4	7.1	17.1	37.1	37.1	100.0 (70)
	사별	15.0	0.0	15.0	30.0	40.0	100.0 (40)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한국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거주자한 결혼이민자는 일본이 62.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조선족이 30.2%로 나타났다. 반대로 북미·호주·서유럽을 제외한 1년 미만 거주기간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일본이 1.5%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조선족 2.7%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는 주로 일본과 중국 조선족과의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일본, 중국 조선족과의 국제결혼이 매우 줄었고 상대적으로 중국 한족 등, 베트남, 캄보디아의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표 3-20〉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한국 거주기간

(단위 : %, 명)

구분	1년 미만	1~2년미만	2~5년미만	5~10년미만	10년 이상	계(수)
중국(조선족)	2.7	5.5	28.8	32.7	30.2	100.0 (1,124)
중국(한족 등)	25.3	24.1	33.6	12.7	4.4	100.0 (980)
베트남	17.8	21.3	53.1	7.4	0.4	100.0 (1,359)
필리핀	10.5	8.6	22.8	47.4	10.7	100.0 (675)
몽골	10.4	16.7	43.8	27.1	2.1	100.0 (48)
태국	9.0	6.0	23.9	56.7	4.5	100.0 (67)
캄보디아	11.3	51.7	36.5	0.0	0.5	100.0 (203)
일본	1.5	3.6	11.8	20.2	62.8	100.0 (331)
북미·호주·서유럽	0.0	0.0	27.3	57.6	15.2	100.0 (33)
기타	10.9	15.9	24.6	40.6	8.0	100.0 (138)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들이 10년 이상 거주한 지역은 장수가 2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순창 21.1%, 부안 19.8%를 나타냈다. 반면, 남원은 6.9%로 10년 이상 거주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군산 7.8%, 임실 9.6%로 나타났다. 1년 미만의 거주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제결혼의 추세가 과서 농촌 남성과의 결혼에서 도시 남성과의 결혼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인근 도시지역으로 인구이동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표 3-21〉 전북 14개 시·군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

(단위 : %, 명)

구분	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이상	10년 이상	계(수)
전주	11.2	16.7	34.2	22.8	15.0	100.0 (898)
군산	17.8	19.8	38.5	16.0	7.8	100.0 (449)
익산	17.1	17.1	35.7	19.2	10.9	100.0 (689)
정읍	10.6	11.6	36.3	24.8	16.7	100.0 (491)
남원	17.6	20.4	30.6	24.5	6.9	100.0 (245)
김제	13.0	13.8	38.2	24.7	10.3	100.0 (377)
완주	10.2	20.9	32.8	23.7	12.4	100.0 (354)
진안	7.8	12.7	41.7	21.1	16.7	100.0 (204)
무주	8.6	11.8	41.4	24.3	13.8	100.0 (152)
장수	8.9	17.2	22.9	27.4	23.6	100.0 (157)
임실	8.9	22.3	43.3	15.9	9.6	100.0 (157)
순창	12.6	14.8	28.7	22.9	21.1	100.0 (223)
고창	10.3	13.8	32.0	24.3	19.1	100.0 (319)
부안	19.3	9.9	26.7	24.3	19.8	100.0 (243)

4. 한국어 능력

1) 전북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전북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전국과 비교해 살펴보면, 한국어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말하기 능력의 경우 ‘(매우)잘한다’의 비율이 29.2%로 전국 평균인 37.3%와 비교해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은 각각 31.6%, 26.5%로 전국 평균인 38%, 33%와 비교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3-22〉 전북과 전국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단위 : %, 명)

구분	말하기 능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매우 잘한다	12.7	17.4	13.0	17.5	11.9	16.1
잘한다	16.5	19.9	18.6	20.5	14.6	16.9
보통이다	43.7	38.7	42.5	37.8	39.6	35.4
서툰편이다	19.5	17.8	18.4	17.0	23.9	21.5
매우 서툴다	7.6	6.3	7.5	7.2	10.1	10.1
계(수)	100.0 (5,296)	100.0 (128,823)	100.0 (4,884)	100.0 (119,647)	100.0 (4,871)	100.0 (119,503)

전북 결혼이민자들의 특성별 한국어 능력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모두 농촌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지역은 한국어 말하기 능력의 경우 ‘(매우)잘한다’의 비율이 32.1%이며, 읍면지역은 26.9%로 지역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 능력도 높아지고 있었으며, 연령이 체류기간과 비례하는 관계에 있어 체

류기간에 따른 한국어 능력도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어 능력이 높아지고 있다. 연령과 체류기간은 한국어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로 파악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한국어 능력 역시 전반적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말하기 능력의 경우 초등학교 학력의 결혼이민자는 ‘(매우)잘한다’의 비율이 20.2%인데 비해 대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결혼이민자는 32.8%로 그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어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 모두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은 초등학교 이하의 경우 각각 ‘(매우)잘한다’의 비율이 18.8%, 15.6%이며, 대학이상 학력을 지닌 결혼이민자의 읽기능력은 ‘(매우)잘한다’의 비율이 36.6%, 쓰기 능력은 28.1%로 교육수준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23〉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한국어 말하기능력

(단위 : %, 명)

구분	한국어 말하기 능력					계(수)	평균	
	매우 잘한다	잘한다	보통이다	서툰 편이다	매우 서툴다			
지역	동	14.7	17.4	42.4	18.4	7.1	100.0 (2,267)	2.86
	읍면	11.2	15.7	44.7	20.3	8.1	100.0 (3,029)	2.98
연령	24세이하	2.4	9.8	47.3	29.2	11.2	100.0 (792)	3.37
	25~29세	5.5	13.7	48.6	24.3	7.8	100.0 (1,356)	3.15
	30~34세	12.6	14.8	43.3	20.6	8.7	100.0 (946)	2.98
	35~39세	18.1	21.3	41.8	13.9	4.8	100.0 (811)	2.66
	40~49세	19.8	20.6	40.4	12.5	6.7	100.0 (1,100)	2.66
	50세이상	32.2	23.3	30.8	8.6	5.1	100.0 (292)	2.31
학력	초등이하	8.7	11.5	32.5	33.3	13.9	100.0 (495)	3.33
	중학교	12.5	15.6	38.5	22.7	10.6	100.0 (1,523)	3.03
	고등학교	14.4	16.1	46.0	17.4	6.2	100.0 (2,161)	2.85
	대학이상	11.7	21.1	51.3	12.5	3.5	100.0 (1,067)	2.75
체류기간	1년미만	0.8	3.7	27.2	38.9	29.5	100.0 (628)	3.93
	1~2년	3.4	7.9	45.5	32.8	10.5	100.0 (775)	3.39
	2~5년	11.3	15.7	48.9	19.2	4.9	100.0 (1,683)	2.91
	5~10년	18.8	25.1	46.9	8.3	0.9	100.0 (1,087)	2.47
	10년이상	32.1	28.2	34.8	4.3	0.7	100.0 (682)	2.13

〈표 3-24〉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읽기 능력

(단위 : %, 명)

구분		한국어 읽기 능력					계(수)	평균
		매우 잘한다	잘한다	보통 이다	서툰 편이다	매우 서툴다		
지역	동	14.6	19.1	41.4	17.2	7.7	100.0 (2,096)	2.84
	읍면	11.8	18.3	43.3	19.3	7.4	100.0 (2,789)	2.92
연령	24세이하	3.0	12.8	49.0	24.8	10.4	100.0 (734)	3.27
	25~29세	6.4	16.2	48.2	20.7	8.6	100.0 (1,248)	3.09
	30~34세	13.8	17.0	41.2	19.9	8.1	100.0 (878)	2.92
	35~39세	17.9	24.6	38.2	14.4	4.9	100.0 (756)	2.64
	40~49세	19.6	21.9	38.0	13.8	6.6	100.0 (1,012)	2.66
	50세이상	31.1	22.6	30.4	12.8	3.1	100.0 (257)	2.35
학력	초등이하	7.3	11.5	32.9	32.0	16.3	100.0 (453)	3.39
	중학교	12.7	17.5	39.6	19.5	10.6	100.0 (1,367)	3.00
	고등학교	14.8	18.4	43.7	17.7	5.4	100.0 (2,022)	2.80
	대학이상	12.7	23.9	47.9	12.0	3.6	100.0 (1,003)	2.70
체류 기간	1년미만	1.4	6.7	33.0	32.8	26.1	100.0 (582)	3.76
	1~2년	4.3	10.6	46.1	28.7	10.3	100.0 (718)	3.30
	2~5년	11.4	18.8	47.3	17.4	5.0	100.0 (1,546)	2.86
	5~10년	18.7	25.7	41.6	11.8	2.2	100.0 (1,023)	2.53
	10년이상	29.8	28.7	34.3	5.9	1.2	100.0 (644)	2.20

〈표 3-25〉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쓰기 능력

(단위 : %, 명)

구분		한국어 쓰기 능력					계(수)	평균
		매우 잘한다	잘한다	보통 이다	서툰 편이다	매우 서툴다		
지역	동	14.1	15.0	38.7	22.0	10.2	100.0 (2,086)	2.99
	읍면	10.2	14.2	40.2	25.3	10.0	100.0 (2,784)	3.11
연령	24세이하	2.6	10.1	43.2	31.7	12.5	100.0 (736)	3.41
	25~29세	5.6	11.8	43.6	27.9	11.2	100.0 (1,241)	3.27
	30~34세	12.7	12.5	40.9	24.0	9.9	100.0 (872)	3.06
	35~39세	16.9	19.0	36.6	18.8	8.7	100.0 (757)	2.83
	40~49세	17.9	17.8	35.2	20.2	8.9	100.0 (1,011)	2.84
	50세이상	28.4	22.2	30.7	11.7	7.0	100.0 (257)	2.47
학력	초등이하	5.8	9.8	30.6	32.6	21.3	100.0 (451)	3.54
	중학교	11.7	14.8	35.5	25.0	12.9	100.0 (1,363)	3.13
	고등학교	13.8	14.3	40.8	23.3	7.8	100.0 (2,019)	2.97
	대학이상	11.4	16.7	46.2	19.7	6.0	100.0 (1,003)	2.92
체류 기간	1년미만	1.6	7.4	32.6	31.4	27.1	100.0 (580)	3.75
	1~2년	3.5	9.5	42.8	31.2	13.0	100.0 (717)	3.41
	2~5년	10.1	13.6	43.2	24.7	8.4	100.0 (1,541)	3.08
	5~10년	17.6	18.7	41.4	18.4	3.8	100.0 (1,019)	2.72
	10년이상	27.8	23.1	30.5	15.7	2.9	100.0 (645)	2.43

제 2 절 취업실태와 근로조건

1. 가구소득 및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1) 가구소득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전북의 경우 100~200만원 미만이 3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100만원 미만이 20.9%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의 비율도 27.9%로 전국과 비교해 전북의 다문화 가족은 저소득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고소득층인 500만원 이상은 1.1%에 불과해 전국 평균 2.1%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비율 역시 낮게 나타났다.

〈표 3-26〉 시·도별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모르겠다	계
전북	7.0	20.9	37.3	12.1	3.1	0.7	0.5	0.3	0.3	17.8	100.0 (5,183)
전국	5.1	16.2	38.4	18.7	5.7	1.8	0.9	0.5	0.7	12.0	100.0 (126,316)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가구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읍·면 지역이 동 지역에 비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인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비율이 낮아졌고, 고소득층의 비율이 높아졌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결혼이민자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결혼이민자에 비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결혼 이민자가 26.8%로 가장 적었으며, 사별한 결혼이민자가 79.5%로 가장 많았다. 체류기간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의 결혼이민자는 20.2%로 가장 낮은 반면,

10년 이상의 결혼이민자는 27.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체류기간일 길어질수록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7〉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가구소득

(단위 : %,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모르겠다	계
지역	동	6.0	19.2	40.9	14.6	5.0	1.0	0.7	0.3	0.3	12.0	100.0 (2,254)
	읍면	7.7	22.2	34.5	10.2	1.7	0.4	0.4	0.3	0.3	22.3	100.0 (2,927)
연령	24세이하	5.0	18.1	38.0	10.8	1.4	0.3	0.3	0.3	0.0	25.9	100.0 (761)
	25~29세	7.3	17.7	37.7	11.1	3.3	0.4	0.4	0.3	0.5	21.4	100.0 (1,313)
	30~34세	5.8	21.2	37.3	12.6	2.8	0.9	0.4	0.7	0.3	17.9	100.0 (914)
	35~39세	7.4	20.2	39.6	11.7	4.5	0.6	0.5	0.4	0.7	14.4	100.0 (801)
	40~49세	6.0	24.8	37.7	14.8	3.1	1.1	0.6	0.1	0.1	11.7	100.0 (1,102)
	50세이상	16.3	28.5	26.0	9.7	3.8	0.7	1.4	0.0	0.7	12.8	100.0 (288)
학력	초등이하	10.1	21.2	36.0	5.9	1.4	1.0	0.0	0.2	0.0	24.2	100.0 (495)
	중학교	5.9	23.1	39.2	11.5	1.5	0.2	0.4	0.1	0.3	17.7	100.0 (1,510)
	고등학교	7.1	20.3	37.8	13.3	3.1	0.5	0.4	0.0	0.2	17.3	100.0 (2,102)
	대학이상	6.6	18.3	34.0	13.8	6.3	1.5	1.4	1.2	0.9	16.1	100.0 (1,036)
혼인 상태	유배우	6.4	20.4	37.9	12.3	3.2	0.7	0.5	0.3	0.3	18.0	100.0 (5,048)
	이혼	24.4	41.5	18.3	3.7	0.0	0.0	0.0	0.0	0.0	12.2	100.0 (82)
	사별	41.0	38.5	12.8	2.6	0.0	0.0	0.0	0.0	0.0	5.1	100.0 (39)
체류 기간	1년미만	3.4	16.8	33.0	9.5	3.8	0.8	0.2	0.2	0.5	31.9	100.0 (612)
	1~2년	7.1	16.2	41.4	11.2	3.2	0.0	0.1	0.3	0.1	20.3	100.0 (758)
	2~5년	7.7	22.0	37.8	11.5	2.8	0.5	0.3	0.2	0.2	16.9	100.0 (1,660)
	5~10년	7.3	23.2	37.4	12.9	3.4	0.7	0.7	0.7	0.6	13.3	100.0 (1,070)
	10년이상	6.8	21.0	37.3	12.5	3.2	0.6	0.5	0.3	0.3	17.5	100.0 (670)

출신국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비율은 필리핀이 3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태국 29%, 베트남 28.5% 등 전반적으로 동남아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저소득층 비율이 많았다.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비율은 북미·호주·서유럽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출신국에서 4%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3-28〉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미만	100~200미만	20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600미만	600~700미만	700만원 이상	모르겠다	전체
중국 (조선족)	7.1	21.2	42.6	16.5	3.1	1.0	0.3	0.3	0.0	8.0	100.0 (1,172)
중국 (한족 등)	5.4	17.7	39.2	16.1	5.4	0.8	0.6	0.2	0.6	14.2	100.0 (1,057)
베트남	7.7	20.8	36.0	9.0	1.5	0.4	0.4	0.1	0.3	23.8	100.0 (1,443)
필리핀	8.9	26.8	27.5	3.5	2.3	0.9	0.2	0.9	0.8	28.3	100.0 (654)
몽골	7.7	11.5	36.5	17.3	1.9	0.0	0.0	1.9	1.9	21.2	100.0 (52)
태국	11.6	17.4	23.2	14.5	1.4	0.0	0.0	0.0	0.0	31.9	100.0 (69)
캄보디아	6.6	21.5	42.1	6.6	0.9	0.0	0.0	0.0	0.4	21.9	100.0 (228)
일본	4.8	22.2	37.7	17.7	2.7	0.6	0.6	0.3	0.0	13.5	100.0 (334)
북미·호주·서유럽	14.7	0.0	8.8	23.5	23.5	0.0	17.6	5.9	0.0	5.9	100.0 (34)
기타	3.5	21.1	44.4	7.0	7.0	0.0	1.4	0.0	0.0	15.5	100.0 (142)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월평균 결혼이민자 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비율은 진안이 42.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순창 37.3%, 무주 37.1%, 장수 36.4% 순으로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비율은 모든 시·군에서 2% 미만의 비율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9〉 전북 14개 시·군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 100미만	100~ 200미만	200~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 700미만	700 만원 이상	모르 겠다	전체
전주	6.2	15.3	43.4	16.0	5.1	1.6	0.9	0.1	0.3	11.1	100.0 (956)
군산	5.7	18.0	37.0	14.2	7.1	0.8	0.6	0.6	0.6	15.4	100.0 (494)
익산	5.2	19.3	39.4	13.7	4.6	0.3	0.8	0.4	0.3	16.1	100.0 (716)
정읍	5.8	24.1	37.0	8.7	1.6	0.2	0.2	0.0	0.0	22.5	100.0 (503)
남원	8.2	25.0	34.4	8.6	1.6	0.0	0.0	0.4	0.8	21.1	100.0 (256)
김제	6.7	23.2	43.9	10.7	1.2	0.2	0.2	0.5	0.2	13.0	100.0 (401)
완주	6.5	16.0	46.1	11.0	0.6	0.3	0.0	0.3	0.0	19.4	100.0 (356)
진안	11.4	30.8	21.9	8.0	0.5	0.0	0.0	0.0	0.5	26.9	100.0 (201)
무주	13.6	23.5	30.2	13.6	2.5	0.0	0.0	0.6	0.0	16.0	100.0 (162)
장수	11.0	25.4	27.7	6.9	0.6	0.6	2.3	0.0	0.6	24.9	100.0 (173)
임실	5.8	26.9	35.9	9.0	0.0	0.6	0.0	1.9	0.0	19.9	100.0 (156)
순창	7.3	30.0	23.2	11.8	2.3	0.0	1.4	0.0	0.5	23.6	100.0 (220)
고창	10.3	17.6	30.7	11.6	2.1	0.6	0.0	0.0	0.6	26.4	100.0 (329)
부안	5.8	24.7	35.9	12.0	2.3	1.5	0.0	0.0	0.0	17.8	100.0 (259)

2)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및 삶에 대한 만족도

(1) 모국(母國)가족과 다른 모국(母國)가족과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비교

자신의 모국가족을 다른 모국가족과 경제생활 수준을 비교한 주관적 견해를 살펴보면, 전북의 경우 본인의 모국가족이 하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17.7%로 전국 17%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상층이라고 판단하는 비율은 5%로 전국 평균 6.8%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3-30〉 전북과 전국 결혼이민자의 모국가족과 다른 모국가족과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비교

(단위 : %)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계
전북	6.4	4.7	6.6	9.7	13.8	44.6	5.2	4.2	3.1	0.8	1.1	100.0 (5,988)
전국	6.7	4.2	6.1	8.9	11.1	44.8	5.9	5.5	4.2	1.1	1.5	100.0 (127,459)

주 : 0~2점을 하층, 3~7점을 중간층, 8~10점을 상층으로 구분하여 논의함.

(2) 다른 한국가족과 비교한 다문화가족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자신의 가족을 다른 한국가족과 경제생활 수준을 비교한 주관적 견해를 살펴보면 본인 가족이 하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19.9%로 전국 평균 25%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3-31〉 시·도별 다문화가족의 다른 한국가족과 비교한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단위 : %, 명)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계
전북	7.2	4.9	7.8	13.0	17.0	42.2	3.7	2.2	1.3	0.2	0.5	100.0 (5,276)
전국	9.7	5.8	9.5	14.0	14.9	38.1	3.6	2.2	1.2	0.3	0.5	100.0 (127,971)

주 : 0~2점을 하층, 3~7점을 중간층, 8~10점을 상층으로 구분하여 논의함.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다른 한국가족과 비교한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에 대해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 지역의 경우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2.9%로 읍면지역의 17.7%보다 높게 나타나 농촌지역 결혼이민자가 도시지역 결혼이민자 보다 상대적으로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연령별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에 대해 본인가족이 하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연령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4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12.2%만이 하층이라고 응답하였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하층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져 50세 이상 연령층은 36.4%로 나타났다.

자신의 가족을 다른 한국가족과 경제생활 측면에서 수준을 비교한 주관적 견해를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비교해 보면, 본인 가족이 하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교육수준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의 22.7%가 하층이라고 응답한 반면,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하층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낮아져 대학 이상 학력자는 17.2%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 살펴보면, 본인 가족이 하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비율은 해체가족이냐의 여부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즉, 유배우 상태의 경우 19.2%가 하층이라고 응답한 반면, 이혼자와 사별자는 각각 61.5%, 35.7%가 하층이라고 응답하였다.

체류기간에 따라 자신의 가족을 다른 한국가족과 경제생활 수준을 비교한 주관적 견해를 살펴보면, 본인 가족이 하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체류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류기간 1년 미만인 결혼이민자의 15.7%가 하층이라고 응답한 반면, 체류기간이 10년 이상된 결혼이민자는 25%로 응답하여 그 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표 3-32〉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다른 한국가족과 비교한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단위 : %, 명)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계 (수)
지역	동	7.6	7.3	8.0	13.6	15.0	41.0	3.2	1.9	1.5	0.1	0.8	100.0 (2,274)
	읍면	6.9	3.2	7.6	12.5	18.5	43.1	4.0	2.4	1.1	0.3	0.3	100.0 (3,000)
연령	24세이하	4.4	2.2	5.6	11.0	20.2	45.7	5.5	3.4	0.8	0.5	0.7	100.0 (766)
	25~29세	5.9	3.6	6.8	9.7	21.6	44.8	3.3	1.9	1.5	0.1	0.6	100.0 (1,347)
	30~34세	4.6	4.2	7.8	14.6	16.8	45.5	2.9	1.7	1.6	0.0	0.4	100.0 (939)
	35~39세	6.8	6.6	9.7	14.8	13.2	40.7	3.8	3.1	0.9	0.1	0.4	100.0 (813)
	40~49세	10.5	6.5	8.7	15.2	14.3	38.3	3.4	1.4	1.2	0.0	0.5	100.0 (1,115)
	50세이상	17.5	9.6	9.3	15.5	14.3	38.3	3.4	1.4	1.2	0.0	0.5	100.0 (291)
학력	초등이하	9.1	6.4	7.2	13.0	17.9	39.4	3.1	1.6	1.0	0.8	0.4	100.0 (485)
	중학교	8.4	5.3	8.4	12.1	19.7	39.3	3.1	1.9	1.0	0.3	0.6	100.0 (1,530)
	고등학교	7.0	4.5	7.7	13.5	16.8	43.7	3.2	2.0	0.9	0.1	0.5	100.0 (2,154)
	대학이상	5.1	4.7	7.4	13.2	13.1	44.9	5.1	3.1	2.5	0.3	0.6	100.0 (1,065)
혼인 상태	유배우	6.8	4.7	7.7	13.0	17.1	42.8	3.7	2.2	1.3	0.2	0.5	100.0 (5,140)
	이혼	31.3	15.7	14.5	12.0	7.2	13.3	2.4	3.6	0.0	0.0	0.0	100.0 (83)
	사별	19.0	14.3	2.4	11.9	23.8	23.8	2.4	0.0	0.0	2.4	0.0	100.0 (42)
체류 기간	1년미만	8.8	2.6	4.3	8.3	19.3	48.2	4.2	2.2	1.4	0.0	0.6	100.0 (623)
	1~2년	6.7	4.6	5.5	13.2	18.7	43.5	3.6	1.9	2.1	0.0	0.3	100.0 (780)
	2~5년	7.3	4.6	7.7	13.1	18.8	40.5	3.3	2.3	1.1	0.6	0.7	100.0 (1,678)
	5~10년	6.0	5.4	9.0	13.5	13.8	45.8	3.2	2.3	0.7	0.0	0.3	100.0 (1,091)
	10년이상	7.1	5.7	12.2	16.2	15.0	34.0	5.7	2.2	1.3	0.4	0.1	100.0 (680)

주 : 0~2점을 하층, 3~7점을 중간층, 8~10점을 상층으로 구분하여 논의함.

자신의 가족을 다른 한국가족과 경제생활 측면에서 수준을 비교한 주관적 견해를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비교해 보면, 본인가족이 하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비율은 중국 조선족이 2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 한족 등

23.5%, 베트남 22%, 몽골 16.8로 나타났다. 반면에 북미·호주·서유럽 출신의 경우는 본인 가족이 하층이라고 생각한 비율이 전혀 없었으며, 나머지 출신국들의 경우는 대체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33〉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다른 한국가족과 비교한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단위 : %, 명)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중국 (조선족)	10.0	6.0	10.3	15.9	13.0	37.9	2.9	2.3	0.7	0.4	0.7	100.0 (1,179)
중국 (한족 등)	9.0	6.8	7.7	12.3	11.5	46.3	2.7	1.4	1.2	0.0	1.0	100.0 (1,051)
베트남	7.5	3.0	6.7	11.7	29.3	34.4	4.1	2.0	0.9	0.3	0.1	100.0 (1,456)
필리핀	4.6	5.1	5.7	9.7	9.2	57.6	4.5	1.8	1.7	0.1	0.0	100.0 (719)
몽골	9.3	1.9	5.6	7.4	16.7	46.3	9.3	1.9	0.0	0.0	1.9	100.0 (54)
태국	9.1	0.0	7.6	13.6	18.2	47.0	1.5	1.5	1.5	0.0	0.0	100.0 (66)
캄보디아	2.2	5.7	5.2	7.0	8.7	60.7	3.5	3.1	2.2	0.4	1.3	100.0 (229)
일본	2.4	4.4	10.0	20.9	18.6	32.2	4.4	4.1	2.7	0.3	0.0	100.0 (339)
북미·호주 ·서유럽	0.0	0.0	0.0	5.9	8.8	55.9	14.7	8.8	5.9	0.0	0.0	100.0 (34)
기타	1.4	5.6	11.9	18.2	16.1	38.5	3.5	2.1	1.4	0.0	1.4	100.0 (143)

주 : 0~2점을 하층, 3~7점을 중간층, 8~10점을 상층으로 구분하여 논의함.

자신의 가족을 다른 한국가족과 경제생활 측면에서 수준을 비교한 주관적 견해를 결혼이민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별로 비교해 보면, 본인 가족이 하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진안이 2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정읍 24.4%, 익산 22.3%, 전주 22.2%,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임실은 본인 가족이 하층이라고 판단하고 비율이 1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은 고창이 14.7%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3-34〉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다른 한국가족과 비교한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단위 : %, 명)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주	7.4	6.7	8.1	12.5	15.3	42.5	2.6	2.1	1.8	0.1	1.0	100.0 (962)
군산	5.5	9.3	4.9	14.2	15.8	42.4	4.9	0.8	1.4	0.0	0.8	100.0 (507)
익산	9.5	4.9	7.9	14.3	18.3	39.0	3.3	1.5	0.7	0.1	0.4	100.0 (733)
정읍	6.5	6.3	11.6	12.8	18.3	38.3	2.8	2.2	1.2	0.2	0.0	100.0 (509)
남원	7.9	3.7	7.5	15.7	10.5	47.6	2.6	0.4	2.6	0.4	1.1	100.0 (267)
김제	6.8	4.1	5.4	11.0	16.3	42.4	7.8	3.4	1.0	0.2	1.5	100.0 (410)
완주	5.7	3.0	8.4	12.8	23.4	40.1	2.7	2.2	1.4	0.3	0.0	100.0 (367)
진안	9.5	3.3	11.9	14.3	19.0	36.7	1.4	3.8	0.0	0.0	0.0	100.0 (210)
무주	6.2	2.5	9.9	12.4	17.4	41.0	5.0	4.3	0.6	0.6	0.0	100.0 (161)
장수	6.4	4.7	4.7	17.0	12.3	50.3	2.9	0.6	1.2	0.0	0.0	100.0 (171)
임실	7.0	3.2	3.8	10.8	19.7	51.6	1.9	0.6	0.6	0.0	0.6	100.0 (157)
순창	7.6	1.8	8.0	13.8	16.1	43.3	4.5	3.6	0.9	0.0	0.4	100.0 (224)
고창	4.8	2.7	7.2	11.0	18.8	45.7	5.1	2.7	1.5	0.3	0.3	100.0 (335)
부안	9.0	2.3	8.6	10.2	16.2	42.9	4.1	4.5	1.5	0.8	0.0	100.0 (266)

주 : 0~2점을 하층, 3~7점을 중간층, 8~10점을 상층으로 구분하여 논의함.

(3) 삶의 만족도

전북 결혼이민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전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다소 전북 결혼이민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북의 경우 ‘매우 만족’과 ‘만족’의 비율이 53.7%인데 반해 전국은 56.8%로 전국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불만’, ‘매우 불만’은 전북이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전북 결혼이민자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35〉 전국과 전북의 결혼이민자의 현재 삶의 만족도

(단위 : %)

구분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전북	20.6	33.1	38.7	6.4	1.2	100.0(5,351)
전국	21.0	35.8	36.4	5.6	1.3	100.0(129,690)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 결혼이민자가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즉, 동 지역 결혼이민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의 비율이 57.7%로 읍·면지역 50.6%와의 차이를 보였으며, 5점 척도에 대한 평균값에 있어서도 동 지역 결혼이민자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의 ‘(매우)만족’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평균점수에 있어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의 ‘(매우)만족’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평균점수에 있어서도 학력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삶에 대한 ‘(매우)만족’이 54.1%로 나타났으며,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삶의 만족도는 각각 36.4%, 41.5%로 나타나 가족해체의 유무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를 보였다.

체류기간별로 살펴보면,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현재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결혼이민자는 ‘(매우)만족’이 66.7%로 나타난 반면,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결혼이민자는 ‘(매우)만족’의 비율이 39.7%로 큰 차이를 보였다.

〈표 3-36〉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현재 삶의 만족도

(단위 : %, 명)

구분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	계(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지역	동	22.0	35.7	34.8	6.1	1.4	2.29	100.0 (2,305)
	읍면	19.5	31.1	41.6	6.7	1.0	2.39	100.0 (3,047)
연령	24세이하	33.1	28.0	32.9	5.8	0.3	2.12	100.0 (794)
	25~29세	26.0	32.2	35.8	5.0	1.0	2.23	100.0 (1,370)
	30~34세	19.2	35.0	38.5	5.7	1.6	2.35	100.0 (960)
	35~39세	12.8	36.2	43.5	6.1	1.5	2.47	100.0 (821)
	40~49세	12.5	34.0	42.8	9.1	1.5	2.53	100.0 (1,109)
	50세이상	18.0	33.6	39.3	8.1	1.0	2.41	100.0 (295)
학력	초등이하	30.3	27.9	31.9	7.8	2.0	2.24	100.0 (498)
	중학교	25.2	29.7	39.6	5.0	0.5	2.26	100.0 (1,554)
	고등학교	18.5	34.3	39.8	6.0	1.4	2.37	100.0 (2,179)
	대학이상	13.4	38.5	38.4	8.3	1.4	2.46	100.0 (1,070)
혼인 상태	유배우	20.8	33.3	38.6	6.3	1.1	2.34	100.0 (5,202)
	이혼	8.0	28.4	45.5	12.5	5.7	2.80	100.0 (88)
	사별	17.1	24.4	36.6	22.0	0.0	2.64	100.0 (41)
체류 기간	1년미만	33.2	33.5	29.6	2.9	0.8	2.05	100.0 (629)
	1~2년	22.2	33.5	38.3	5.4	0.6	2.29	100.0 (789)
	2~5년	22.9	32.2	38.0	5.8	1.1	2.30	100.0 (1,698)
	5~10년	12.8	37.1	41.0	7.7	1.4	2.48	100.0 (1,098)
	10년이상	10.0	29.7	49.8	9.6	0.9	2.62	100.0 (679)

결혼이민자의 현재 삶의 만족도를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매우)만족’ 이 캄보디아가 6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54.2%를 보였다. 반면에 일본은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의 ‘(매우)만족’ 이 29.3% 나타났으며, 15.4%가 현재 삶의 만족도에 ‘(매우)불만’을 나타내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7〉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삶의 만족도

(단위 : %, 명)

구분	현재 삶의 만족도					평균	계(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중국(조선족)	16.3	38.7	38.3	5.5	1.2	2.37	100.0 (1,177)
중국(한족 등)	16.9	41.7	35.9	3.9	1.6	2.32	100.0 (1,070)
베트남	35.0	19.2	39.3	5.6	0.8	2.18	100.0 (1,507)
필리핀	11.0	36.7	41.0	10.5	0.8	2.54	100.0 (727)
몽골	9.3	44.4	35.2	5.6	5.6	2.50	100.0 (54)
태국	14.5	46.4	24.6	13.0	1.4	2.41	100.0 (69)
캄보디아	24.0	38.6	31.3	4.7	1.3	2.21	100.0 (233)
일본	2.7	26.6	55.3	13.6	1.8	2.85	100.0 (338)
북미·호주·서유럽	33.3	51.5	15.2	0.0	0.0	1.83	100.0 (33)
기타	19.0	43.7	31.7	5.6	0.0	2.24	100.0 (142)

살고 있는 시·군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만족’은 전주가 6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안 55.6%, 남원 55.1%, 익산 54.1%, 군산 53.6% 순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의 ‘(매우) 불만족’은 장수가 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실 12.1%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38〉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

(단위 : %, 명)

구분	현재 삶의 만족도					평균	계(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불만족		
전주	25.4	35.9	32.8	4.3	1.6	2.21	100.0 (976)
군산	21.4	32.2	39.8	5.1	1.6	2.34	100.0 (510)
익산	21.9	35.1	35.8	5.9	1.3	2.29	100.0 (749)
정읍	16.6	35.5	38.9	8.0	1.0	2.41	100.0 (512)
남원	21.9	33.2	37.6	6.9	0.4	2.31	100.0 (274)
김제	15.9	36.5	39.9	6.7	1.0	2.40	100.0 (416)
완주	12.4	36.9	44.6	4.4	1.7	2.46	100.0 (363)
진안	16.7	31.5	46.8	5.1	0.0	2.40	100.0 (216)
무주	26.5	26.5	38.9	7.4	0.6	2.29	100.0 (162)
장수	15.8	26.0	45.2	11.3	1.7	2.57	100.0 (177)
임실	28.0	23.6	36.3	10.8	1.3	2.35	100.0 (157)
순창	16.6	26.0	51.5	6.0	0.0	2.47	100.0 (235)
고창	22.1	27.6	41.6	7.8	0.9	2.38	100.0 (344)
부안	22.6	33.0	32.6	11.1	0.8	2.35	100.0 (261)

2. 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

현재 취업 중인 결혼이민자는 33.3%로 전국 40.2%에 비해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취업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한국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18.0%로 이상의 두 범주를 합하면 51.3%의 결혼이민자들이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한 적이 있다는 것으로 이 역시 전국 62%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농업 등의 1차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북의 산업구조의 특성상 국내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비해 결혼이민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현재 취업 32.3%, 과거 취업 18.3%로 이 역시 전국과 비교하여 낮은 비율을 보였다. 2009년 전북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49.3%인 것과 비교하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 장벽에 더해 외국인이라는 출신 장벽이 가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9〉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 취업여부 및 입국전 취업경험

(단위 : %)

구분		현재 일하고 있다	현재는 일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일한적 있다	지금까지 일한적 없다	계(수)
전체 결혼이민자	전북	33.3	18.0	48.7	100.0 (5,333)
	전국	40.2	21.8	38.0	100.0 (129,117)
여성 결혼이민자	전북	32.3	18.3	49.4	100.0 (5,235)
	전국	36.9	22.2	40.9	100.0 (117,825)

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을 여러 가지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 살펴보면, 먼저 거주지역별로는 동 지역 거주자의 취업률이 읍면지역 거주자보다 높지만 차이는 근소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는데, 연령은 40대가,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의 취업률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이 사실은 최근 국내에 들어오는 결혼이민자들의 학력과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향후 입국하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 이슈가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혼인 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이혼,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현재 취업 중 비율

이 각각 52.9%, 56.1%로 높았고, 지금까지 일한 적 없다는 비율은 유배우자가 49.4%로 높게 나타났다. 체류 기간별로는 국내 체류 기간이 길수록 취업률이 높았다. 입국 전 취업한 적이 있다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재 취업 중이거나 이전에 취업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0〉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취업여부

(단위 : %, 명)

구분		현재 일하고 있다	현재는 일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일한적 있다	지금까지 일한적 없다	계(수)
지역	동지역	35.7	20.6	43.7	100.0 (2,308)
	읍면지역	31.4	16.1	52.5	100.0 (3,024)
연령	24세 이하	14.1	10.6	75.3	100.0 (786)
	25~29세	19.4	16.8	63.8	100.0 (1,366)
	30~34세	29.5	19.5	51.0	100.0 (956)
	35~39세	46.1	21.2	32.7	100.0 (817)
	40~49세	53.5	18.7	27.7	100.0 (1,110)
	50세 이상	48.6	27.6	23.8	100.0 (294)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5.5	13.7	60.8	100.0 (510)
	중학교	31.4	15.9	52.8	100.0 (1,537)
	고등학교	30.2	20.7	49.1	100.0 (2,175)
	대학교 이상	46.8	17.3	35.9	100.0 (1,063)
혼인 상태	유배우	32.8	17.8	49.4	100.0 (5,192)
	이혼	52.9	28.2	18.8	100.0 (85)
	사별	56.1	24.4	19.5	100.0 (41)
체류 기간	1년 미만	14.5	6.8	78.8	100.0 (636)
	1~2년 미만	16.5	14.6	68.8	100.0 (792)
	2~5년 미만	29.2	19.4	51.4	100.0 (1,697)
	5~10년 미만	52.9	18.1	29.0	100.0 (1,086)
	10년 이상	52.4	25.6	22.0	100.0 (677)
과거 취업	있다	35.5	19.3	45.1	100.0 (3,708)
	없다	27.7	12.7	59.6	100.0 (1,272)

출신국별로는 북미·유럽과 필리핀 등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와 중국(조선족), 일본 등 비교적 체류 기간이 길고 연령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 전국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한족 등)과 태국 출신 이민자들의 경우 전국보다 현재 취업 중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지역(도시) 변수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태국의 경우 전북의 응답자가 모두 여성 이민자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41〉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취업여부

(단위 : %, 명)

구분	전북				전국			
	현재 일하고 있다	현재는 일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일한적 있다	지금까지 일한 적 없다	계 (수)	현재 일하고 있다	현재는 일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일한적 있다	지금까지 일한 적 없다	계 (수)
전체	33.3	18.1	48.7	100.0 (5,333)	40.2	21.8	38.0	100.0 (129,117)
중국(조선족)	48.0	23.7	28.4	100.0 (1,174)	52.4	27.2	20.4	100.0 (39,281)
중국 (한족 등)	24.6	23.3	52.1	100.0 (1,071)	39.9	24.3	35.8	100.0 (35,245)
베트남	22.1	13.5	64.3	100.0 (1,491)	21.2	13.1	65.7	100.0 (25,100)
필리핀	49.2	15.0	35.9	100.0 (728)	41.6	17.5	40.9	100.0 (8,528)
몽골	26.5	20.4	53.1	100.0 (49)	31.0	28.6	40.4	100.0 (1,789)
태국	18.6	20.0	61.4	100.0 (70)	36.8	19.2	44.0	100.0 (1,694)
캄보디아	13.1	9.7	77.2	100.0 (237)	12.2	13.2	74.6	100.0 (2,583)
일본	38.2	16.4	45.4	100.0 (335)	35.9	20.7	43.4	100.0 (5,379)
북미·호주· 서유럽	67.6	20.6	11.8	100.0 (34)	76.2	12.9	10.9	100.0 (2,368)
기타	36.1	10.4	53.5	100.0 (144)	44.1	20.6	35.3	100.0 (7,150)

결혼이민자의 지역별 취업률은 그 차이가 별반 크지 않았다. 현재 취업 중이거나 과거 취업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전주가 5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순창(57.5), 진안(52.4), 정읍(51.3), 장수(50.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일한 적 없다는 비율은 임실이 5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완주(53.5), 무주(53.3), 남원(52.6), 김제(5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2〉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 취업여부

(단위 : %, 명)

시·군	현재 일하고 있다	현재는 일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일한적 있다	지금까지 일한적 없다	계(수)
전주	36.9	20.8	42.3	100.0 (971)
군산	28.3	21.9	49.7	100.0 (515)
익산	29.6	22.4	48.0	100.0 (759)
정읍	37.0	14.3	48.7	100.0 (511)
남원	32.7	14.7	52.6	100.0 (272)
김제	33.7	14.1	52.1	100.0 (403)
완주	27.6	18.9	53.5	100.0 (359)
진안	34.3	18.1	47.7	100.0 (216)
무주	33.3	13.3	53.3	100.0 (165)
장수	36.3	14.5	49.2	100.0 (179)
임실	32.3	11.4	56.3	100.0 (158)
순창	42.0	15.5	42.5	100.0 (226)
고창	32.7	16.4	50.9	100.0 (336)
부안	31.4	16.7	51.9	100.0 (264)

결혼이민자의 한국 입국 전 취업경험률은 74.5%로 입국 후 현재 취업 중이거나 취업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 51.4%와 비교하면 결혼이민자들의 과거 취업 경험률이 더 높았다. 입국 전 취업률이 현재의 취업률보다 높다는 것은 한국으로의 이민 이후 여성들이 노동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경력 단절은 경제적 소득 측면에서도 손실일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긍심이나 자아성취감 등의 정서적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노동경력 단절은 본국에서 취득한 학위나 자격증 등이 한국에서 거의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출산, 육아, 가사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둘이 복합된 경우도 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 입국 전 취업경험률을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 살펴보면, 읍면 지역 거주자가 동 지역 거주자보다 과거 취업했던 비율이 약간 높았는데, 이는 전국 분포와 비교하면 반대의 양상이다. 이는 전라북도로의 유입이 애초부터 노동을 목적으로 한 이주보다 결혼을 통한 이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은 취업 경험률이 80-81% 정도로 유사하게 높았지만 24세 이하의 이민자들은 55.7%만이 과거 취업 경험을 보였다. 입국 전 취업 경험과 현재 취업 여부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 20대 초반의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다. 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의 과거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학력소지자의 과거 취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 교육수준과 취업경험률이 비선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류기간이 길수록 과거 취업 경험률이 높았다.

〈표 3-43〉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한국 입국전 취업 경험률

(단위 : 명, %)

구분		분석대상	한국 입국전 취업경험률
지역	동 지역	2,137	73.1
	읍면지역	2,909	75.4
연령	24세 이하	760	55.7
	25~29세	1,307	69.3
	30~34세	905	81.7
	35~39세	771	80.7
	40~49세	1,030	81.7
	50세 이상	271	82.3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485	63.7
	중학교	1,435	66.9
	고등학교	2,063	42.9
	대학교 이상	1,015	84.0
혼인 상태	유배우	4,919	74.3
	이혼	74	70.3
	사별	40	85.0
체류 기간	1년 미만	604	73.5
	1~2년 미만	751	68.3
	2~5년 미만	1,600	73.8
	5~10년 미만	1,043	79.4
	10년 이상	635	77.5

한국 입국 전 취업률을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일본, 태국, 필리핀, 몽골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자료와 비교적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선

진국 출신의 이민자들의 과거 취업률은 전국과 달리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 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비록 선진국 출신이라 하더라도 모국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만한 자원을 갖지 못한 집단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표 3-44〉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한국 입국전 취업 경험률

(단위 : 명, %)

구분	전북		전국	
	분석대상	한국 입국 전 취업경험률	분석대상	한국 입국 전 취업경험률
전체	5,044	74.4	121,970	75.3
중국(조선족)	1,083	76.2	36,686	80.2
중국(한족 등)	973	79.0	32,641	77.9
베트남	1,448	62.5	24,274	60.5
필리핀	701	82.9	8,243	80.5
몽골	51	80.4	1,693	77.3
태국	69	87.0	1,664	80.8
캄보디아	226	62.4	2,454	58.9
일본	328	96.6	5,225	92.7
북미·호주·서유럽	32	71.9	2,335	88.5
기타	133	69.2	6,756	69.4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입국 전 취업경험률은 지역별로 별반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장수가 8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안 82.6%, 군산 77.7%, 진안 77.1%, 고창 76.5%, 무주 7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5〉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한국 입국전 취업 경험률

(단위 : %, 명)

지역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경험률 (분석대상)	73.1 (896)	77.7 (462)	72.6 (700)	70.2 (500)	72.4 (254)	72.4 (402)	67.5 (360)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경험률 (분석대상)	77.1 (360)	75.3 (154)	86.3 (168)	74.1 (158)	71.4 (215)	76.5 (319)	82.6 (253)

2) 결혼이민자의 직종

한국에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들의 직종을 조사하였다.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의 직종은 인적 자본의 효과가 주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직종은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17.7%, 임직원 및 관리자가 0.2%로 합하면 17.9%가 전문직종이며, 나머지는 거의 전원 저숙련 직종이었다. 이 중 여성 결혼이민자의 전문직 종사자 비율은 17.2%, 저숙련직 종사자 비율은 82.8%였다. 전국과 비교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전문직 종사자 비율은 5% 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난 반면, 단순노무자 비율은 2.4% 포인트 높았다. 이는 전북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종 분포가 전국보다 훨씬 전문직과 저숙련직으로 양극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이 전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은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전북의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국제결혼이 주로 농가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농가의 유지와 재생산,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전문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3-46〉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의 직종

(단위 : 명, %)

구분	서비스	판매	농림 어업	기능	기계 조작 조립	가사 관련 단순 노무	기타 단순 노무	사무	전문가	임직원 및 관리자	기타	계 (수)	
전체	전북	24.6	5.1	9.1	4.5	3.3	3.7	20.5	2.1	17.7	0.2	9.1	100 (2,111)
	전국	29.4	5.8	3.2	6.5	5.5	4.2	18.6	3.4	13.6	0.5	9.3	100.0 (66,191)
여성	전북	24.7	5.2	9.4	4.5	3.2	3.9	20.6	2.2	17.0	0.2	9.2	100.0 (2,033)
	전국	32.5	5.9	3.5	5.7	5.2	4.6	17.0	3.5	12.4	0.4	9.5	100.0 (57,194)

결혼이민자들의 직종을 사회인구학적 배경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 지역 거주자의 전문직 종사 비율이 높고, 읍면 지역 거주자는 특히 농림어업 종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서비스직 종사 비율이 높은 반면, 단순 노무직은 절반 이상이 20대로 나타났다. 전문직에는 30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 종사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단순노무직과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졌다.

체류기간이 적을수록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농림어업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체류기간이 길수록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3-47〉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직종

(단위 : 명, %)

구분		서비스	판매	농림 어업	기능	기계 조작 및 조립	가사 관련 단순 노무	기타 단순 노무	사무	전문가	임직원 및 관리자	기타	전체
지역	동지역	27.2	5.5	2.4	6.1	3.2	3.0	20.5	2.1	20.7	0.1	9.0	100.0 (993)
	읍면지역	22.4	4.7	14.9	3.0	3.5	4.5	20.5	2.1	15.0	0.3	9.2	100.0 (1,118)
연령	24세이하	17.1	5.7	17.1	6.5	3.3	4.9	32.5	0.0	0.0	0.0	13.0	100.0 (123)
	25~29세	17.8	4.2	13.9	6.6	4.2	3.3	28.9	2.4	11.7	0.3	6.6	100.0 (332)
	30~34세	18.2	3.5	6.7	6.5	4.7	2.6	16.7	3.8	25.2	0.3	11.7	100.0 (341)
	35~39세	23.4	5.5	4.8	4.1	3.2	4.8	16.6	1.8	26.2	0.0	9.4	100.0 (435)
	40~49세	30.4	6.0	8.8	3.2	3.1	3.5	18.8	2.0	15.9	0.1	8.2	100.0 (685)
	50세이상	35.3	4.2	10.0	1.6	0.5	4.2	20.5	0.5	14.2	0.0	8.9	100.0 (19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6.3	5.7	18.4	7.8	0.7	3.5	38.3	0.0	1.4	0.0	7.8	100.0 (141)
	중학교	31.9	4.6	11.2	6.3	4.2	3.4	28.3	2.5	0.6	0.2	7.0	100.0 (527)
	고등학교	31.0	6.3	9.0	5.0	3.6	4.7	20.2	1.8	8.1	0.1	10.1	100.0 (867)
	대학교 이상	10.3	3.6	4.3	1.1	2.7	2.8	9.8	2.5	52.8	0.2	10.1	100.0 (563)
혼인 상태	유배우	24.4	5.2	9.1	4.6	3.3	3.7	20.6	1.9	17.8	0.2	9.3	100.0 (2,036)
	이혼	38.0	4.0	6.0	6.0	6.0	6.0	12.0	2.0	20.0	0.0	0.0	100.0 (50)
	사별	19.0	0.0	14.3	0.0	4.8	4.8	33.3	19.0	0.0	0.0	4.8	100.0 (21)
체류 기간	1년 미만	21.9	4.8	18.1	1.0	4.8	1.0	31.4	0.0	9.5	0.0	7.6	100.0 (105)
	1~2년 미만	22.2	4.6	10.3	6.7	4.1	2.1	28.9	2.1	13.9	0.0	5.2	100.0 (194)
	2~5년 미만	26.8	3.8	9.3	6.8	3.6	4.3	22.5	2.2	10.9	0.2	9.6	100.0 (604)
	5~10년 미만	19.8	5.8	6.2	4.5	4.4	4.2	16.4	2.2	27.1	0.2	9.3	100.0 (642)
	10년 이상	27.4	5.6	10.4	2.4	1.1	3.9	16.2	2.8	19.2	0.2	10.8	100.0 (463)

결혼이민자의 직종을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영어를 사용하는 북미·호주·유럽 출신과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전문직 종사 비율이 높고,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 조선족과 한족 등은 서비스직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는 단순노무직 종사비율이 높게 나타나 출신국에 따른 직종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48〉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직종

(단위 : 명, %)

구분	서비스	판매	농림 어업	기능	기계 조작 및 조립	가사 관련 단순 노무	기타 단순 노무	사무	전문가	임직원 및 관리자	기타	전체
중국 (조선족)	34.1	6.1	7.7	4.9	2.9	3.5	16.6	2.5	10.6	0.4	10.7	100.0 (718)
중국 (한족 등)	35.9	4.1	4.6	4.6	6.8	0.5	21.7	1.5	12.9	0.0	7.3	100.0 (410)
베트남	13.2	4.6	18.5	9.2	2.3	4.6	36.3	2.3	2.3	0.3	6.3	100.0 (303)
필리핀	11.1	3.8	6.4	0.6	3.2	5.2	17.8	2.0	43.4	0.0	6.4	100.0 (343)
몽골	5.9	0.0	0.0	0.0	0.0	17.6	23.5	5.9	23.5	0.0	23.5	100.0 (17)
태국	18.2	4.5	13.6	4.5	0.0	18.2	36.4	0.0	0.0	0.0	4.5	100.0 (22)
캄보디아	6.9	3.4	31.0	6.9	0.0	3.4	34.5	3.4	3.4	0.0	6.9	100.0 (29)
일본	16.9	9.0	13.5	1.1	0.0	6.2	13.5	1.1	23.6	0.0	15.2	100.0 (178)
북미·호주· 서유럽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29)
기타	21.3	0.0	4.9	8.2	6.6	3.3	13.1	3.3	21.3	0.0	18.0	100.0 (61)

지역별로 전주, 남원, 무주, 장수는 상대적으로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반면, 진안, 순창, 고창, 임실지역 거주자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익산, 정읍, 진안은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49〉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직종

(단위 : 명, %)

시·군	서비스	판매	농림 어업	기능	기계 조작 및 조립	가사 관련 단순 노무	기타 단순 노무	사무	전문가	임직원 및 관리자	기타	전체
전주	28.6	5.1	1.6	7.8	2.5	2.9	17.7	1.3	24.4	0.2	7.8	100.0 (447)
군산	38.5	6.7	2.2	2.8	2.2	0.6	17.9	0.6	19.6	0.0	8.9	100.0 (179)
익산	16.5	6.1	5.8	4.0	5.0	4.0	31.3	1.8	15.8	0.0	9.7	100.0 (278)
정읍	24.9	6.7	12.0	6.2	3.1	3.6	20.9	2.7	11.6	0.4	8.0	100.0 (225)
남원	8.7	4.3	13.0	1.1	3.3	6.5	21.7	5.4	23.9	0.0	12.0	100.0 (92)
김제	30.2	3.6	5.8	4.3	3.6	7.2	16.5	2.9	16.5	0.0	9.4	100.0 (139)
완주	34.5	2.8	5.6	2.8	2.1	2.8	21.1	2.8	18.3	0.0	7.0	100.0 (142)
진안	23.0	3.4	21.8	0.0	3.4	5.7	23.0	2.3	16.1	0.0	1.1	100.0 (87)
무주	37.9	1.7	10.3	5.2	3.4	1.7	15.5	0.0	22.4	0.0	1.7	100.0 (58)
장수	12.3	2.7	8.2	0.0	1.4	11.0	17.8	5.5	27.4	0.0	13.7	100.0 (73)
임실	17.7	6.5	19.4	11.3	1.6	1.6	19.4	1.6	9.7	1.6	9.7	100.0 (62)
순창	20.2	2.9	20.2	4.8	3.8	0.0	23.1	1.0	9.6	0.0	14.4	100.0 (104)
고창	13.4	0.0	26.1	0.8	4.2	7.6	15.1	3.4	14.3	0.0	15.1	100.0 (119)
부안	22.6	14.2	13.2	2.8	7.5	0.9	17.9	0.9	9.4	0.0	10.4	100.0 (106)

3) 결혼이민자의 종사상 지위

결혼이민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고 23.5%, 임시고 38.9%, 일용직 13.3%, 단독자영업자 8.6%, 고용주 1.8%, 무급가족 종사자 4.3%의 분포를 보였다. 이 중 임시고, 단독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는 전국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 반면, 상용고, 일용고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은 농림어업 종사자를 포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포는 여성결혼이

민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 중 취업자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하여 52.7%가 비정규직 종사자로 나타났다.

〈표 3-50〉 전북 및 전국 결혼이민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

구분		상용	임시	일용	단독 자영업	고용주	무급가족종사	기타	계(수)
전체 결혼이민자	전북	23.5	38.9	13.3	8.6	1.8	4.3	9.6	100.0 (1,937)
	전국	27.9	36.3	15.3	6.9	2.3	2.2	9.2	100.0 (61,399)
여성 결혼이민자	전북	22.7	39.2	13.5	8.6	1.9	4.5	9.7	100.0 (1,859)
	전국	26.0	38.4	14.8	6.7	2.1	2.4	9.5	100.0 (52,815)

종사상 지위를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 지역은 상용고가 조금 높은 반면, 읍면 지역 거주자는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용고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 종사상 지위에는 교육수준별 차이가 별반 나타나지 않았다. 혼인상태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체류기간은 기간이 길수록 상용고 비율이 높았고,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임시, 일용직과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높았다.

〈표 3-51〉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

구분		상용	임시	일용	단독자 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계(수)
지역	동지역	25.6	38.8	15.0	7.3	1.8	2.5	8.9	100.0 (919)
	읍면지역	21.5	38.9	11.8	9.8	1.8	5.9	10.2	100.0 (1,017)
연령	24세이하	19.3	39.5	13.2	1.8	0.9	9.6	15.8	100.0 (114)
	25~29세	17.7	41.9	15.2	8.1	0.6	5.8	10.6	100.0 (310)
	30~34세	26.9	41.3	12.8	6.4	0.3	3.4	8.9	100.0 (327)
	35~39세	25.4	38.2	13.6	8.4	2.1	2.9	9.4	100.0 (382)
	40~49세	24.2	37.5	11.3	9.9	3.0	4.6	9.6	100.0 (637)
	50세이상	23.2	34.5	17.9	14.3	1.8	2.4	6.0	100.0 (168)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5.6	41.4	14.1	10.2	1.6	3.9	13.3	100.0 (128)
	중학교	19.7	38.4	19.7	6.9	1.0	6.1	8.2	100.0 (477)
	고등학교	21.8	40.4	13.7	9.6	2.0	3.9	8.6	100.0 (793)
	대학교 이상	31.5	36.0	6.8	8.5	2.3	3.4	11.5	100.0 (530)
혼인 상태	유배우	23.2	38.8	13.4	8.7	1.9	4.5	9.6	100.0 (1,865)
	이혼	26.7	48.9	8.9	8.9	0.0	0.0	6.7	100.0 (45)
	사별	28.6	38.1	23.8	0.0	0.0	0.0	9.5	100.0 (21)
체류 기간	1년미만	6.2	44.3	26.8	4.1	1.0	7.2	10.3	100.0 (97)
	1~2년 미만	12.5	47.3	16.8	5.4	0.0	7.1	10.9	100.0 (184)
	2~5년 미만	23.4	37.3	15.0	8.2	2.2	4.0	10.0	100.0 (552)
	5~10년 미만	26.8	38.5	11.5	9.1	2.6	3.6	7.9	100.0 (582)
	10년이상	26.6	35.8	8.7	11.7	1.6	4.1	11.5	100.0 (436)

출신국별로 북미·호주·유럽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56.7%가 상용고인 반면, 다른 국가들은 임시, 일용직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출신국에 따른 종사상 지위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3-52〉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

구분	상용	임시	일용	단독자영 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계(수)
중국 (조선족)	24.3	34.4	15.5	10.9	1.8	4.1	9.0	100.0 (659)
중국 (한족 등)	20.7	44.6	17.7	6.2	2.2	1.6	7.0	100.0 (372)
베트남	15.3	43.3	13.5	6.5	0.7	8.0	12.7	100.0 (275)
필리핀	26.5	39.9	9.5	6.5	2.9	2.0	12.7	100.0 (306)
몽골	35.7	42.9	7.1	0.0	0.0	7.1	7.1	100.0 (14)
태국	31.6	47.4	15.8	5.3	0.0	0.0	0.0	100.0 (19)
캄보디아	16.0	48.0	4.0	4.0	0.0	20.0	8.0	100.0 (25)
일본	21.5	41.3	7.6	13.4	1.2	7.6	7.6	100.0 (172)
북미·호주 ·서유럽	56.7	23.3	0.0	10.0	0.0	0.0	10.0	100.0 (30)
기타	41.0	21.3	8.2	11.5	3.3	3.3	11.5	100.0 (61)

상용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장수(33.8), 남원(29.6), 전주(27.3)이며, 순창(10.1)과 고창(11.3), 진안(9.0) 지역은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 임시직보다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일용직의 경우는 부안(23.7), 김제(22.3), 익산(20.1)이 높게 나타났다.

〈표 3-53〉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

시·군	상용	임시	일용	단독지영 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계(수)
전주	27.3	39.5	12.2	7.2	1.6	3.5	8.8	100.0 (433)
군산	24.0	38.3	10.4	11.0	2.6	2.6	11.0	100.0 (154)
익산	23.3	34.5	20.1	6.8	1.6	4.4	9.2	100.0 (249)
정읍	19.0	39.5	12.8	8.7	2.1	5.1	12.8	100.0 (195)
남원	29.6	35.2	12.7	8.5	4.2	0.0	9.9	100.0 (71)
김제	12.3	47.7	22.3	9.2	2.3	0.8	5.4	100.0 (130)
완주	22.1	53.4	9.2	3.8	1.5	2.3	7.6	100.0 (131)
진안	25.6	37.2	9.0	12.8	0.0	9.0	6.4	100.0 (78)
무주	24.1	35.2	3.7	16.7	1.9	1.9	16.7	100.0 (54)
장수	33.8	44.1	5.9	0.0	0.0	1.5	14.7	100.0 (68)
임실	24.2	33.9	12.9	16.1	0.0	6.5	6.5	100.0 (62)
순창	23.2	28.3	16.2	5.1	3.0	10.1	14.1	100.0 (99)
고창	23.5	37.4	3.5	13.9	0.9	11.3	9.6	100.0 (115)
부안	18.6	32.0	23.7	12.4	3.1	3.1	7.2	100.0 (97)

3. 결혼이민자의 근로조건과 구직경로

1) 결혼이민자의 근로시간

결혼이민자들은 주당 평균 39.42 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는 적은 것으로 전북 결혼이민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보다 높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40시간 이상' 59.6%로 가장 높고, 다음이 '19시간 이하' 27.3%, '30~39시간' 6.7%, '20~29시간'이 6.4%였다. 이 중 여성결혼이민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39.22시간으로 이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표 3-54〉 전북 및 전국 결혼이민자의 주당 근로시간

(단위 : %, 명, 시간)

구분		19시간 이하	20~29시간	30~39시간	40시간 이상	계(수)	주당 평균근로시간
전체 결혼이민자	전북	27.3	6.4	6.7	59.6	100.0(2,288)	39.42
	전국	20.0	5.4	6.2	68.4	100.0(69,100)	43.21
여성 결혼이민자	전북	27.6	6.5	6.7	59.2	100.0(2,206)	39.22
	전국	21.0	5.4	6.0	67.6	100.0(59,852)	42.81

사회인구학적 배경별로 주당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동 지역 거주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2.53시간, 읍면 지역 거주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36.61시간으로 상용고 비중이 높은 동 지역 거주자의 근로시간이 더 길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 이상과 24세 이하의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이상으로 길었는데 40대 이상에서는 상용직 및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며, 24세 이하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력별로는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보다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들이 더 오랜 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별을 한 경우 4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비율이 다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체류기간이 긴 사람보다 입국한지 5년 미만인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5〉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단위 : %, 명, 시간)

구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평균
		19시간 이하	20~29 시간	30~39 시간	40시간 이상	계	
지역	동지역	21.1	6.8	7.0	65.1	100.0 (1,087)	42.53
	읍면지역	32.9	6.2	6.4	54.5	100.0 (1,201)	36.61
연령	24세이하	19.5	6.0	10.1	64.4	100.0 (149)	41.01
	25~29세	26.0	4.5	7.7	61.8	100.0 (377)	38.78
	30~34세	32.3	7.6	4.3	55.9	100.0 (397)	38.46
	35~39세	31.1	6.6	7.6	54.7	100.0 (472)	36.22
	40~49세	25.9	6.9	6.8	60.4	100.0 (694)	40.44
	50세이상	20.3	6.1	5.1	68.5	100.0 (197)	45.67
교육 수준	초등학교이하	16.8	5.2	9.7	68.4	100.0 (155)	43.38
	중학교	19.0	3.7	3.9	73.4	100.0 (590)	46.53
	고등학교	24.4	4.6	6.6	64.3	100.0 (934)	41.48
	대학교이상	42.5	12.4	9.0	36.0	100.0 (597)	28.08
혼인 상태	유배우	27.3	6.4	6.8	59.5	100.0 (2,194)	39.45
	이혼	32.8	1.6	6.6	59.0	100.0 (61)	37.38
	사별	18.5	18.5	0.0	63.0	100.0 (17)	37.77
체류 기간	1년미만	21.4	1.9	3.9	72.8	100.0 (103)	47.68
	1~2년미만	21.6	4.2	6.1	68.1	100.0 (213)	45.22
	2~5년미만	22.5	5.7	4.5	67.3	100.0 (685)	42.78
	5~10년미만	31.3	9.3	8.1	51.3	100.0 (688)	35.51
	10년이상	28.0	6.8	9.8	55.4	100.0 (457)	36.47

출신국별 주당 근로시간을 비교해보면,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23.69시간으로 가장 짧았으며, 일본, 북미·호주·유럽도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다.

〈표 3-56〉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주당 근로시간

(단위 : %, 명, 시간)

구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평균
	19시간 이하	20~29 시간	30~39 시간	40시간 이상	계(수)	
중국(조선족)	20.1	5.3	6.5	68.1	100.0 (721)	44.18
중국(한족 등)	22.5	3.8	3.4	70.3	100.0 (445)	46.77
베트남	18.6	4.9	7.8	68.7	100.0 (387)	41.55
필리핀	56.1	9.4	5.1	29.3	100.0 (392)	23.69
몽골	27.8	0.0	0.0	72.2	100.0 (18)	39.43
태국	13.0	17.4	0.0	69.6	100.0 (23)	41.12
캄보디아	9.8	4.9	17.1	68.3	100.0 (41)	45.95
일본	33.1	12.0	12.7	42.2	100.0 (166)	29.93
북미·호주·서유럽	26.7	10.0	26.7	36.7	100.0 (30)	28.32
기타	18.2	10.6	10.6	60.6	100.0 (66)	42.70

지역별로는 임실 거주 결혼이민자의 근로시간이 49.69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거주자의 경우도 주당 4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장수 지역으로 30.36시간이었다.

〈표 3-57〉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주당 근로시간

(단위 : %, 명, 시간)

시·군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평균
	19시간 이하	20~29 시간	30~39 시간	40시간 이상	계	
전주	18.4	7.0	7.8	66.8	100.0 (488)	43.32
군산	30.3	5.0	7.0	57.7	100.0 (210)	43.32
익산	22.8	5.2	7.2	64.8	100.0 (307)	41.88
정읍	24.5	7.7	5.6	62.2	100.0 (233)	40.95
남원	28.4	8.8	3.9	58.8	100.0 (102)	35.59
김제	35.7	5.8	3.5	55.0	100.0 (171)	36.60
완주	36.1	4.5	2.6	56.8	100.0 (155)	33.75
진안	44.3	8.0	3.4	44.3	100.0 (88)	33.28
무주	38.6	8.8	7.0	45.6	100.0 (57)	35.28
장수	38.2	9.2	6.6	46.1	100.0 (76)	30.36
임실	10.9	0.0	10.9	78.1	100.0 (64)	49.69
순창	33.3	7.6	7.6	51.4	100.0 (105)	34.30
고창	30.0	7.7	11.5	50.8	100.0 (66)	35.72
부안	26.3	7.0	8.8	57.9	100.0 (66)	39.07

2) 결혼이민자의 근로소득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90.16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8.84만원 적게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로는 ‘50만원~100만원 미만’이 51.3%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19.9%로 그 다음이었다. 근로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75%에 달했다. 전국과 비교하여 100만원 미만 구간은 전국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1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전국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소득 구간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이 52.5%로 가장 많았고, 100-200만원 미만이 19.1%, 50만원 미만이 18.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8〉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의 근로소득

(단위 :%, 명)

구분		없다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계(수)
전체 결혼이민자	전북	5.4	18.3	51.3	19.9	2.7	1.0	0.4	0.9	100.0 (2,487)
	전국	3.0	12.2	45.7	31.6	4.3	1.5	0.7	0.9	100.0 (73,893)
여성 결혼이민자	전북	5.5	18.7	52.5	19.1	2.4	0.6	0.5	0.8	100.0 (2,398)
	전국	3.3	13.7	49.7	29.1	2.4	0.8	0.4	0.6	100.0 (64,098)

사회인구학적 배경별로 근로소득을 비교해보면, 동 지역 거주자일수록 근로소득이 높은 구간에서 비율이 높았고, 읍면 지역 거주자는 소득이 없거나 50만원 미만 응답비율이 높아 동 지역 거주자가 더 소득이 많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긴 하지만 일관적이지 않았다.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으로 가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0대 이후 연령대에서는 별로 소득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더 많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류기간이 길수록 근로소득이 높았는데, 이는 체류기간이 한국어 능력의 향상이나 여타 기술의 습득 등의 ‘일반적 숙련’ 수준의 향상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국적 취득자가 외국인보다 근로소득이 높았다.

〈표 3-59〉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근로소득

(단위 : 명, %)

구분		없다	50만원 미만	50~100만원미만	100~2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400만원미만	400~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계
지역	동지역	2.8	16.4	52.0	23.1	3.2	1.0	0.6	0.9	100.0 (1,174)
	읍면지역	7.8	20.0	50.6	17.1	2.2	1.0	0.3	1.0	100.0 (1,313)
연령	24세이하	12.6	21.6	52.1	9.0	1.2	2.4	0.0	1.2	100.0 (167)
	25~29세	7.5	22.5	51.4	16.9	0.2	0.5	0.5	0.5	100.0 (426)
	30~34세	5.7	20.0	48.6	20.5	3.1	1.0	0.0	1.2	100.0 (420)
	35~39세	3.9	18.1	52.4	19.7	3.3	1.0	1.3	0.4	100.0 (519)
	40~49세	4.3	15.2	52.3	23.0	3.2	0.8	0.3	0.8	100.0 (742)
	50세이상	2.4	14.5	51.2	23.7	4.8	1.4	0.0	1.9	100.0 (207)
교육 수준	초등학교이하	11.6	26.2	46.5	12.8	0.6	1.2	0.6	0.6	100.0 (172)
	중학교	4.6	17.9	53.7	21.1	1.4	0.5	0.3	0.6	100.0 (659)
	고등학교	5.7	19.0	51.4	20.6	1.6	0.7	0.4	0.6	100.0 (1,005)
	대학교이상	3.8	15.3	50.1	20.1	6.3	1.9	0.6	1.9	100.0 (633)
혼인 상태	유배우	5.6	18.4	51.0	20.1	2.6	1.0	0.4	1.0	100.0 (2,387)
	이혼	3.1	17.2	50.0	17.2	9.4	0.0	3.1	0.0	100.0 (64)
	사별	0.0	16.1	71.0	12.9	0.0	0.0	0.0	0.0	100.0 (31)
체류 기간	1년미만	6.8	19.7	47.0	19.7	3.4	1.7	0.0	1.7	100.0
	1~2년미만	8.0	17.0	48.2	25.4	0.0	0.4	0.0	0.9	100.0
	2~5년미만	4.8	19.0	54.5	20.1	0.5	0.7	0.3	0.1	100.0
	5~10년미만	5.2	18.8	52.8	16.4	4.0	1.7	0.3	0.8	100.0
	10년이상	3.5	18.4	49.2	21.0	5.1	0.6	0.8	1.4	100.0

출신국별로는 필리핀, 북미·호주·서유럽 출신 결혼이민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 구간에서 응답률이 근소하게 높았지만 이 차이는 매우 미비하였다. 이들 국가 출신에서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여타의 출

신국들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종사하는 전문직종이 주로 학원 강사나 통역사 등 시간당 임금을 받는 불안정 고용이기 때문이다.

〈표 3-60〉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근로소득

(단위 : 명, %)

구분	없다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계
중국 (조선족)	3.6	15.1	53.6	23.5	2.8	0.6	0.5	0.4	100.0 (788)
중국 (한족 등)	1.3	14.2	49.4	31.9	2.8	0.0	0.4	0.0	100.0 (464)
베트남	11.1	23.7	53.5	8.8	0.2	1.3	0.4	0.9	100.0 (452)
필리핀	4.9	16.9	52.0	17.6	4.0	1.4	0.5	2.8	100.0 (427)
몽골	4.5	13.6	68.2	13.6	0.0	0.0	0.0	0.0	100.0 (22)
태국	13.6	18.2	63.6	4.5	0.0	0.0	0.0	0.0	100.0 (22)
캄보디아	15.9	27.3	47.7	4.5	2.3	0.0	0.0	2.3	100.0 (44)
일본	9.9	31.0	46.8	10.5	1.8	0.0	0.0	0.0	100.0 (171)
북미·호주· 서유럽	0.0	16.7	10.0	13.3	30.0	20.0	0.0	10.0	100.0 (30)
기타	4.5	19.4	43.3	29.9	0.0	3.0	0.0	0.0	100.0 (67)

지역별 근로소득의 차이는 별반 두드러지지 않았다. 근로소득이 없거나 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률이 30% 이상인 지역은 진안(44.0%), 고창(34.7), 무주(33.8)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남원(15.5)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200만원 이상의 경우는 남원(9.5), 장수(9.4), 부안(8.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다른 지역은 5% 내외로 낮게 나타났다.

〈표 3-61〉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근로소득

(단위 : 명, %)

시·군	없다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계(수)
전주	3.4	18.9	48.3	22.9	4.3	0.6	0.8	0.8	100.0 (507)
군산	2.2	16.0	50.2	27.1	2.7	1.3	0.0	0.4	100.0 (225)
익산	2.3	16.1	52.3	25.1	2.0	1.5	0.6	0.0	100.0 (342)
정읍	7.6	18.1	43.4	27.3	1.6	1.2	0.4	0.4	100.0 (249)
남원	4.3	11.2	57.8	17.2	6.9	0.9	0.0	1.7	100.0 (116)
김제	1.6	16.5	63.7	12.1	2.2	3.3	0.0	0.5	100.0 (182)
완주	3.7	19.5	59.8	16.5	0.0	0.0	0.0	0.6	100.0 (164)
진안	9.0	35.0	39.0	14.0	2.0	1.0	0.0	0.0	100.0 (100)
무주	8.8	25.0	51.5	11.8	0.0	0.0	1.5	1.5	100.0 (68)
장수	10.6	16.5	56.5	7.1	3.5	0.0	0.0	5.9	100.0 (85)
임실	16.7	9.1	59.1	15.2	0.0	0.0	0.0	0.0	100.0 (66)
순창	9.9	18.0	60.4	9.0	0.9	0.0	0.0	1.8	100.0 (111)
고창	15.0	19.7	42.9	19.0	2.0	0.7	0.0	0.7	100.0 (147)
부안	3.3	22.0	48.8	17.1	5.7	1.6	0.8	0.8	100.0 (123)

3) 결혼이민자의 직업상 고충

결혼이민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24.6%, ‘낮은 임금’ 11.2%, ‘자녀양육’ 10.2%, ‘고된 일’과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이 10.0%, ‘집안 일과 병행하기 어려움’ 6.7%, ‘긴 노동시간’ 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응답은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2순위, ‘고된 일’이 3순위인 것과 비교하면 상위 2, 3순위의 응답에서 전북과 전국이 다르게 나타났다. 전북의 결혼이민자들은 주변의 태도나 편견 등의 포괄적 차별보다는 저임금이나 자녀양육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더욱 큰 고충으로 느끼고 있었다.

〈표 3-62〉 전북과 전국 결혼이민자의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단위 : %, 명)

구분		언어 소통의 어려움	고된 일	긴노동 시간	낮은 임금	직장 상사 또는 동료와의 갈등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자녀 양육	집안 일과 병행하기 어려움	별로 어려움 없음	기타	계(수)
전체	전북	24.6	10.0	6.1	11.2	1.6	10.0	10.2	6.7	16.3	3.3	100.0 (2,519)
	전국	21.6	10.9	10.5	10.2	1.6	12.0	8.3	4.5	16.8	3.6	100.0 (74,706)
여성	전북	24.0	10.2	6.3	11.1	1.7	10.0	10.5	6.9	15.9	3.4	100.0 (2,435)
	전국	22.3	11.0	10.4	9.7	1.4	11.1	9.1	5.1	16.6	3.3	100.0 (64,883)

상위 3순위인 ‘언어소통의 어려움, 저임금,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지역별로 언어소통 어려움은 차이가 없으나, 동지역은 저임금 문제를, 읍면지역은 자녀양육 문제를 더 많이 지적하였다.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체류기간이 길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체류기간이 길수록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더 많이 지적되었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한 반면, 이혼한 경우는 자녀양육 문제를, 사별한 경우는 낮은 임금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배우자 유무와 직접 연관되기보다 결혼 후 체류기간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혼이나 사별을 한 경우보다 결혼 기간이 짧을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크며, 반대로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언어소통보다는 모자가구로서 자녀양육이나 저임금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표 3-63〉 전북과 전국 결혼이민자의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단위 : %, 명)

구분		언어 소통의 어려움	고된 일	긴 노동 시간	낮은 임금	직장 상사 또는 동료와의 갈등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자녀 양육	집안 일과 병행 하기 어려움	별로 어려움 없음	기타	계
지역	동지역	24.7	9.8	6.5	11.9	1.7	11.3	9.8	5.2	15.7	3.4	100.0 (1,182)
	읍면지역	24.4	10.4	5.7	10.5	1.5	8.8	10.6	7.9	16.9	3.2	100.0 (1,338)
연령	24세이하	47.4	9.4	4.1	7.0	2.3	5.3	7.6	5.8	8.8	2.3	100.0 (171)
	25~29세	33.9	9.0	4.7	13.3	0.7	6.7	10.3	4.0	16.2	1.1	100.0 (445)
	30~34세	28.3	7.5	3.7	9.8	1.2	11.7	11.5	5.4	17.3	3.5	100.0 (427)
	35~39세	20.1	9.8	5.2	10.7	1.5	11.1	16.3	7.3	14.0	4.2	100.0 (523)
	40~49세	18.5	11.6	7.0	10.7	2.2	11.4	8.0	9.3	17.4	3.9	100.0 (740)
	50세이상	11.3	14.6	14.2	16.0	1.9	9.0	1.9	4.7	22.2	4.2	100.0 (21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7.4	12.3	5.0	12.8	2.2	9.5	10.1	5.6	12.8	2.2	100.0 (179)
	중학교	30.7	9.9	5.2	11.1	1.3	6.3	11.8	5.7	15.9	2.1	100.0 (668)
	고등학교	21.4	12.5	6.8	10.3	1.9	10.7	10.2	6.7	16.2	3.4	100.0 (1,014)
	대학교 이상	22.6	5.5	6.1	12.4	1.1	13.0	8.3	8.2	18.3	4.5	100.0 (638)
혼인 상태	유배우	25.1	10.0	6.0	11.1	1.6	9.8	9.9	6.8	16.4	3.3	100.0 (2,415)
	이혼	13.6	12.1	6.1	12.1	1.5	13.6	19.7	3.0	16.7	1.5	100.0 (66)
	사별	6.9	17.2	6.9	20.7	0.0	17.2	13.8	3.4	10.3	3.4	100.0 (29)
체류 기간	1년미만	52.9	10.1	6.7	10.1	0.0	5.0	4.2	1.7	8.4	0.8	100.0 (119)
	1~2년 미만	51.3	8.3	6.6	6.6	0.9	6.1	3.1	3.1	11.4	2.6	100.0 (228)
	2~5년 미만	28.2	10.0	6.9	13.0	0.9	10.6	7.7	4.4	15.8	2.5	100.0 (753)
	5~10년 미만	18.9	9.5	5.5	12.0	2.2	10.5	12.9	8.5	16.7	3.3	100.0 (726)
	10년이상	8.0	11.6	5.2	10.8	2.6	9.6	14.5	11.4	21.5	4.6	100.0 (498)

출신국별로는 태국, 중국 한족,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거주자가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대체로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중국 조선족과 몽골 출신 이민자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다른 어려움들에 대해 출신국별로 비교해 보면, 중국 조선족과 한족은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자는 ‘고된 일’을, 몽골은 ‘긴 노동 시간’, 태국은 ‘낮은 임금’과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일본은 ‘집안일과의 병행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표 3-64〉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단위 : %, 명)

구분	언어 소통의 어려움	고된 일	긴 노동 시간	낮은 임금	직장 상사 또는 동료와의 갈등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지녀 양육	집안 일과 병행 하기 어려움	별로 어려움 없음	기타	계
중국 (조선족)	4.1	12.1	7.4	12.5	2.0	15.3	15.2	7.5	20.6	3.2	100.0 (783)
중국 (한족 등)	40.6	9.4	4.8	6.3	1.3	11.0	8.8	1.7	14.6	1.7	100.0 (480)
베트남	39.7	11.7	4.5	11.3	1.1	4.5	9.8	3.2	12.6	1.7	100.0 (469)
필리핀	28.6	5.6	8.4	15.2	0.9	8.0	7.5	8.0	11.7	6.1	100.0 (427)
몽골	4.5	13.6	18.2	13.6	0.0	4.5	4.5	18.2	18.2	4.5	100.0 (22)
태국	58.3	0.0	4.2	16.7	0.0	16.7	0.0	4.2	0.0	0.0	100.0 (24)
캄보디아	34.1	15.9	0.0	11.4	0.0	0.0	11.4	9.1	18.2	0.0	100.0 (44)
일본	17.5	11.9	4.0	9.0	5.6	4.0	5.1	16.4	19.8	6.8	100.0 (177)
북미·호주·서유럽	20.7	0.0	0.0	10.3	0.0	17.2	0.0	0.0	51.7	0.0	100.0 (29)
기타	23.8	9.5	4.8	7.9	0.0	7.9	4.8	20.6	15.9	4.8	100.0 (63)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제외한 여타의 어려움에 대해 시군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무주군 거주 이민자가 많이 지적하였고,

‘고된 일, 긴 노동시간, 낮은 임금’ 등의 노동조건에서의 어려움은 주로 전주, 군산, 김제, 남원 등의 시지역 거주 이민자가 많이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양육’이나 ‘집안일과의 병행 어려움’은 장수, 고창에서 주로 많이 지적되었다.

〈표 3-65〉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단위 : %, 명)

시·군	언어 소통의 어려움	고된 일	긴 노동 시간	낮은 임금	직장 상사 또는 동료와의 갈등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자녀 양육	집안 일과 병행 하기 어려움	별로 어려움 없음	기타	계
전주	22.5	9.2	6.7	10.8	2.5	10.4	11.2	5.0	18.8	2.9	100.0 (520)
군산	28.3	6.7	4.5	14.8	3.6	12.1	10.8	3.6	13.5	2.2	100.0 (223)
익산	27.6	7.4	6.8	9.1	1.4	11.6	12.8	5.4	16.5	1.4	100.0 (352)
정읍	25.4	11.3	8.9	7.7	1.6	11.7	8.1	10.9	10.9	3.6	100.0 (248)
남원	23.3	19.8	5.2	10.3	0.0	6.0	8.6	6.0	19.0	1.7	100.0 (116)
김제	17.7	8.8	2.8	16.6	0.6	10.5	7.2	12.2	16.6	7.2	100.0 (181)
완주	30.6	13.1	4.4	7.5	0.0	5.0	14.4	8.1	15.0	1.9	100.0 (160)
진안	23.1	8.3	11.1	11.1	0.0	3.7	11.1	11.1	16.7	3.7	100.0 (108)
무주	16.4	13.4	6.0	6.0	6.0	14.9	6.0	9.0	16.4	6.0	100.0 (67)
장수	21.8	5.7	8.0	20.7	0.0	6.9	18.4	4.6	9.2	4.6	100.0 (87)
임실	30.9	16.2	7.4	7.4	0.0	2.9	7.4	1.5	25.0	1.5	100.0 (68)
순창	15.7	12.2	5.2	18.3	0.9	11.3	9.6	5.2	18.3	3.5	100.0 (115)
고창	29.5	11.4	2.0	8.1	2.0	12.1	10.7	3.4	18.8	2.0	100.0 (149)
부안	27.0	11.5	5.7	11.5	0.8	9.8	0.8	9.0	14.8	9.0	100.0 (122)

4) 결혼이민자의 구직경로

결혼이민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모국인 친구·지인의 소개’ 21.1%, ‘한국인 친구, 지인의 소개’ 19.5%, ‘배우자의 가족, 친척 소개’ 14.1%, ‘대중매체나 전단지를 보고’ 13.5%, ‘나의 가족, 친척 소개’ 10.3%, ‘공공기관의 소개’ 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구직경로는 사적 네트워크와 공적 네트워크로 구분되며, ‘대중매체나 전단지, 공공기관의 소개’ 등은 공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경로가 된다. 결혼이민자들이 공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직업을 구한 비율은 22.7%로 전국 응답 32.3%보다 낮으며, 대부분이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였다. 공적 네트워크에서도 ‘공공기관의 소개’로 직업을 구한 비율이 전국 5.6%보다 2% 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고, ‘사실직업 알선기관’의 경우는 7% 포인트, ‘대중매체나 전단지’는 5%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 수립을 고려하면, 공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구직경로의 차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66〉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 구직경로

(단위 : %, 명)

구분	나의 가족·친척소개	배우자의 가족·친척소개	모국인 친구·지인의 소개	한국인 친구·지인의 소개	공공기관의 소개	사실직업 알선기관을 통해	대중매체나 전단지를 보고	기타	계(수)	
전체	전북	10.3	14.1	21.1	19.5	7.4	1.8	13.5	123	100.0 (2,386)
	전국	10.9	11.9	18.5	15.1	5.6	8.3	18.4	11.3	100.0 (71,747)
여성	전북	10.5	14.1	21.3	19.3	7.5	1.9	13.5	11.9	100.0 (2,301)
	전국	11.2	12.6	18.1	15.0	5.7	8.1	19.1	10.3	100.0 (62,201)

동 지역 거주자가 읍면 지역 거주자보다 공적 네트워크 이용율이 높은 편이나, 동 지역 거주자는 대중매체나 전단지를 보고 일자리를 구했다는 비율이 높았고, 읍면 지역 거주자는 공공기관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

이 높을수록 대중매체나 전단지 등의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구하거나, 공공기관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한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공기관 소개를 이용한 비율이 높았으며, 대중매체나 전단지 이용 비율은 별 차이가 없었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유배우자보다 공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비율이 높는데, 여기에서도 이혼과 사별의 경우가 차이를 보였다. 이혼한 경우는 대중매체나 전단지 이용 비율이 높았고, 사별한 경우는 공공기관의 소개 비율이 높았다. 체류기간은 시간이 길수록 공공기관 소개 이용 비율이 높았다.

〈표 3-67〉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구직경로

(단위 : %, 명)

구분		나의 가족, 친척 소개	배우자의 가족친척 소개	모국인 가족 친척의 소개	한국인 친구 지인의 소개	공공기관의 소개	사실 직업알선 기관	대중매체나 전단지	기타	계
지역	동지역	7.9	12.9	21.7	15.8	5.9	2.6	20.2	12.9	100.0 (1,143)
	읍면지역	12.6	15.0	20.6	22.8	8.8	1.1	7.5	11.6	100.0 (1,243)
연령	24세이하	15.0	26.3	31.9	11.3	0.0	0.6	6.9	8.1	100.0 (160)
	25~29세	12.0	16.5	28.0	15.1	3.3	1.7	12.9	10.5	100.0 (418)
	30~34세	10.6	12.8	21.4	15.8	8.4	2.5	13.1	15.5	100.0 (406)
	35~39세	8.5	10.5	21.3	24.6	8.5	1.2	13.4	12.0	100.0 (484)
	40~49세	8.6	12.8	17.4	22.5	9.4	2.0	14.1	13.2	100.0 (711)
	50세이상	12.7	14.7	10.8	20.1	9.3	2.5	19.6	10.3	100.0 (204)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15.2	14.6	26.2	20.7	3.0	1.2	7.3	11.6	100.0 (164)
	중학교	9.9	17.5	22.2	20.4	3.2	1.6	15.5	9.7	100.0 (627)
	고등학교	12.4	15.9	19.1	16.7	8.9	2.4	13.0	11.6	100.0 (975)
	대학교이상	5.8	7.6	22.1	22.6	10.5	1.5	13.5	16.5	100.0 (607)
혼인상태	유배우	10.6	14.3	21.1	19.3	7.3	1.7	13.2	12.4	100.0 (2,290)
	이혼	3.2	8.1	21.0	17.7	4.8	6.5	29.0	9.7	100.0 (62)
	사별	3.4	10.3	31.0	31.0	17.2	0.0	3.4	3.4	100.0 (29)
체류기간	1년미만	16.7	34.3	25.9	3.7	1.9	0.0	11.1	6.5	100.0 (108)
	1~2년미만	14.8	19.9	24.1	12.5	5.1	2.8	8.8	12.0	100.0 (216)
	2~5년미만	9.0	15.0	23.8	16.6	5.3	2.1	15.8	12.4	100.0 (711)
	5~10년미만	8.5	11.6	20.5	20.2	9.8	1.8	14.8	12.8	100.0 (704)
	10년이상	8.8	7.5	15.4	28.7	10.7	2.1	12.6	14.1	100.0 (467)

출신국별로는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등, 필리핀, 북미·호주·서유럽 출신 이민자들의 공적 네트워크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비교적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적게 호소했던 중국 조선족과 몽골 출신 이민자가 대중매체나 전단지 이용 비율이 높았고, 몽골과 필리핀은 공공기관의 소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68〉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구직경로

(단위 : %, 명)

구분	나의 가족, 친척 소개	배우자의 가족친척 소개	모국인 가족 친척의 소개	한국인 친구 지인의 소개	공공기관의 소개	사설 직업알선 기관	대중매체나 전단지	기타	계
중국 (조선족)	9.8	12.8	9.9	19.2	7.8	2.5	23.4	14.4	100.0 (755)
중국 (한족 등)	12.7	17.6	15.6	21.0	5.6	1.8	14.7	10.9	100.0 (448)
베트남	12.1	19.3	35.5	13.0	2.8	1.6	6.5	9.3	100.0 (431)
필리핀	7.8	7.3	34.3	20.8	12.8	1.3	6.3	9.5	100.0 (399)
몽골	15.0	15.0	5.0	15.0	20.0	5.0	20.0	5.0	100.0 (20)
태국	4.5	13.6	27.3	27.3	4.5	0.0	0.0	22.7	100.0 (22)
캄보디아	15.6	35.6	17.8	20.0	2.2	0.0	2.2	6.7	100.0 (45)
일본	10.9	7.4	22.3	30.9	8.6	1.1	6.3	12.6	100.0 (175)
북미·호주·서유럽	0.0	0.0	29.6	22.2	0.0	0.0	18.5	29.6	100.0 (27)
기타	4.8	19.0	11.1	12.7	12.7	3.2	9.5	27.0	100.0 (63)

시군별로는 군산, 남원, 장수, 전주 거주자가 공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전주, 군산은 대중매체나 전단지 이용비율이 높았고, 장수는 공공기관 소개 비율이, 남원은 둘 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소개 비율이 높은 지역은 남원과 장수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3-69〉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구직경로

(단위 : %, 명)

시·군	나의 가족, 친척 소개	배우자의 가족친척 소개	모국인 가족 친척의 소개	한국인 친구 지인의 소개	공공 기관의 소개	사실 직업알선 기관	대중 매체나 전단지	기타	계
전주	9.0	13.7	21.9	14.1	2.8	3.2	20.9	14.3	100.0 (502)
군산	11.5	4.6	17.4	21.6	9.2	2.3	19.7	13.8	100.0 (218)
익산	7.8	15.6	23.1	21.3	4.2	0.3	18.6	9.0	100.0 (333)
정읍	15.0	21.3	17.9	12.5	4.2	2.5	10.8	15.8	100.0 (240)
남원	7.3	13.8	21.1	11.9	18.3	0.9	15.6	11.0	100.0 (109)
김제	9.7	16.0	24.0	23.4	5.7	2.3	12.6	6.3	100.0 (175)
완주	7.1	12.8	30.1	18.6	10.3	1.9	9.0	10.3	100.0 (156)
진안	13.8	19.1	18.1	23.4	6.4	1.1	5.3	12.8	100.0 (94)
무주	12.9	8.1	24.2	35.5	1.6	0.0	1.6	16.1	100.0 (62)
장수	5.6	2.8	22.2	30.6	19.4	1.4	9.7	8.3	100.0 (72)
임실	20.3	16.9	11.9	10.2	11.9	0.0	5.1	23.7	100.0 (59)
순창	4.7	12.1	18.7	31.8	12.1	2.8	4.7	13.1	100.0 (107)
고창	19.3	14.3	20.7	18.6	11.4	2.1	6.4	7.1	100.0 (140)
부안	7.7	19.7	17.1	26.5	12.0	0.0	4.3	12.8	100.0 (117)

4. 미취업 결혼이민자의 취업 관련 태도

1) 결혼이민자의 미취업 사유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녀 양육 때문에’ 46.8%, ‘한국 말이 서툴러서’ 16.5%,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10.2%, ‘집안 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6.8%, ‘배우자나 가족의 반대’ 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분포는 전국과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었으나, 그나마 미세한 차이라도 찾으면 전북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나 ‘한국말이 서툴러서’, ‘배우자나 가족의 반대’가 전국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70〉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 미취업 사유

(단위 : %, 명)

구분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원하는 임금수준이나근로 조건이 맞는 자리가 없어서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자녀 양육 때문에	한국 말이 서툴러서	배우자나 가족의 반대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전북	10.2	3.6	6.8	46.8	16.5	5.6	1.8	1.1	7.7	100.0 (3,346)
	전국	9.6	3.7	6.4	49.1	13.0	4.3	1.6	1.6	10.8	100.0 (70,736)
여성	전북	10.1	3.6	6.8	46.9	16.4	5.6	1.8	1.1	7.6	100.0 (3,334)
	전국	9.2	3.3	6.5	50.7	13.1	4.4	1.5	1.5	9.8	100.0 (68,334)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 세분해서 살펴보아도 ‘자녀양육’ 변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기를 벗어난 4, 50대의 경우조차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현재 일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높은 것은 전반적으로 가사일과 자녀양육이 취업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결혼이민자 역시 외국인이라는 배경보다는 일반 기혼여성들이 ‘가족책임’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3-71〉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미취업 사유

(단위 : %, 명)

구분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원하는 임금수준이나근로 조건이 맞는 자리가 없어서	집안 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자녀 양육 때문에	한국 말이 서툴러서	배우자나 가족의 반대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기타	계
지역	동지역	13.0	3.7	4.3	43.4	18.0	5.8	2.1	1.4	8.3	100.0 (1,392)
	읍면지역	8.1	3.6	8.6	49.3	15.4	5.4	1.6	0.9	7.2	100.0 (1,953)
연령	24세이하	7.1	2.3	5.7	42.5	27.8	6.5	1.4	1.4	5.3	100.0 (645)
	25~29세	8.5	3.6	5.6	55.1	16.0	4.6	1.0	0.4	5.2	100.0 (1,051)
	30~34세	9.0	2.3	4.8	57.7	12.2	5.5	3.0	0.6	5.9	100.0 (640)
	35~39세	11.2	5.1	7.5	48.8	10.4	6.6	2.2	1.0	7.3	100.0 (412)
	40~49세	16.5	5.6	11.4	29.2	15.2	5.6	1.7	1.7	13.1	100.0 (466)
	50세이상	23.5	5.3	12.9	5.3	9.8	5.3	2.3	6.8	28.8	100.0 (13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5.8	1.9	8.6	50.4	19.2	4.2	1.9	0.6	7.2	100.0 (359)
	중학교	8.7	3.3	6.6	47.8	18.1	6.0	1.9	1.3	6.2	100.0 (983)
	고등학교	11.4	4.0	7.3	45.9	15.4	5.4	1.7	1.0	8.1	100.0 (1,439)
	대학교 이상	11.9	4.5	4.5	45.7	14.9	5.8	1.7	1.3	9.6	100.0 (530)
혼인 상태	유배우	10.1	3.6	6.8	47.2	16.6	5.6	1.7	1.1	7.3	100.0 (3,287)
	이혼	16.7	3.3	3.3	26.7	3.3	3.3	13.3	0.0	30.0	100.0 (30)
	사별	0.0	6.7	26.7	13.3	6.7	0.0	6.7	0.0	40.0	100.0 (15)
체류 기간	1년미만	14.8	0.8	4.4	18.4	53.5	4.2	1.7	0.0	8.2	100.0 (523)
	1~2년미만	9.6	2.6	4.5	50.9	17.1	9.1	0.9	1.6	3.7	100.0 (645)
	2~5년미만	10.3	3.6	6.5	60.0	6.3	5.2	1.2	0.8	6.1	100.0 (1,126)
	5~10년 미만	10.3	7.1	8.4	53.8	3.1	4.4	2.7	1.0	9.2	100.0 (478)
	10년이상	13.2	7.7	15.3	33.8	3.1	3.8	2.4	2.4	18.1	100.0 (287)

출신국별로는 자녀양육 문제를 제하고는 중국 한족,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 출신 이민자들의 경우 ‘한국말이 서툴러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몽골은 ‘배우자나 가족의 반대’ 때문에, 태국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배우자나 가족의 반대’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2〉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미취업사유

(단위 : %, 명)

구분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원하는 임금수준이나근로 조건이 맞는 자리가 없어서	집안 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자녀 양육 때문에	한국 말이 서툴러서	배우자나 가족의 반대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기타	계
중국 (조선족)	12.3	4.8	11.8	44.0	4.8	5.1	2.5	1.2	13.6	100.0 (568)
중국 (한족 등)	13.8	2.8	1.7	42.6	25.4	4.8	2.5	0.3	6.0	100.0 (751)
베트남	7.5	3.1	7.3	50.9	18.6	6.1	0.4	0.7	5.4	100.0 (1,106)
필리핀	7.9	4.1	6.8	49.1	12.9	8.2	1.8	0.0	9.1	100.0 (340)
몽골	0.0	2.9	11.4	57.1	2.9	14.3	2.9	0.0	8.6	100.0 (35)
태국	7.5	1.9	0.0	64.2	5.7	7.5	1.9	1.9	9.4	100.0 (53)
캄보디아	5.5	4.0	6.5	52.5	20.5	3.5	5.0	1.5	1.0	100.0 (200)
일본	11.5	6.8	9.9	39.1	14.6	1.0	2.1	3.6	11.5	100.0 (192)
북미·호주·서유럽	0.0	0.0	0.0	18.2	0.0	0.0	0.0	18.2	63.6	100.0 (11)
기타	20.2	2.2	7.9	33.7	11.2	9.0	2.2	7.9	5.6	100.0 (89)

시군별로는 임실과 무주지역이 미취업 이유로 ‘자녀양육’ 문제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지역에서는 자녀양육과 언어소통의 문제가 고르게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의 미취업 사유로는 전주, 군산, 익산 등의 시 지역일수록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가 높았고, 배우자나 가족의 반대를 이유로 든 비율도 완주, 고창, 임실 등 군지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73〉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미취업사유

(단위 : %, 명)

시·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원하는 임금수준 이나근로 조건이 맞는 자리가 없어서	잡안 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자녀 양육 때문에	한국 말이 서툴러서	배우자나 가족의 반대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 해서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기타	계
전주	13.7	3.5	3.3	45.6	15.8	5.9	1.0	1.4	9.9	100.0 (577)
군산	11.5	3.4	4.9	45.4	21.0	5.2	2.0	1.7	4.9	100.0 (348)
익산	12.2	3.9	5.7	43.3	17.9	6.3	1.8	1.4	7.5	100.0 (492)
정읍	8.7	4.5	7.8	48.5	14.9	3.6	3.9	0.0	8.1	100.0 (309)
남원	7.7	3.6	8.3	49.1	13.6	5.9	1.8	1.8	8.3	100.0 (169)
김제	7.2	3.2	12.0	39.0	20.5	5.2	3.6	1.2	8.0	100.0 (249)
완주	10.4	7.6	8.8	43.0	16.3	7.6	0.8	0.0	5.6	100.0 (251)
진안	11.1	1.5	5.2	57.0	10.4	3.7	2.2	0.7	8.1	100.0 (135)
무주	8.9	0.0	7.9	66.3	5.0	5.0	0.0	1.0	5.9	100.0 (101)
장수	4.6	4.6	6.5	58.3	11.1	5.6	0.0	0.0	9.3	100.0 (108)
임실	5.8	1.0	8.7	60.6	10.6	6.7	0.0	2.9	3.8	100.0 (104)
순창	8.1	0.0	8.1	52.8	15.4	3.3	2.4	2.4	7.3	100.0 (123)
고창	9.8	3.9	6.8	44.9	17.6	7.3	2.0	1.0	6.8	100.0 (205)
부안	7.8	3.9	10.1	38.5	23.5	3.9	0.6	0.0	11.7	100.0 (179)

2) 미취업 결혼이민자의 향후 취업 희망

미취업 결혼이민자의 향후 취업 희망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88.2%가 향후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는 전국 응답률보다 2.5% 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전북 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이 전국보다 낮은 것과 연관지어보면, 전북의 결혼이민자들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육아와 가사일 등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가 전국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4〉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 향후 취업 희망

(단위 : %, 명)

구분		향후 취업 희망률	분석대상
전체 결혼이민자	전북	88.2	3,433
	전국	85.7	72,027
여성 결혼이민자	전북	88.3	3,419
	전국	86.2	69,520

거주 지역별로는 동지역 거주자가 읍면 지역 거주자보다 취업을 희망한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향후 취업 희망률이 높았고,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보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의 취업 희망률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취업희망률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 체류기간은 2~5년 미만인 집단에서 취업 희망률이 가장 높았는데 이 기간이 임신, 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기간일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이 집단의 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출산과 육아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표 3-75〉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향후 취업 희망률

(단위 : %, 명)

구분		향후 취업 희망률	분석대상
지역	동지역	90.0	1,426
	읍면지역	86.9	2,007
연령	24세이하	89.4	663
	25~29세	91.8	1,079
	30~34세	90.7	656
	35~39세	89.2	418
	40~49세	81.4	479
	50세이상	61.5	135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79.8	367
	중학교	87.6	1,018
	고등학교	90.1	1,473
	대학교이상	89.4	537
혼인상태	유배우	88.4	3,366
	이혼	78.4	37
	사별	68.8	16
체류기간	1년미만	88.7	531
	1~2년미만	89.3	657
	2~5년미만	91.4	1,154
	5~10년미만	86.0	492
	10년이상	75.6	291

출신국별 향후 취업 희망률은 몽골 97.3%, 중국 한족 92.1%, 필리핀 92.0%, 태국 88.9%, 캄보디아 86.8%, 중국 조선족 82.1%, 일본 76.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6〉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향후 취업 희망률

(단위 : %, 명)

구분	향후 취업 희망률	분석대상
중국(조선족)	82.1	586
중국(한족 등)	92.1	777
베트남	90.9	1,135
필리핀	92.0	349
몽골	97.3	37
태국	88.9	54
캄보디아	86.8	205
일본	76.6	192
북미·호주·서유럽	20.0	10
기타	77.0	87

지역별 향후 취업 희망률은 군산 92.3%, 순창 91.1%, 전주 90.7%, 부안 88.9%, 고창 88.8%, 완주 88.7%, 김제 88.6%, 익산과 남원 87.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취업 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임실로 77.1%로 나타났다.

〈표 3-77〉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향후 취업 희망률

(단위 : %, 명)

시·군	향후 취업 희망률	분석대상
전주	90.7	589
군산	92.3	352
익산	87.7	514
정읍	84.4	314
남원	87.7	171
김제	88.6	254
완주	88.7	257
진안	87.7	138
무주	85.7	98
장수	82.9	111
임실	77.1	105
순창	91.1	124
고창	88.8	224
부안	88.9	180

3) 미취업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도움

미취업 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도움은 ‘일자리 알선’ 28.1%, ‘한국어 교육’ 21.6%, ‘자녀보육, 양육 지원’ 19.3%, ‘직업교육’ 16.0%, ‘배우자나 가족의 이해와 지원’ 8.9%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은 ‘일자리 알선’, ‘자녀교육, 양육 지원’, ‘한국어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북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북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한국어 교육’이 2순위인 반면, 전국의 결혼이민자들은 ‘자녀보육, 양육지원’을 2순위로 응답하였다. 이는 전북의 결혼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체류기간이 짧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78〉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

(단위 : %, 명)

구분		도움이 필요없다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한국어교육	자녀보육, 양육지원	배우자나 가족의 이해와지원	기타	계(수)
전체	전북	2.2	28.1	16.0	21.6	19.3	8.9	3.9	100.0 (2,869)
	전국	3.1	30.1	13.9	18.3	22.5	6.3	5.8	100.0 (58,943)
여성	전북	2.2	28.0	16.0	21.5	19.3	8.9	4.0	100.0 (2,859)
	전국	2.9	29.6	14.1	18.4	22.9	6.4	5.6	100.0 (57,251)

거주 지역별로 읍면 지역 거주자가 동 지역 거주자보다 ‘배우자나 가족의 이해와 지원’을 더 호소하였고 다른 도움들에 대해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0대에서 ‘자녀보육, 양육 지원’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일자리 알선’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일관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자리 알선과 한국어 교육이 유사한 비율로 높은 반면, 이혼한 경우는 일자리 알선과 직업교육을, 사별한 경우는 자녀보육 및 양육지원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체류기간은 2년 미만까지 ‘한국어 교육’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며, 체류기간이 길수록 ‘일자리 알선’에 대한 수요가 ‘자녀 보육, 양육 지원’보다 많아졌다. 그러나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체류 1년 미만을 제하고, 체류기간의 길고 짧음과 무관하게 ‘자

녀보육, 양육지원'에 대한 수요는 일관되게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주로 미취학 아동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 정책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79〉 전북 결혼이민자 특성별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

(단위 : %, 명)

구분		도움이 필요없다	일자리 알선	직업 교육	한국어 교육	자녀보육, 양육지원	배우자나 가족의 이해와지원	기타	계
지역	동지역	3.2	27.5	17.7	21.0	19.3	6.5	4.8	100.0 (1,229)
	읍면지역	1.5	28.5	14.7	22.1	19.3	10.7	3.3	100.0 (1,641)
연령	24세이하	2.3	23.0	12.8	27.8	16.8	13.1	4.1	100.0 (564)
	25~29세	2.0	27.4	17.9	21.4	19.8	8.0	3.5	100.0 (939)
	30~34세	1.1	28.7	16.1	19.5	24.6	6.6	3.4	100.0 (564)
	35~39세	3.1	25.0	18.0	18.3	21.9	9.6	4.2	100.0 (356)
	40~49세	3.0	35.6	15.5	20.1	14.4	6.8	4.6	100.0 (368)
	50세이상	5.3	46.7	10.7	16.0	1.3	12.0	8.0	100.0 (75)
교육 수준	초등학교이하	2.1	27.5	12.1	26.1	17.1	10.7	4.3	100.0 (280)
	중학교	1.7	28.8	14.8	20.2	21.0	8.5	4.9	100.0 (832)
	고등학교	2.5	28.4	17.0	19.7	20.3	8.4	3.9	100.0 (1,262)
	대학교 이상	2.4	25.9	18.6	25.1	15.8	9.9	2.4	100.0 (463)
혼인 상태	유배우	2.2	28.1	15.8	21.7	19.4	9.0	3.9	100.0 (2,820)
	이혼	0.0	30.8	30.8	15.4	7.7	3.8	11.5	100.0 (26)
	사별	0.0	18.2	27.3	9.1	45.5	0.0	0.0	100.0 (11)
체류 기간	1년미만	1.6	20.6	13.1	41.4	9.5	10.4	3.4	100.0 (442)
	1~2년미만	2.1	25.7	16.8	26.8	16.8	7.6	4.1	100.0 (564)
	2~5년미만	1.5	29.4	18.1	15.8	23.6	8.6	3.0	100.0 (994)
	5~10년미만	2.7	31.8	18.4	12.4	24.3	4.5	6.0	100.0 (403)
	10년이상	3.7	36.9	13.1	8.9	20.1	12.1	5.1	100.0 (214)

출신국별로는 중국 조선족과 베트남, 태국, 일본 출신 이민자의 경우 ‘일자리 알선’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였고, 몽골과 캄보디아 출신 이민자의 경우 ‘한국어 교육’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였다. 또한 몽골 출신 이민자는 직업교육을 한국어교육과 같은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80〉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

(단위 : %, 명)

구분	도움이 필요없다	일자리 알선	직업 교육	한국어 교육	자녀보육, 양육지원	배우자나 가족의 이해와지원	기타	계
중국 (조선족)	4.8	35.5	15.6	5.0	22.8	7.2	9.0	100.0 (456)
중국 (한족 등)	2.8	17.2	18.6	28.0	20.0	7.5	5.9	100.0 (681)
베트남	1.3	33.3	14.8	20.1	18.3	10.5	1.7	100.0 (966)
필리핀	0.3	25.4	18.1	24.4	18.1	10.4	3.3	100.0 (299)
몽골	2.7	8.1	35.1	35.1	8.1	10.8	0.0	100.0 (37)
태국	2.2	28.9	11.1	22.2	17.8	11.1	6.7	100.0 (45)
캄보디아	1.7	20.7	9.2	33.3	23.6	10.9	0.6	100.0 (174)
일본	0.7	34.5	10.3	31.0	15.2	6.9	1.4	100.0 (145)
북미·호주·서유럽	0.0	100.0	0.0	0.0	0.0	0.0	0.0	100.0 (2)
기타	3.0	37.9	22.7	18.2	15.2	3.0	0.0	100.0 (66)

시군별로 비교해보면, 전주시 거주자는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한국어교육을 비슷한 수준으로 필요로 하고 있었고, 군산시 거주자는 일자리 알선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익산은 일자리 알선, 한국어 교육, 자녀보육 및 양육 지원이 비슷하게 제기되었고, 정읍은 일자리 알선과 자녀보육 및 양육 지원, 남원은 일자리 알선, 한국어 교육, 자녀보육 및 양육 지원을, 김제는 일자리 알선과 직업교육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 완주와 진안, 무주, 장수는 일자리 알선이 30% 이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완주와 장

수는 한국어 교육을, 진안과 무주는 자녀보육 및 양육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임실 거주자는 자녀보육 및 양육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가운데 일자리 알선과 한국어 교육을 그 다음으로 필요로 하였다. 순창은 한국어 교육과 직업교육을, 고창, 부안은 일자리 알선과 한국어 교육을 1, 2순위로 필요로 하였다.

〈표 3-81〉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

(단위 : %, 명)

시·군	도움이 필요없다	일자리 알선	직업 교육	한국어 교육	자녀보육, 양육지원	배우자나 가족의 이해와지원	기타	계
전주	4.4	25.3	21.0	20.6	17.0	5.5	6.3	100.0 (525)
군산	4.2	31.0	13.2	24.5	16.8	7.4	2.9	100.0 (310)
익산	1.2	27.8	17.2	20.8	21.0	9.0	3.1	100.0 (424)
정읍	1.6	29.0	15.9	17.1	23.3	9.8	3.3	100.0 (245)
남원	0.0	21.4	11.4	25.7	23.6	12.1	5.7	100.0 (140)
김제	1.0	28.0	23.0	18.0	16.0	8.5	5.5	100.0 (200)
완주	0.9	39.1	12.1	23.7	15.8	7.0	1.4	100.0 (215)
진안	0.9	30.0	10.9	20.9	24.5	11.8	0.9	100.0 (110)
무주	0.0	34.6	15.4	17.9	26.9	2.6	2.6	100.0 (78)
장수	4.5	34.8	9.0	24.7	16.9	6.7	3.4	100.0 (89)
임실	0.0	20.7	17.1	19.5	24.4	13.4	4.9	100.0 (82)
순창	3.6	18.2	22.7	23.6	18.2	6.4	7.3	100.0 (110)
고창	0.5	23.2	12.1	23.2	20.0	17.9	3.2	100.0 (190)
부안	3.3	28.9	8.6	25.0	18.4	13.2	2.6	100.0 (152)

5.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및 교육

1) 직업훈련 참여경험 및 직업훈련 요구도

결혼이민자 중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는 전체의 16.3%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 평균 참여율 10.4%보다는 높았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전국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취업 중 비율이 전국보다 낮은 것은 유의해서 살펴볼 대목이다. 즉 전북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이 기술이나 훈련의 부족 이외의 요인에 의해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향후 직업훈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은 80.1%로 이 역시 전국보다 높았다.

〈표 3-82〉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참여율 및 참여 의향을

(단위 : %, 명)

구분		직업훈련 참여여부		향후 직업훈련 참여여부	
		직업훈련 참여율	분석대상	참여 의향율	분석대상
전체	전북	16.3	5,133	80.1	5,187
	전국	10.4	125,486	72.8	125,504
여성	전북	16.5	5,034	80.6	5,091
	전국	11.4	114,671	74.9	114,801

지역별로는 동 지역 15.7%, 읍면 지역 16.8%로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가 16.6%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사별, 유배우, 이혼의 순으로 교육참여율이 높았다. 체류기간은 5-10년 미만이 24.6%, 10년 이상이 16.9%로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보다 5년 이상인 경우가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훈련 참여의향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 2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는 직업훈련 참여율도 가장 높았고, 향후 참여 의향도 가장 높게 나타나 취업을 위한 자기 계발의 요구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 의향이 높았고, 체류 기간이 짧을수록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류기간이 짧은 이민자들에게 주로 한국어 교육 편향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히려 언어나 한국문화 이해 중심적인 현재의 프로그램이 직업훈련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표 3-83〉 전북 결혼이민자 특성별 직업훈련 참여율 및 의향률(1)

(단위 : %, 명)

구분	직업훈련 참여여부		향후 직업훈련 참여여부		
	분석대상	직업훈련 참여율	분석대상	직업훈련 참여 의향률	
지역	동지역	2,223	15.7	2,240	80.1
	읍면지역	2,910	16.8	2,947	80.1
연령	24세이하	754	11.7	780	84.5
	25~29세	1,313	13.0	1,334	84.8
	30~34세	912	18.5	929	85.6
	35~39세	788	24.4	794	82.9
	40~49세	1,080	16.6	1,064	70.9
	50세이상	285	13.0	283	55.1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487	8.2	498	69.5
	중학교	1,501	11.7	1,504	77.6
	고등학교	2,085	15.2	2,116	82.0
	대학교이상	1,019	29.2	1,021	84.8
혼인 상태	유배우	5,005	16.3	5,066	80.4
	이혼	82	15.9	73	63.0
	사별	37	21.6	37	70.3
체류 기간	1년미만	617	13.5	625	85.4
	1~2년미만	771	12.7	779	84.0
	2~5년미만	1,618	13.6	1,644	81.7
	5~10년미만	1,046	24.6	1,055	79.6
	10년이상	670	16.9	655	66.6

결혼이민자의 취업 실태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경험을 분석한 결과 현재 취업 중인 경우의 21.0%가 직업훈련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취업 경험이 있지만 현재 미취업 상태인 경우는 19.5%,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는 12.2% 순으로 취업 상태이거나 취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경우 직업훈련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국 전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직업훈련 참여율이 높았으며, 현재는 미취업 상태이나 향후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취업 의향이 없는 경우보다 10% 포인트 정도 참여율이 높았다.

한편,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자일수록 직업 훈련에 대한 관심(96.2%)이 더 높았으며, 향후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경우 역시 직업 훈련에 대한 관심(90.0%)이 매우 높았다.

〈표 3-84〉 전북 결혼이민자 특성별 직업훈련 참여율 및 의향률(2)

(단위 : %, 명)

구분		직업훈련 참여여부		향후 직업훈련 참여여부	
		분석대상	직업훈련 참여율	분석대상	직업훈련 참여 의향률
본인 취업여부	취업	1,664	21.0	1,662	73.4
	취업경험있으나 미취업	898	19.5	923	86.7
	취업경험 없다	2,508	12.2	2,536	82.0
한국 입국전 직업경험	있다	3,554	17.8	3,596	81.7
	없다	1,231	10.9	1,254	74.0
향후 취업의향	있다	2,905	15.1	2,957	90.0
	없다	396	5.8	390	34.9
직업훈련 참여경험	있다	-	-	821	96.2
	없다	-	-	4,221	76.5

직업훈련 참여율은 출신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필리핀, 몽골 출신 이민자들의 참여율은 30% 이상으로 높았으며, 베트남과 일본은 각각 9.8%, 9.2%로 가장 낮았다. 향후 참여 의향률 역시 몽골과 필리핀이 가장 높았고 중국 조선족이 선진국 출신 이민자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85〉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직업훈련 참여율 및 의향률

(단위 : %, 명)

구분	직업훈련 참여여부		향후 직업훈련 참여여부	
	분석대상	직업훈련 참여율	분석대상	직업훈련 참여 의향률
중국(조선족)	1,151	13.4	1,145	70.6
중국(한족 등)	1,053	18.1	1,040	85.7
베트남	1,412	9.8	1,467	82.7
필리핀	672	34.4	682	88.3
몽골	52	30.8	54	98.1
태국	67	20.9	70	87.1
캄보디아	227	17.2	236	80.1
일본	326	9.2	322	68.0
북미·호주·서유럽	33	0.0	33	42.4
기타	138	14.5	136	77.2

시군별로는 장수, 순창, 완주, 임실 지역 결혼이민자의 참여율이 20% 이상으로 높았으며, 참여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무주로 8.7%에 불과하였다. 향후 참여 의향률은 시군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 3-86〉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참여율 및 의향률

(단위 : %, 명)

시·군	직업훈련 참여여부		향후 직업훈련 참여여부	
	분석대상	직업훈련 참여율	분석대상	직업훈련 참여 의향률
전주	937	14.7	937	81.0
군산	490	18.0	495	83.0
익산	717	12.7	742	79.2
정읍	497	13.3	502	73.9
남원	262	16.8	261	83.5
김제	403	15.1	402	79.1
완주	353	21.0	355	82.8
진안	197	18.8	201	80.1
무주	161	8.7	161	73.3
장수	161	27.3	163	85.3
임실	155	21.9	159	75.5
순창	213	23.5	219	83.6
고창	327	14.7	326	80.1
부안	260	18.1	262	81.7

2) 향후 직업훈련 요구 영역

결혼이민자의 향후 직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영역을 분석한 결과, 어학에 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가 기본적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던지간에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직업훈련의 영역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업기술 및 기능교육과 병행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어학 외 직업훈련 영역에 관한 요구도를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는 컴퓨터/정보통신 14.7%, 음식 12.8%, 미용, 피부 9.4%, 운전면허 7.4%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원예 관련 교육 요구도는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라북도의 일자리 특성상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나 농림어업 관련 일자리를 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87〉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요구영역

(단위 : %, 명)

구분	어학	컴퓨터/정보통신	자동차정비/기계수리	의복	건설	농어업/원예	음식	보육	간병/간호	가사도우미	미용/피부	운전면허	기타	계(수)	
전체	전북	35.2	14.7	0.7	6.6	0.2	1.7	12.6	3.3	3.8	0.8	9.4	7.5	3.3	100.0 (4,020)
	전국	35.2	15.2	1.4	6.2	0.7	0.9	12.8	3.2	2.8	0.8	9.2	7.8	3.9	100.0 (88,678)
여성	전북	35.2	14.7	0.6	6.7	0.2	1.7	12.8	3.3	3.8	0.8	9.4	7.4	3.3	100.0 (3,968)
	전국	35.5	15.1	0.4	6.5	0.2	0.8	13.2	3.3	3.0	0.9	9.7	7.6	3.7	100.0 (83,539)

직업훈련 요구 영역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근소한 차이로 동 지역 거주자가 미용/피부에 관심을 좀더 높은 관심을 보였고, 읍면 지역 거주자는 농어업/원예와 운전면허에 좀더 관심을 보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어학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20대에는 음식, 3,40대에서는 컴퓨터/정보통신에 대한 관심도가, 50대 이후에는 음식, 간병/간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어학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이혼한 경우는 컴퓨터/정보통신을, 사별한 경우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이 차이는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라기보다 체류기간이나 결혼이민자 자신의 인적자본 특성이 개입된 결과로 보인다.

체류기간은 기간이 짧을수록 어학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체류기간이 길수록 컴퓨터/정보통신 요구도가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학과 컴퓨터/정보통신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음식, 미용/피부에 대한 직업훈련 요구도가 높았다. 월평균 근로소득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일수록 어학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반면 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일수록 음식, 간병/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할 때 이들의 관심사를 우선 파악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이 요구된다.

현재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어학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현재 취업 중이거나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컴퓨터/정보통신, 음식, 운전면허, 미용/피부 순으로 관심도가 높았고, 취업한 적이 없는 경우는 어학 외 음식, 미용/피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입국 전 직업경험 여부나 향후 취업의향 여부와 무관하게 어학에 대한 요구도는 높았으며, 입국 전 직업경험이 있는 경우는 컴퓨터/정보통신, 입국 전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는 음식에 대한 직업훈련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컴퓨터/정보통신, 음식, 미용/피부, 의복 순으로 훈련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88〉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직업훈련 요구영역(1)

(단위 : %, 명)

구분		어학	컴퓨터/ 정보통신	자동 차정비/ 기계수리	의복	건설	농어 업/ 원예	음식	보육	간병/ 간호	가사 도우미	미용/ 피부	운전 면허	기타	계
지역	동지역	36.4	14.8	1.1	5.8	0.2	0.5	13.0	3.3	4.3	0.9	11.0	5.9	2.8	100.0 (1,738)
	읍면지역	34.4	14.6	0.5	7.2	0.3	2.7	12.4	3.3	3.4	0.7	8.2	8.7	3.7	100.0 (2,282)
연령	24세 이하	40.0	5.6	0.5	10.0	0.3	1.4	17.6	1.7	1.4	0.8	13.0	4.6	3.0	100.0 (630)
	25~29세	39.1	9.1	0.2	8.9	0.2	1.7	12.8	3.9	1.8	0.4	12.0	7.2	2.7	100.0 (1,096)
	30~34세	35.4	14.7	0.9	6.5	0.5	2.8	10.1	4.0	2.6	0.5	9.3	9.0	3.6	100.0 (774)
	35~39세	34.2	24.3	1.7	3.9	0.2	1.3	9.4	3.5	3.8	0.6	6.1	9.8	1.3	100.0 (635)
	40~49세	29.7	21.7	0.8	3.5	0.0	1.0	11.9	3.0	7.2	1.6	6.8	6.9	5.9	100.0 (734)
	50세 이상	17.9	20.5	0.7	1.3	0.0	2.6	20.5	2.6	16.6	3.3	4.0	6.6	3.3	100.0 (151)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8.3	6.5	0.0	11.6	0.0	4.2	18.5	2.1	4.8	1.8	12.5	6.0	3.9	100.0 (336)
	중학교	31.2	12.0	0.8	8.3	0.1	1.9	16.6	3.0	3.8	1.2	11.7	6.3	3.0	100.0 (1,121)
	고등 학교	33.1	16.7	0.8	6.5	0.2	1.1	11.7	3.9	3.4	0.7	10.1	8.5	3.4	100.0 (1,685)
	대학교 이상	46.9	18.5	1.0	2.3	0.7	1.9	6.8	2.9	4.0	0.1	3.9	7.4	3.7	100.0 (842)
혼인 상태	유배우	35.5	14.6	0.8	6.6	0.3	1.8	12.4	3.3	3.8	0.8	9.5	7.5	3.3	100.0 (3,944)
	이혼	19.0	31.0	0.0	7.1	0.0	0.0	14.3	2.4	2.4	0.0	4.8	9.5	9.5	100.0 (42)
	사별	15.4	11.5	0.0	7.7	0.0	0.0	38.5	3.8	0.0	0.0	15.4	3.8	3.8	100.0 (26)
체류 기간	1년 미만	56.1	6.1	0.6	6.5	0.2	1.1	8.2	1.0	1.7	1.0	9.9	4.2	3.4	100.0 (524)
	1~2년 미만	42.7	8.9	0.8	6.9	0.0	1.8	13.4	2.1	2.4	0.2	13.3	5.0	2.7	100.0 (626)
	2~5년 미만	32.5	11.5	0.4	9.2	0.3	1.8	16.1	3.6	3.4	0.7	10.4	7.8	2.5	100.0 (1,306)
	5~10년 미만	28.6	22.3	1.1	4.2	0.1	1.6	10.0	4.8	3.9	0.9	7.6	11.4	3.5	100.0 (817)
	10년 이상	16.1	33.2	2.1	2.8	0.2	2.3	11.0	3.0	9.8	0.7	4.7	7.2	6.8	100.0 (428)

〈표 3-89〉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직업훈련 요구영역(2)

(단위 : %, 명)

구분	어학	컴퓨터/정보통신	자동차정비/기계수리	의복	건설	농어업/원예	음식	보육	간병/간호	가사도우미	미용/피부	운전면허	기타	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3.3	13.8	0.8	8.1	0.0	2.8	14.2	3.7	4.5	0.4	9.8	6.1	2.4	100.0 (246)
	50~100만원미만	29.3	18.0	0.8	6.4	0.0	1.6	14.4	4.3	4.8	1.6	6.8	7.8	4.2	100.0 (793)
	100~200만원미만	33.4	14.9	1.1	6.0	0.2	2.0	12.0	2.7	4.3	0.6	11.5	8.3	3.0	100.0 (1,428)
	200~300만원미만	36.9	19.7	0.2	2.4	0.2	0.6	13.0	5.0	3.0	0.2	9.9	5.8	3.0	100.0 (463)
	300~400만원미만	56.9	14.7	0.0	4.6	0.0	0.0	5.5	2.8	0.0	0.0	7.3	8.3	0.0	100.0 (109)
	400~500만원미만	45.5	18.2	0.0	4.5	4.5	0.0	9.1	0.0	4.5	4.5	4.5	0.0	4.5	100.0 (22)
	500~600만원미만	56.3	6.3	0.0	0.0	0.0	18.8	0.0	6.3	0.0	0.0	12.5	0.0	0.0	100.0 (16)
	600~700만원미만	46.2	7.7	0.0	7.7	7.7	0.0	7.7	7.7	0.0	7.7	7.7	0.0	0.0	100.0 (13)
	700만원 이상	58.3	16.7	0.0	0.0	0.0	0.0	8.3	0.0	0.0	0.0	8.3	8.3	0.0	100.0 (12)
	모르겠음	38.6	9.4	0.6	9.9	0.4	1.7	12.4	2.5	3.0	0.6	8.4	8.4	4.1	100.0 (725)
본인 취업 여부	취업	34.1	19.3	1.6	4.1	0.1	1.6	11.2	2.6	4.5	0.6	8.3	8.8	3.2	100.0 (1,189)
	취업경험 있으나 미취업	33.7	18.0	0.5	5.9	0.4	1.1	12.1	3.8	4.9	1.3	8.6	7.2	2.6	100.0 (783)
	취업경험 없다	36.6	10.8	0.4	8.3	0.3	2.0	13.6	3.5	2.8	0.7	10.5	6.7	3.7	100.0 (2,002)
임국 전 직업 경험	있다	36.1	15.5	0.6	6.3	0.2	2.0	11.5	3.3	3.9	0.6	9.3	7.5	3.3	100.0 (2,854)
	없다	32.0	12.0	1.2	8.3	0.3	1.0	16.2	3.6	3.8	1.2	9.8	7.2	3.2	100.0 (887)
향후 취업 의향	있다	36.5	12.9	0.4	8.1	0.2	1.5	12.8	3.8	3.0	0.7	9.8	6.7	3.6	100.0 (2,569)
	없다	23.1	13.1	0.8	4.6	0.0	5.4	21.5	2.3	3.8	3.8	13.8	6.9	0.8	100.0 (130)

출신국별로는 중국 조선족을 제외하고 어학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가운데, 중국 조선족은 컴퓨터/정보통신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중국 한족과 필리핀, 몽골, 태국, 일본의 경우도 어학 다음으로 컴퓨터/정보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캄보디아는 미용/피부, 베트남은 음식에 대한 관심이 어학 다음으로 높았다.

〈표 3-90〉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직업훈련 요구영역

(단위 : %, 명)

구분	어학	컴퓨터/정보통신	자동차정비/기계수리	의복	건설	농어업/원예	음식	보육	간병/간호	가사도우미	미용/피부	운전면허	기타	계
중국 (조선족)	12.3	30.5	0.4	2.7	0.4	1.5	13.5	6.1	8.3	0.9	8.8	11.3	3.4	100.0 (791)
중국 (한족 등)	53.8	12.3	0.8	2.0	0.2	0.7	6.6	2.2	1.7	1.3	9.9	6.2	2.2	100.0 (860)
베트남	30.9	3.9	0.1	14.5	0.1	2.9	21.1	3.5	1.6	1.0	12.7	5.1	2.6	100.0 (1,155)
필리핀	46.0	12.3	2.0	4.7	0.2	1.9	9.8	1.5	3.4	0.3	3.4	10.5	4.0	100.0 (593)
몽골	42.0	26.0	0.0	2.0	6.0	0.0	10.0	2.0	2.0	0.0	6.0	2.0	2.0	100.0 (50)
태국	42.4	13.6	0.0	1.7	0.0	1.7	10.2	1.7	5.1	0.0	6.8	10.2	6.8	100.0 (59)
캄보디아	44.3	10.3	0.5	10.8	0.0	0.0	10.3	1.1	2.2	0.5	13.5	4.9	1.6	100.0 (185)
일본	27.8	34.9	0.0	2.8	0.0	0.9	3.3	2.8	10.4	0.0	3.3	4.7	9.0	100.0 (212)
북미·호주·서유럽	64.3	0.0	0.0	0.0	0.0	21.4	0.0	0.0	0.0	0.0	0.0	0.0	14.3	100.0 (14)
기타	28.6	15.3	6.1	3.1	0.0	0.0	5.1	5.1	3.1	0.0	18.4	12.2	3.1	100.0 (98)

시군별로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요구영역을 비교해보면, 어학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가운데, 어학 다음으로 관심이 높은 영역으로 전주와 정읍, 김

제, 진안, 장수, 순창은 컴퓨터/정보통신을, 군산은 음식, 익산은 컴퓨터/정보통신, 음식, 남원, 고창, 부안은 컴퓨터/정보통신과 음식, 완주와 무주, 임실은 음식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표 3-91〉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요구영역

(단위 : %, 명)

시·군	어학	컴퓨터/정보통신	자동차정비/기계수리	의복	건설	농어업/원예	음식	보육	간병/간호	가사도우미	미용/피부	운전면허	기타	계
전주	31.8	17.3	1.2	7.3	0.1	0.5	13.0	2.8	3.1	1.4	12.2	5.6	3.5	100.0 (738)
군산	44.7	8.4	0.7	6.7	0.0	1.0	14.6	2.7	5.2	0.7	6.5	6.2	2.5	100.0 (403)
익산	39.6	13.7	0.5	5.8	0.2	1.4	13.2	1.4	2.6	0.5	10.7	7.6	2.6	100.0 (568)
정읍	26.1	17.3	0.6	7.1	0.6	2.0	8.2	4.8	4.5	1.4	11.6	11.6	4.0	100.0 (352)
남원	38.6	11.6	0.5	9.2	0.0	2.4	10.6	5.8	1.9	0.5	9.2	7.2	2.4	100.0 (207)
김제	32.5	15.6	0.7	4.1	0.3	0.7	10.2	4.4	10.2	0.3	11.5	5.8	3.7	100.0 (295)
완주	36.2	10.1	0.0	7.3	0.3	2.1	16.4	3.5	1.7	0.7	10.1	8.4	3.1	100.0 (287)
진안	29.6	19.7	0.0	9.2	0.0	2.6	13.2	3.9	1.3	2.0	5.9	5.3	7.2	100.0 (152)
무주	38.7	9.0	0.9	9.0	0.9	0.0	16.2	5.4	3.6	0.9	9.9	5.4	0.0	100.0 (111)
장수	38.1	22.3	0.7	5.0	0.0	5.0	10.1	2.9	1.4	0.0	2.2	12.2	0.0	100.0 (139)
임실	32.2	11.6	0.8	9.1	0.8	3.3	13.2	3.3	3.3	0.0	10.7	8.3	3.3	100.0 (121)
순창	32.0	21.7	0.6	2.3	0.0	2.9	10.9	4.6	5.7	0.0	7.4	5.7	6.3	100.0 (175)
고창	34.9	15.9	0.4	7.4	0.0	3.5	15.1	2.7	2.3	0.0	5.0	8.1	4.7	100.0 (258)
부안	37.1	14.3	1.0	4.8	0.0	1.9	11.0	3.3	4.3	0.5	7.6	11.0	3.3	100.0 (210)

제 3 절 자녀양육 및 교육현황

1. 자녀구성 및 추가자녀 계획

1) 현존자녀수 및 특성

결혼이민자가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수를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인 경우가 3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없는 경우가 32.1%, 2명 이상의 경우는 29.4%였다. 전체 다문화가족의 평균 현존자녀수는 1.1명으로 전국 평균 0.9명보다 많았으며, 특히 2자녀 이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2〉 전북과 전국의 다문화가족 현 배우자와의 현존자녀수

(단위 : %, 명)

구분	현존자녀수 분포				평균 현존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계(수)
전북	32.1	38.5	22.6	6.8	100.0 (5,121)	1.1
전국	39.3	38.4	18.2	4.1	100.0 (120,847)	0.9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현존자녀수를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평균 현존 자녀수는 1.2명으로 동지역 0.9명보다 많았다. 35-39세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 연령층은 0.5명으로 가장 적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수가 많은 경향이 있으나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 부부의 경우 한 쪽이나 양 쪽 모두 재혼인 경우가 영향을 준 것이라 판단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았는데 이 역시 일반적 경향성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최근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하나가 저학력화 되는 경향성이라고 할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훨씬 더 과거에 입국한 결혼이민자일 가능성이 높다. 즉, 체류기간이 오래된 결혼이민자일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교육수준별 자녀수의 차이는 전적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라기보다 체류기간 효과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혼인상태별로는 별 차이가 없었으며, 체류기간은 기간이 길수록 자녀수가 많았다.

〈표 3-93〉 전북의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현 배우자와의 현존자녀수

(단위 : %, 명)

구분		현존자녀수 분포					평균 현존 자녀수
		0명	1명	2명	3명이상	계(수)	
지역	동지역	35.2	36.9	18.1	9.8	100.0 (2,337)	0.9
	읍면지역	26.5	35.8	23.6	14.1	100.0 (3,098)	1.2
연령	24세이하	38.2	45.9	6.2	9.7	100.0 (808)	0.6
	25~29세	24.9	49.9	19.3	5.9	100.0 (1,395)	1.0
	30~34세	21.0	40.8	28.0	10.1	100.0 (970)	1.2
	35~39세	22.1	28.1	33.5	16.3	100.0 (829)	1.4
	40~49세	35.8	21.9	23.1	19.2	100.0 (1,131)	1.2
	50세이상	65.4	8.3	8.3	17.9	100.0 (301)	0.5
교육 수준	초등학교이하	30.8	45.0	14.6	9.6	100.0 (520)	0.9
	중학교	36.8	38.3	17.6	7.3	100.0 (1,570)	0.9
	고등학교	29.4	35.6	22.2	12.8	100.0 (2,210)	1.1
	대학교이상	22.9	29.7	28.1	19.3	100.0 (1,082)	1.4
혼인 상태	유배우	60.0	21.0	16.2	2.8	100.0 (4,530)	1.1
	이혼	100.0	0.0	0.0	0.0	100.0 (79)	0.9
	사별	100.0	0.0	0.0	0.0	100.0 (32)	1.1
체류 기간	1년미만	76.0	11.3	1.2	11.5	100.0 (646)	0.2
	1~2년미만	38.1	53.8	1.6	6.5	100.0 (796)	0.6
	2~5년미만	22.6	50.6	20.9	5.9	100.0 (1,722)	1.0
	5~10년미만	19.0	28.6	38.4	13.9	100.0 (1,104)	1.4
	10년이상	11.9	18.0	41.6	28.5	100.0 (688)	1.9

출신국별로 현 자녀수를 살펴보면, 일본 결혼이민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필리핀과 태국으로 1.4명이었다. 반대로 중국 한족 등 0.6명으로 가장 적었고, 베트남, 캄보디아도 각각 0.9명, 0.8명으로 적은 자녀수를 가지고 있었다. 베트남, 캄보디아는 최근에 결혼이민이 증가한 국가들로 아직 결혼 초기에 해당하므로 자녀수가 적을 수 있으나, 중국 한족 출신 결혼이민자들이 오히려 이들보다 적은 자녀수를 가진 것에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여성들도 일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정체성이 강할 수 있으며, 중국의 인구억제 정책으로 저출산 문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표 3-94〉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현 배우자와의 현존자녀수

(단위 : %, 명)

구분	현존자녀수 분포					평균 현존 자녀수
	0명	1명	2명	3명이상	계(수)	
중국(조선족)	80.8	12.7	5.5	1.0	100.0 (1,059)	1.1
중국(한족 등)	50.2	29.2	18.1	2.5	100.0 (908)	0.6
베트남	46.1	23.5	27.1	3.3	100.0 (1,290)	0.9
필리핀	73.2	12.7	10.2	4.0	100.0 (600)	1.4
몽골	70.8	20.8	8.3	0.0	100.0 (48)	1.0
태국	67.2	9.4	18.8	4.7	100.0 (64)	1.4
캄보디아	36.9	30.1	26.7	6.3	100.0 (206)	0.8
일본	77.6	16.7	3.8	1.9	100.0 (312)	2.2
북미·호주·서유럽	66.7	16.7	0.0	16.7	100.0 (30)	1.0
기타	55.9	28.3	15.7	0.0	100.0 (127)	1.2

시군별로는 순창과 장수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진안 1.4명, 무주와 고창 1.3명, 임실 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산은 0.8명으로 자녀수가 가장 적었고, 전주, 익산도 0.9명으로 적은 자녀수를 가졌다.

〈표 3-95〉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현존 자녀수

(단위 : %, 명)

시·군	현존자녀수 분포					평균 현존 자녀수
	0명	1명	2명	3명이상	계(수)	
전주	59.4	21.9	16.0	2.7	100.0 (887)	0.9
군산	58.8	22.3	15.4	3.4	100.0 (408)	0.8
익산	59.4	23.7	13.9	3.1	100.0 (620)	0.9
정읍	65.7	18.3	13.5	2.5	100.0 (475)	1.1
남원	46.8	24.1	21.4	7.7	100.0 (220)	1.1
김제	62.6	23.9	11.5	1.9	100.0 (364)	1.0
완주	65.7	20.0	12.8	1.5	100.0 (335)	1.1
진안	63.0	16.2	17.3	3.5	100.0 (173)	1.4
무주	60.4	18.1	18.1	3.4	100.0 (149)	1.3
장수	71.8	14.1	11.5	2.6	100.0 (156)	1.5
임실	63.1	18.8	16.8	1.3	100.0 (149)	1.2
순창	60.6	12.1	24.2	3.0	100.0 (198)	1.5
고창	59.2	19.1	20.2	1.4	100.0 (282)	1.3
부안	61.1	17.5	18.8	2.6	100.0 (229)	1.0

2) 자녀의 연령

결혼이민자의 전체 자녀의 연령분포는 6세 미만이 3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6-11세는 35.4%, 중학교 취학연령인 12-14세는 13.3%, 고등학교 취학연령인 15-17세는 5.5% 등의 순이었다. 이는 전국의 연령 분포와 비교하여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전국의 경우 미취학 연령이 전체의 2/3 정도인 데 비하면 전북은 초등학교 취학연령과 중학교 취학연령이 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라북도의 경우 결혼이민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이다. 즉, 한국에서 결혼이민의 시작은 농촌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 와서 도시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결혼이민의 역사는 전국 평균보다 오래되었다.

〈표 3-96〉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 자녀 연령분포

(단위 : %, 명)

구분	전북		전국	
	분석대상	비율	분석대상	비율
6세 미만	2,060	39.6	64,015	67.7
6~11세	1,842	35.4	22,601	23.9
12~14세	692	13.3	4,308	4.5
15~17세	444	5.5	1,244	1.3
18세 이상	166	3.2	2,423	2.6

3) 현 임신여부 및 추가희망 자녀수

현재 임신 중인 다문화가족은 15.4%로 전국 응답률보다 높았다. 추가희망 자녀수의 경우는 없는 경우가 6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명으로 20.5%였으며, 추가희망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는 18.6%였다. 다문화가족의 추가희망 평균 자녀수는 0.6명이었다.

〈표 3-97〉 전북과 전국의 다문화가족 현재 임신여부 및 추가희망 자녀수

(단위 : %, 명)

구분	현 임신여부		추가희망 자녀수 분포					평균추가 희망자녀 수
	분석 대상	현 임신율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계 (수)	
전북	4,645	15.4	61.0	20.5	15.8	2.8	100.0 (4,643)	0.6
전국	107,422	10.3	64.6	21.2	12.4	1.8	100.0 (110,872)	0.5

현 임신율은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약간 높았고, 추가희망 자녀수는 차이가 없었다. 현 임신율은 결혼이민자의 연령에 반비례하였다. 2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임신율은 28.0%로 가장 많았고, 25-29세 연령층도 23.3%였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신율은 급격히 낮아졌다. 추가희망 자녀수도 연령에 반비례하여 연령이 어릴수록 희망자녀수가 많았다.

교육수준별 현 임신율도 학력수준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이하의 결혼이민자의 임신율이 가장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신율은 저하되었다. 이는 입국년도 및 연령과 교육수준이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추가희망자녀수도 교육수준과 반비례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어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체류기간과도 현 임신율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입국년도 및 결혼지속 기간, 연령 등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즉 체류기간이 길수록 원하는 출산을 이미 하였기 때문에 현 임신율은 낮았다. 추가희망 자녀수도 체류기간에 반비례하였다. 1년 미만 거주한 결혼이민자의 70.2%, 1년~2년 미만 거주한 결혼이민자의 69%가 1명 이상의 추가자녀를 희망하였다.

〈표 3-98〉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임신여부 및 추가희망 자녀수

(단위 : %, 명)

구분	현 임신여부		추가희망 자녀수 분포					평균추 기희망 자녀수	
	분석 대상	현 임신율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계		
지역	동지역	1,971	13.0	61.2	22.5	13.7	2.7	100.0 (1,995)	0.6
	읍면지역	2,675	15.0	60.8	18.9	17.4	2.9	100.0 (2,650)	0.6
연령	24세이하	689	28.0	29.1	31.4	25.2	4.3	100.0 (673)	1.2
	25~29세	1,204	23.3	49.6	23.8	22.7	4.0	100.0 (1,204)	0.8
	30~34세	842	13.5	57.5	25.0	15.2	2.3	100.0 (835)	0.6
	35~39세	739	5.8	57.5	25.0	15.2	2.3	100.0 (724)	0.4
	40~49세	957	2.7	84.1	12.3	2.8	0.8	100.0 (976)	0.2
	50세이상	214	0.0	96.5	0.4	1.7	1.3	100.0 (231)	0.1
교육 수준	초등학교이하	440	18.4	56.2	22.9	18.8	2.1	100.0 (436)	0.7
	중학교	1,335	14.8	56.3	21.4	20.0	2.3	100.0 (1,338)	0.7
	고등학교	1,891	14.2	62.6	20.0	14.6	2.8	100.0 (1,906)	0.6
	대학교이상	947	11.0	67.1	18.9	10.6	3.5	100.0 (926)	0.5
체류 기간	1년미만	583	36.2	29.8	28.3	37.	4.5	100.0 (554)	1.2
	1~2년미만	692	18.8	39.4	31.0	26.4	3.2	100.0 (690)	0.9
	2~5년미만	1,464	12.2	59.7	23.1	14.4	2.8	100.0 (1,467)	0.6
	5~10년미만	948	5.8	78.9	13.7	5.4	2.0	100.0 (961)	0.3
	10년이상	607	2.8	92.9	5.0	1.8	0.3	100.0 (624)	0.1

출신국별 차이를 비교하면, 현 임신율은 몽골이 25.5%로 가장 높았고, 비교적 최근에 입국한 결혼이민자가 많은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자가 각각 22.5%, 23.6%로 높았다. 평균 추가희망자녀수도 베트남 0.9명, 캄보디아 1.0명으로 다른 국가 결혼이민자보다 많았다. 일본과 중국 조선족은 추가희망자녀수가 0.3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3-99〉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임신여부 및 추가희망 자녀수

(단위 : %, 명)

구분	현 임신여부		추가희망 자녀수 분포					평균추가희망 자녀수
	분석대상	현 임신율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계	
중국(조선족)	1,037	7.2	80.8	12.7	5.5	1.0	100.0(1,059)	0.3
중국(한족 등)	910	14.7	50.2	29.2	18.1	2.5	100.0 (908)	0.7
베트남	1,272	22.5	46.1	23.5	27.1	3.3	100.0(1,290)	0.9
필리핀	623	11.1	73.2	12.7	10.2	4.0	100.0 (600)	0.5
몽골	51	25.5	70.8	20.8	8.3	0.0	100.0 (48)	0.4
태국	67	7.5	67.2	9.4	18.8	4.7	100.0 (64)	0.6
캄보디아	212	23.6	36.9	30.1	26.7	6.3	100.0 (206)	1.0
일본	323	3.7	77.6	16.7	3.8	1.9	100.0 (312)	0.3
북미·호주·서유럽	25	0.0	66.7	16.7	0.0	16.7	100.0 (30)	0.6
기타	126	10.3	55.9	28.3	15.7	0.0	100.0 (127)	0.6

시군별 현 임신율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익산이 16.4%, 완주 16.2%로 높았고, 김제 15.9%, 남원 15.5%, 장수 14.4%, 군산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추가희망자녀수도 시군별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남원이 0.9명으로 가장 많고, 김제, 완주, 장수가 0.5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3-100〉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임신여부 및 추가희망 자녀수

(단위 : 명, %)

시·군	현 임신여부		추가희망 자녀수 분포					평균추가희망 자녀수
	분석대상	현 임신율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계	
전주	855	12.7	527	194	142	24	100.0 (887)	0.6
군산	409	14.2	58.8	22.3	15.4	3.4	100.0 (408)	0.6
익산	621	16.4	59.4	23.7	13.9	3.1	100.0 (620)	0.6
정읍	468	12.4	65.7	18.3	13.5	2.5	100.0 (475)	0.5
남원	233	15.5	46.8	24.1	21.4	7.7	100.0 (220)	0.9
김제	359	15.9	62.6	23.9	11.5	1.9	100.0 (364)	0.5
완주	333	16.2	65.7	20.0	12.8	1.5	100.0 (335)	0.5
진안	175	11.4	63.0	16.2	17.3	3.5	100.0 (173)	0.6
무주	146	10.3	60.4	18.1	18.1	3.4	100.0 (149)	0.7
장수	160	14.4	71.8	14.1	11.5	2.6	100.0 (156)	0.5
임실	152	12.5	63.1	18.8	16.8	1.3	100.0 (149)	0.6
순창	210	15.2	60.6	12.1	24.2	3.0	100.0 (198)	0.7
고창	292	12.3	59.2	19.1	20.2	1.4	100.0 (282)	0.6
부안	233	15.9	61.1	17.5	18.8	2.6	100.0 (229)	0.6

4) 기대자녀수

앞에서 기술한 현존 자녀수와 추가희망자녀수를 합하면 기대자녀수가 산출된다.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의 기대자녀수는 1.7명으로 전국 1.4명보다 많았다.

〈표 3-101〉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현 배우자와의 기대자녀수

(단위 : 명)

구분	평균 현존자녀수	평균 추가희망자녀수	기대자녀수
전북	1.1	0.6	1.7
전국	0.9	0.5	1.4

읍면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기대자녀수는 1.8명으로 동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기대자녀수 1.5명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까지는 1.8명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40대, 50대 이상에서 적어졌다. 교육수준별로도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대자녀수가 다소 많았음을 보여 준다. 체류기간은 기대자녀수와 정확하게 비례하는데 체류기간이 길수록 기대자녀수는 많았다.

〈표 3-102〉 전북과 전국의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기대자녀수

(단위 : 명)

구분		평균 현존자녀수	평균 추가희망자녀수	기대자녀수
지역	동지역	0.9	0.6	1.5
	읍면지역	1.2	0.6	1.8
연령	24세이하	0.6	1.2	1.8
	25~29세	1.0	0.8	1.8
	30~34세	1.2	0.6	1.8
	35~39세	1.4	0.4	1.8
	40~49세	1.2	0.2	1.4
	50세이상	0.5	0.1	0.6
교육 수준	초등학교이하	0.9	0.7	1.6
	중학교	0.9	0.7	1.6
	고등학교	1.1	0.6	1.7
	대학교이상	1.4	0.5	1.9
체류 기간	1년미만	0.2	1.2	1.4
	1~2년미만	0.6	0.9	1.5
	2~5년미만	1.0	0.6	1.6
	5~10년미만	1.4	0.3	1.7
	10년이상	1.9	0.1	2

출신국별 기대자녀수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기대자녀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2.5명이었고, 다음은 태국 2명의 순이었다. 기대 자녀수가 낮은 국가는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 몽골로 각각 1.3, 1.4, 1.4명이었다.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은 국가인 중국 조선족과 중국 한족 등의 기대자녀수가 낮은 것으로 비추어보아 결혼이민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3-103〉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기대자녀수

(단위 : 명)

구분	평균 현존자녀수	평균추가희망자녀수	기대자녀수
중국(조선족)	1.1	0.3	1.4
중국(한족 등)	0.6	0.7	1.3
베트남	0.9	0.9	1.8
필리핀	1.4	0.5	1.9
몽골	1.0	0.4	1.4
태국	1.4	0.6	2
캄보디아	0.8	1.0	1.8
일본	2.2	0.3	2.5
북미·호주·서유럽	1.0	0.6	1.6
기타	1.2	0.6	1.8

시군별 기대자녀수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순창 2.2명, 무주, 진안, 장수, 남원 2명으로 많았고, 반대로 낮은 지역은 전주, 군산으로 각각 1.5명, 1.4명의 기대자녀수를 가졌다. 대체로 군 지역에서 기대자녀수가 시 지역보다 많았다.

〈표 3-104〉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기대자녀수

(단위 : 명)

시·군	평균 현존 자녀수	평균추가희망자녀수	기대자녀수
전주	0.9	0.6	1.5
군산	0.8	0.6	1.4
익산	0.9	0.6	1.5
정읍	1.1	0.5	1.6
남원	1.1	0.9	2
김제	1.0	0.5	1.5
완주	1.1	0.5	1.6
진안	1.4	0.6	2
무주	1.3	0.7	2
장수	1.5	0.5	2
임실	1.2	0.6	1.8
순창	1.5	0.7	2.2
고창	1.3	0.6	1.9
부안	1.0	0.6	1.6

2. 미취학 자녀의 양육 및 보호

1) 미취학 자녀 보호시설 및 기관

전북 다문화가족의 미취학 자녀의 보육·교육시설 이용률은 60.8%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시설의 유형에는 어린이집이 55.4%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42.9%로 나타났다.

〈표 3-105〉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미취학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 또는 기관

(단위 : 명, %)

구분	시설 이용률		보내는 시설 또는 기관				계(수)
	분석대상	이용률	유치원	어린이집	사설학원	기타	
전북	2,529	60.8	42.9	55.4	0.9	0.8	100.0 (1,517)
전국	50,167	57.0	40.0	57.4	1.2	1.4	100.0 (28,281)

미취학자녀의 보육·교육시설 이용률은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높았고, 30대 연령층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 이용률은 낮아지는 반면 유치원 이용률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취학 준비기 연령대의 자녀가 많고, 이 경우 보육 시설보다 교육시설을 더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시설 이용률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고 유배우 상태는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체류기간에 따라서는 이용률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1-2년 미만 체류자의 이용률이 가장 낮았고, 다음은 1년 미만 체류자의 이용률이 낮았으며, 그 외는 체류기간의 증가에 따라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3-106〉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미취학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 또는 기관

(단위 : 명, %)

구분		시설 이용률		보내는 시설 또는 기관				
		분석대상	이용률	유치원	어린이집	사설학원	기타	계(수)
지역	동지역	986	63.0	41.4	56.3	1.1	1.1	100.0 (616)
	읍면지역	1,544	59.4	44.0	54.8	0.7	0.6	100.0 (901)
연령	24세이하	354	33.9	31.7	66.7	1.7	0.0	100.0 (120)
	25~29세	855	54.7	35.9	61.7	0.9	1.5	100.0 (459)
	30~34세	592	67.2	45.3	53.5	1.0	0.3	100.0 (391)
	35~39세	382	76.2	51.7	47.9	0.3	0.0	100.0 (290)
	40~49세	328	75.0	47.9	50.8	0.4	0.8	100.0 (242)
	50세이상	328	75.0	50.0	50.0	0.0	0.0	100.0 (12)
교육 수준	초등학교이하	273	54.6	32.6	66.0	0.7	0.7	100.0 (144)
	중학교	708	55.5	35.4	63.8	0.3	0.5	100.0 (387)
	고등학교	1,003	60.8	47.0	51.3	0.8	0.8	100.0 (604)
	대학교이상	512	72.7	49.1	48.8	1.1	1.1	100.0 (369)
혼인 상태	유배우	2,486	60.3	42.9	55.6	0.9	0.7	100.0 (1,477)
	이혼	29	96.6	46.4	53.6	0.0	0.0	100.0 (28)
	사별	12	91.7	45.5	45.5	0.0	9.1	100.0 (11)
체류 기간	1년미만	56	37.5	70.0	25.0	5.0	0.0	100.0 (20)
	1~2년미만	361	16.1	50.9	49.1	0.0	0.0	100.0 (57)
	2~5년미만	1,075	57.6	34.7	63.3	0.8	1.1	100.0 (611)
	5~10년미만	674	86.6	50.1	49.2	0.5	0.2	100.0 (579)
	10년이상	164	76.2	46.3	52.0	0.8	0.8	100.0 (123)

결혼이민자 중 미취학자녀의 보육·교육시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이민자의 출신국은 태국으로 83.3%였고, 가장 낮은 출신국은 캄보디아로 23.9%였다. 이는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가장 최근에 많이 입국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는 너무 어려 시설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3-107〉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미취학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 또는 기관

(단위 : 명, %)

구분	시설 이용률		보내는 시설 또는 기관				계
	분석대상	이용률	유치원	어린이집	사설학원	기타	
중국(조선족)	402	71.4	44.5	54.4	1.1	0.0	100.0 (283)
중국(한족 등)	351	53.3	59.5	38.4	1.1	1.1	100.0 (185)
베트남	959	54.0	27.6	70.8	0.8	0.8	100.0 (510)
필리핀	359	76.9	57.9	39.6	0.7	1.8	100.0 (273)
몽골	28	53.6	60.0	40.0	0.0	0.0	100.0 (15)
태국	48	83.3	47.4	50.0	2.6	0.0	100.0 (38)
캄보디아	134	23.9	31.3	68.8	0.0	0.0	100.0 (32)
일본	158	70.3	46.4	51.8	0.9	0.9	100.0 (110)
북미·호주·서유럽	15	80.0	50.0	50.0	0.0	0.0	100.0 (12)
기타	76	78.9	38.4	61.7	0.0	0.0	100.0 (60)

미취학자녀의 보육·교육시설 이용률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순창이 66.7%로 가장 높았고, 김제 66.3%, 완주 65.4%, 익산 64.8%, 전주 64.4%로 높았다. 반면 무주, 장수가 각각 48.0%, 49.1%로 가장 낮았다. 시설 유형에서도 시군별 차이가 발견되는데,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완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은 어린이집 이용률이 50% 이상이며, 반대로 남원, 진안, 문주, 장수는 유치원 이용률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3-108〉 전북 14개 시·군별 미취학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 또는 기관

(단위 : 명, %)

시·군	시설 이용률		보내는 시설 또는 기관				
	분석대상	이용률	유치원	어린이집	사설학원	기타	계(수)
전주	402	64.4	38.0	61.2	0.4	0.4	100.0 (258)
군산	193	55.4	46.2	51.9	1.9	0.0	100.0 (106)
익산	332	64.8	48.3	49.3	1.0	1.4	100.0 (209)
정읍	245	57.1	39.6	59.7	0.7	0.0	100.0 (139)
남원	130	63.8	53.8	43.8	1.3	1.3	100.0 (80)
김제	205	66.3	33.8	60.9	2.3	3.0	100.0 (133)
완주	208	65.4	32.6	66.7	0.0	0.7	100.0 (135)
진안	113	58.4	52.3	44.6	1.5	1.5	100.0 (65)
무주	98	48.0	52.2	47.8	0.0	0.0	100.0 (46)
장수	106	49.1	60.4	39.6	0.0	0.0	100.0 (53)
임실	97	55.7	41.5	58.5	0.0	0.0	100.0 (53)
순창	111	66.7	36.5	62.2	1.4	0.0	100.0 (74)
고창	187	57.8	47.2	52.8	0.0	0.0	100.0 (106)
부안	101	58.4	45.8	54.2	0.0	0.0	100.0 (59)

2) 미취학 자녀를 시설·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 및 돌보는 사람

미취학 자녀를 보육시설·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만 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아서’ 46.9%,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안 되어서’ 15.1%, ‘보육료 부담이 되어서’ 8.2% 등이었다. 전국 조사결과는 보육료 부담이 2순위,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안 되어서가 3순위인 반면, 전북의 조사결과는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안 되어서’가 2순위로 나타났다.

〈표 3-109〉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미취학 자녀를 시설 또는 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

(단위 : %, 명)

구분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안되어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어서	만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아서	보육 시간이 맞지 않아서	보육료 부담 되어서	입학거부 나차별, 놀림을 받을까봐	기타	계(수)
전북	15.1	4.8	46.9	1.3	8.2	0.4	23.2	100.0 (913)
전국	13.3	3.1	44.4	2.2	13.7	0.7	22.7	100.0 (19,862)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영아를 받아줄 시설 부족’을 더 지적하였고, 동지역의 경우 보육료 부담을 더 지적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영아를 받아줄 시설부족’을 많이 지적하였고, 그 외에는 일관된 경향성을 찾기 어렵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영아를 받아줄 시설 부족’이 높았고, 반대로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안 된다’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체류기간이 길수록 ‘보육료 부담’과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안 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반대로 ‘영아를 받아줄 시설부족’은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높았다.

〈표 3-110〉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미취학 자녀를 시설 또는 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

(단위 : %, 명)

구분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안되어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어서	만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아서	보육시간이 맞지 않아서	보육료 부담 되어서	입학 거부나 차별, 놀림을 받을 까봐	기타	계(수)
지역	동지역	18.5	1.5	40.6	1.5	13.6	0.0	24.2	100.0 (330)
	읍면지역	13.2	6.7	50.4	1.2	5.1	0.7	22.6	100.0 (583)
연령	24세이하	15.3	3.2	55.6	0.9	4.6	0.0	20.4	100.0 (216)
	25~29세	14.0	5.6	48.9	2.0	7.9	0.6	21.1	100.0 (356)
	30~34세	18.2	6.6	43.1	0.0	10.5	0.0	21.5	100.0 (181)
	35~39세	10.7	2.4	44.0	3.6	7.1	1.2	31.0	100.0 (84)
	40~49세	15.5	4.2	23.9	0.0	15.5	0.0	40.8	100.0 (71)
	50세이상	50.0	0.0	50.0	0.0	0.0	0.0	0.0	100.0 (2)
교육 수준	초등학교이하	12.8	4.3	50.4	1.7	12.8	0.0	17.9	100.0 (117)
	중학교	13.4	4.9	57.0	0.4	4.6	0.7	19.0	100.0 (284)
	고등학교	17.0	5.2	43.0	1.9	9.6	0.3	23.0	100.0 (365)
	대학교이상	17.7	3.8	32.3	0.8	9.2	0.0	36.2	100.0 (130)
체류 기간	1년미만	7.4	0.0	51.9	0.0	3.7	0.0	37.0	100.0 (27)
	1~2년미만	12.8	2.9	58.2	0.7	3.7	0.4	21.2	100.0 (273)
	2~5년미만	16.7	6.3	44.0	1.9	10.6	0.2	20.4	100.0 (432)
	5~10년미만	19.0	6.0	25.0	3.6	13.1	1.2	32.1	100.0 (84)
	10년이상	16.7	2.8	25.0	0.0	13.9	0.0	41.7	100.0 (36)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미취학 자녀를 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만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아서’는 중국 한족, 태국, 베트남 등이 각각 65.5%, 66.7%, 54.6%로 가장 많았고,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안 되어서’는 필리핀, 캄보디아가 각각 27.4%, 18.0%로 가장 많았다. 보육료 부담은 중국 조선족이 13.8%로 높은 편이었다.

〈표 3-111〉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미취학 자녀를 시설 또는 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

(단위 : %, 명)

구분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안되어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어서	만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아서	보육시간이 맞지 않아서	보육료 부담 되어서	입학 거부나 차별, 놀림을 받을 까봐	기타	계(수)
중국(조선족)	14.7	2.8	37.6	4.6	13.8	0.0	26.6	100.0 (109)
중국(한족 등)	9.2	1.4	65.5	1.4	6.3	0.0	16.2	100.0 (142)
베트남	15.4	6.0	54.6	0.5	7.2	1.0	15.4	100.0 (416)
필리핀	27.4	9.6	15.1	0.0	8.2	0.0	39.7	100.0 (73)
몽골	8.3	8.3	25.0	8.3	0.0	0.0	50.0	100.0 (12)
태국	0.0	0.0	66.7	0.0	16.7	0.0	16.7	100.0 (6)
캄보디아	18.0	4.5	38.2	1.1	9.0	0.0	29.2	100.0 (89)
일본	13.3	0.0	24.4	0.0	8.9	0.0	53.5	100.0 (45)
북미·호주·서유럽	0.0	0.0	0.0	0.0	0.0	0.0	100.0	100.0 (3)
기타	11.8	11.8	29.4	0.0	11.8	0.0	35.3	100.0 (17)

시군별 결혼이민자가 미취학 자녀를 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만 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아서’가 50% 이상인 지역은 전주, 군산, 완주, 무주, 장수, 순창이었고,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안 되어서’는 김제, 익산이 각각 37.5%, 24.5%로 가장 높았다. 보육료 부담을 많이 지격한 시군은 전주, 임실, 익산으로 각각 15.2%, 14.6%, 13.6%로 나타났다.

〈표 3-112〉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미취학 자녀를 시설 또는 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

(단위 : %, 명)

시·군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안되어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어서	만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아서	보육 시간이 맞지 않아서	보육료 부담 되어서	입학거부 나차별, 놀림을 받을까봐	기타	계(수)
전주	12.1	1.5	50.0	1.5	15.2	0.0	19.7	100.0 (132)
군산	16.2	0.0	58.8	1.5	2.9	0.0	20.6	100.0 (68)
익산	24.5	1.8	36.4	2.7	13.6	0.0	20.9	100.0 (110)
정읍	17.5	5.2	24.7	0.0	11.3	0.0	41.2	100.0 (97)
남원	19.5	14.6	36.6	0.0	2.4	0.0	26.8	100.0 (41)
김제	37.5	1.6	29.7	0.0	7.8	0.0	23.4	100.0 (64)
완주	8.3	0.0	69.4	4.2	4.2	1.4	12.5	100.0 (72)
진안	4.7	16.3	44.2	2.3	4.7	0.0	27.9	100.0 (43)
무주	2.2	17.4	63.0	0.0	2.2	0.0	15.2	100.0 (46)
장수	5.7	9.4	64.2	0.0	1.9	0.0	18.9	100.0 (53)
임실	2.4	4.9	48.8	0.0	14.6	0.0	29.3	100.0 (41)
순창	5.7	2.9	65.7	0.0	2.9	0.0	22.9	100.0 (35)
고창	16.7	1.4	48.6	1.4	6.9	2.8	22.2	100.0 (72)
부안	17.9	7.7	35.9	2.6	7.7	0.0	28.2	100.0 (39)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86.9%로 가장 많았다. 이는 거주 지역별로 특징적 차이를 보이는데, 읍면 지역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동지역보다 좀 많았고, ‘봐주는 사람 없이 아이 혼자 지냄’의 비율은 동지역이 읍면 지역의 두 배인 6.2%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상관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돌본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교육수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교육수준별 차이에서 특징적인 것은 결혼이민자가 학력이 높을수록, 특히 대졸 이상인 경우 ‘기타 가족’이 돌본다는 비율이 높았다. 체류기간은 1-2년 미만인 경우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90.4%로 가장 높았고 체류기간이 길수록 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체류기간 5-10년 미만에서 ‘기타가족’이 돌본다는 응답이 16.3%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13〉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보육·교육시설(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

(단위 : %, 명)

구분	봐주는 사람 없음(아이혼 자 지냄)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가족	파출부· 도우미	이웃·친구 (아이만 보는 사람)	기타	계(수)
전북	4.2	86.9	7.7	0.1	0.2	0.8	100.0 (854)
전국	4.1	82.3	10.8	0.6	0.4	1.7	100.0 (18,577)

〈표 3-114〉 전북 결혼이민자의 보육·교육시설(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

(단위 : %, 명)

구분		봐주는 사람 없음 (아이혼자 지냄)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가족	파출부· 도우미	이웃·친구 (아이만 보는 사람)	기타	계
지역	동지역	6.2	84.9	7.5	0.3	0.3	0.7	100.0(305)
	읍면지역	3.1	88.1	7.8	0.0	0.2	0.7	100.0(548)
연령	24세이하	3.5	91.5	4.0	0.0	0.0	1.0	100.0(201)
	25~29세	6.0	83.4	9.6	0.3	0.3	0.3	100.0(332)
	30~34세	1.2	88.2	8.3	0.0	0.0	2.4	100.0(169)
	35~39세	1.3	93.5	5.2	0.0	0.0	0.0	100.0(77)
	40~49세	6.8	81.1	10.8	0.0	1.4	0.0	100.0(74)
	50세이상	50.0	50.0	0.0	0.0	0.0	0.0	100.0(2)
교육 수준	초등학교이하	3.7	91.7	3.7	0.9	0.0	0.0	100.0(109)
	중학교	8.5	83.4	6.9	0.0	0.0	1.2	100.0(259)
	고등학교	2.0	87.6	8.9	0.0	0.3	1.2	100.0(347)
	대학교이상	0.8	88.1	10.3	0.0	0.8	0.0	100.0(126)
혼인 상태	유배우	4.2	87.0	7.8	0.1	0.2	0.7	100.0(851)
	이혼	0.0	100.0	0.0	0.0	0.0	0.0	100.0(1)
	사별	0.0	0.0	0.0	0.0	0.0	100.0	100.0(1)
체류 기간	1년미만	3.6	78.6	10.7	0.0	0.0	7.1	100.0(28)
	1~2년미만	5.8	90.4	3.5	0.4	0.0	0.0	100.0(260)
	2~5년미만	4.0	87.4	7.6	0.0	0.3	0.8	100.0(397)
	5~10년미만	1.3	81.3	16.3	0.0	0.0	1.3	100.0(80)
	10년이상	0.0	91.2	2.9	0.0	2.9	2.9	100.0(34)

출신국별 차이와 무관하게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돌보는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 기타 가족이 돌보는 경우는 일본,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등이 각각 10.6%, 10.3%, 10.2%로 높았고, 보육·교육 시설에 보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중국 한족과 베트남이 각각 5.5%, 5.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3-115〉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보육·교육시설(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

(단위 : %, 명)

구분	봐주는 사람 없음(아이 혼자 지냄)	보인 또는 배우자	기타 가족	파출부· 도우미	이웃·친구 (아이만 보는 사람)	기타	계
중국(조선족)	3.1	83.5	10.3	0.0	0.0	3.1	100.0 (97)
중국(한족 등)	5.5	84.4	10.2	0.0	0.0	0.0	100.0 (128)
베트남	5.1	86.7	7.7	0.0	0.3	0.3	100.0 (376)
필리핀	1.3	90.9	5.2	0.0	1.3	1.3	100.0 (77)
몽골	0.0	91.7	8.3	0.0	0.0	0.0	100.0 (12)
태국	0.0	100.0	0.0	0.0	0.0	0.0	100.0 (6)
캄보디아	4.3	92.6	2.1	1.1	0.0	0.0	100.0 (94)
일본	0.0	89.4	10.6	0.0	0.0	0.0	100.0 (47)
북미·호주·서유럽	0.0	100.0	0.0	0.0	0.0	0.0	100.0 (3)
기타	13.3	60.0	13.3	0.0	0.0	13.3	100.0 (15)

시군별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는 군산 10.3%, 남원 7.1%, 김제 6.8%, 무주 4.9%로 전라북도 평균 4.2%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이러한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타 가족이 돌보는 경우는 임실 20.0%로 가장 높았다.

〈표 3-116〉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보육·교육시설(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
(단위 : %, 명)

시·군	봐주는 사람 없음 (아이 혼자 지냄)	보인 또는 배우자	기타 가족	파출부·도우미	이웃·친구 (아이만 보는 사람)	기타	계
전주	4.0	89.6	5.6	0.8	0.0	0.0	100.0(125)
군산	10.3	79.3	10.3	0.0	0.0	0.0	100.0(58)
익산	3.1	82.7	13.3	0.0	0.0	1.0	100.0(98)
정읍	1.1	93.5	4.3	0.0	0.0	1.1	100.0(92)
남원	7.1	76.2	11.9	0.0	2.4	2.4	100.0(42)
김제	6.8	84.7	8.5	0.0	0.0	0.0	100.0(59)
완주	1.6	96.9	1.6	0.0	0.0	0.0	100.0(54)
진안	2.5	85.0	10.0	0.0	2.5	0.0	100.0(40)
무주	4.9	85.4	4.9	0.0	0.0	4.9	100.0(41)
장수	4.1	93.9	2.0	0.0	0.0	0.0	100.0(49)
임실	0.0	80.0	20.0	0.0	0.0	0.0	100.0(40)
순창	0.0	97.0	3.0	0.0	0.0	0.0	100.0(33)
고창	8.6	82.9	7.1	0.0	0.0	1.4	100.0(70)
부안	2.5	92.5	5.0	0.0	0.0	0.0	100.0(40)

3.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보호

1) 방과후 초등학생 자녀 돌보는 사람

가족의 해체 및 저출산으로 인해 최근 아동 양육 및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다양하게 제공되는 편이나, 학령기 아동에 대한 관심은 영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결혼이민자의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32.5%가 본인 및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20.6%, 사설학원 12.2% 등이었으나, 아이 혼자 보내는 경우도 13.6%나 되어 방과 후 결혼이민자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전국 조사결과보다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라북도의 결혼이민자가 학령기 아동의 보호를 위해 공교육 기관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것은 향후 정책 수립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표 3-117〉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방과후 초등학생 자녀 돌보는 사람

(단위 : %, 명)

구분	아이혼자 지냄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가족	학교방과후프로그램	방과후보육시설	사설학원	기타	계(수)
전북	13.6	32.5	7.5	20.6	11.6	12.2	2.0	100.0 (683)
전국	14.2	40.1	8.9	13.3	6.9	13.3	3.3	100.0 (13,685)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는 사람을 살펴보면,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돌보는 비율이 높고, 반대로 읍면 지역은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율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는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는 24세 이하가 80%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39세까지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돌보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아이혼자 지내는 경우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아이의 연령이 높아지면

서 돌봄이나 보호가 덜 필요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아이 혼자 지내는 비율이 높았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는 초등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가 53.3%로 가장 높았고, 기타 가족이 돌보는 경우는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가 46.7%로 가장 높았다.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도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가 상대적으로 20% 이상으로 높았고,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가 중학교 이하의 경우보다 사설학원이나 방과 후 시설 이용도가 높은 편이었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본인 또는 배우자 비중이 높았으며, 이혼한 경우는 50%가 아이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한 경우는 학교나 학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체류기간별로는 기간에 따른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3-118〉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방과후 초등학생 자녀 돌보는 사람

(단위 : %, 명)

구분		아이혼 자 지냄	보인 또는 배우자	기타 가족	학교방 과후프 로그램	방과후 보육 시설	사설 학원	기타	계
지역	동지역	13.8	39.4	5.9	14.9	9.7	14.9	1.5	100.0 (269)
	읍면지역	14.9	29.4	8.3	23.0	11.3	10.7	2.5	100.0 (531)
연령	24세이하	0.0	80.0	0.0	20.0	0.0	0.0	0.0	100.0 (5)
	25~29세	0.0	38.5	38.5	7.7	15.4	0.0	0.0	100.0 (13)
	30~34세	9.5	43.2	6.8	16.2	10.8	9.5	4.1	100.0 (74)
	35~39세	15.2	27.2	8.7	22.5	10.9	14.5	1.1	100.0 (276)
	40~49세	14.7	34.3	5.8	20.1	10.4	11.9	1.0	100.0 (394)
	50세이상	23.7	28.9	5.3	18.4	13.2	10.5	0.0	100.0 (38)
교육 수준	초등학교이하	20.0	53.3	6.7	13.3	6.7	0.0	0.0	100.0 (15)
	중학교	20.7	28.1	9.1	24.8	5.8	8.3	3.3	100.0 (121)
	고등학교	15.1	34.2	46.7	20.9	11.0	10.7	1.0	100.0 (392)
	대학교이상	10.7	31.1	7.4	17.8	13.0	17.0	3.0	100.0 (270)
혼인 상태	유배우	13.9	33.5	7.5	20.4	10.4	12.2	2.2	100.0 (771)
	이혼	50.0	14.3	7.1	7.1	21.4	0.0	0.0	100.0 (14)
	사별	14.3	7.1	0.0	21.4	28.6	28.6	0.0	100.0 (14)
체류 기간	1년미만	20.0	20.0	60.0	0.0	0.0	0.0	0.0	100.0 (5)
	1~2년미만	33.3	16.7	0.0	50.0	0.0	0.0	0.0	100.0 (6)
	2~5년미만	0.0	42.1	5.3	31.6	21.1	0.0	0.0	100.0 (19)
	5~10년미만	15.1	36.6	8.6	14.7	12.9	11.5	0.7	100.0 (279)
	10년이상	15.1	29.5	6.3	23.4	9.6	12.9	3.1	100.0 (457)

출신국별로는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돌보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북미·호주·서유럽이었으며, 그 다음이 베트남(48.0), 태국(44.4) 순으로 높았다.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는 중국 조선족과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국가는 몽골(60.0), 중국 한족(35.7)이었고, 사설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몽골(20.0), 중국 조선족(16.7)이 높은 편이었다.

〈표 3-119〉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방과후 초등학생 자녀 돌보는 사람

(단위 : %, 명)

구분	아이혼자 지냄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가족	학교방과후프로그램	방과후보육시설	사설학원	기타	계
중국(조선족)	18.0	25.4	7.7	21.7	8.4	16.7	2.1	100.0 (323)
중국(한족 등)	14.3	26.2	4.8	35.7	9.5	0.0	0.0	100.0 (42)
베트남	4.0	48.0	20.0	16.0	8.0	4.0	0.0	100.0 (25)
필리핀	16.9	37.8	11.6	7.6	13.4	9.9	2.9	100.0 (172)
몽골	0.0	20.0	0.0	60.0	0.0	20.0	0.0	100.0 (5)
태국	11.1	44.4	0.0	33.3	11.1	0.0	0.0	100.0 (9)
캄보디아	0.0	0.0	0.0	0.0	0.0	0.0	0.0	0.0 (0)
일본	8.9	37.0	3.6	26.6	13.0	9.4	1.5	100.0 (192)
북미·호주·서유럽	0.0	100.0	0.0	0.0	0.0	0.0	0.0	100.0 (2)
기타	11.5	50.0	7.7	11.5	11.5	7.7	0.0	100.0 (26)

시군별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가 가장 낮은 지역은 임실 지역으로 15.0%이고, 다음이 무주 16.7%로 낮았다.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도 임실 25.0%, 순창 22.4%로 높았고,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이 높은 지역은 순창 28.4%, 진안 26.7%, 부안 26.4% 순으로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익산으로 10.8%였다.

〈표 3-120〉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방과후 초등학생 자녀 돌보는 사람

(단위 : %, 명)

시·군	아이혼자 지냄	보인 또는 배우자	기타 가족	학교방과 후프로그램	방과후 보육시설	사설 학원	기타	계
전주	14.5	35.1	6.1	14.5	10.7	16.0	3.1	100.0 (131)
군산	9.4	56.3	6.3	15.6	3.1	9.4	0.0	100.0 (32)
익산	13.5	50.0	6.8	10.8	6.8	12.2	0.0	100.0 (74)
정읍	13.8	31.9	8.5	16.0	11.7	14.9	3.2	100.0 (94)
남원	20.0	34.3	2.9	25.7	11.4	5.7	0.0	100.0 (35)
김제	9.7	35.5	12.9	24.2	1.6	16.1	0.0	100.0 (62)
완주	20.3	32.2	5.1	20.3	8.5	11.9	1.7	100.0 (59)
진안	17.8	24.4	2.2	26.7	26.7	2.2	0.0	100.0 (45)
무주	0.0	16.7	20.8	25.0	20.8	12.5	4.2	100.0 (24)
장수	8.1	21.6	5.4	18.9	37.8	8.1	0.0	100.0 (37)
임실	25.0	15.0	10.0	20.0	25.0	5.0	0.0	100.0 (20)
순창	22.4	19.4	9.0	28.4	4.5	13.4	3.0	100.0 (67)
고창	17.1	40.0	4.3	24.3	0.0	10.0	4.3	100.0 (70)
부안	7.5	22.6	7.5	26.4	15.1	15.1	5.7	100.0 (53)

2) 초등학생 자녀 교육 상 가장 어려운 점

초등학교 자녀의 교육상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12.7%만이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결혼이민자(87.3%)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조사결과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률 83.5%보다 높은 것으로 전라북도 거주 결혼이민자들이 초등학생 자녀 교육상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었다.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예습·복습의 학습지도(30.4%)’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숙제 지도하기(22.9%)’, ‘학원비 마련(2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전라북도의 결혼이민자들은 학습 지도 면에서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이 일차적 원인

이겠지만, 한국어로 일상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작문, 독해 등의 고급 언어능력이 요구되는 학습 지도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습부진 등의 어려움은 6.1%로 낮은 편이었으나, 중요한 것은 일부의 자녀들이라도 낮은 연령대에서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낳기 때문에 이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표 3-121〉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교 자녀 양육 상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 명)

구분	어려움 없음	알림장 챙기기	숙제 지도하기	학습지도 (예습 및 복습)	학원비 마련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부진	기타	계(수)
전북	12.7	1.5	22.9	30.4	21.8	6.1	4.7	100.0 (687)
전국	16.5	2.9	19.8	23.2	27.4	5.0	5.3	100.0 (13,601)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는 동 지역 거주자는 ‘학원비 마련(32.0%)’을, 읍면 지역 거주자는 ‘학습지도(32.0%)’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고, 30-34세는 숙제지도하기의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35-39세와 40-49세는 학습지도의 어려움을, 50대 이상에서는 학원비 마련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학습지도와 학원비 마련을 지적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대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도 학습지도의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숙제지도하기의 비율이 높아졌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학습지도의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혼 및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학원비 마련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체류기간별로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75.0%로 높았고, 2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은 모두 학습지도의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122〉 전북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초등학생 자녀 양육 상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 명)

구분		어려움 없음	알림장 챙기기	숙제 지도 하기	학습지도 (예습 및 복습)	학원비 마련	학교 생활 부적응/ 학습 부진	기타	계
지역	동지역	10.4	1.1	23.8	25.3	32.0	5.2	2.2	100.0 (269)
	읍면지역	16.3	2.2	19.5	32.0	18.2	6.7	5.1	100.0 (534)
연령	24세이하	50.0	0.0	0.0	0.0	0.0	25.0	0.0	100.0 (4)
	25~29세	40.0	0.0	20.0	20.0	10.0	10.0	0.0	100.0 (10)
	30~34세	11.3	1.4	29.6	25.4	16.9	7.4	7.0	100.0 (71)
	35~39세	14.4	1.4	23.8	29.2	24.9	3.6	2.5	100.0 (277)
	40~49세	13.6	1.5	18.3	32.4	22.9	6.5	4.8	100.0 (398)
	50세이상	17.5	10.0	12.5	17.5	22.5	12.5	7.5	100.0 (40)
교육 수준	초등학교이하	0.0	0.0	0.0	46.7	40.0	6.7	6.7	100.0 (15)
	중학교	13.6	4.2	12.7	35.6	26.3	4.2	3.4	100.0 (118)
	고등학교	16.1	1.0	21.5	26.1	24.6	6.6	4.1	100.0 (391)
	대학교이상	12.7	2.2	25.0	31.5	18.1	6.5	4.0	100.0 (276)
혼인 상태	유배우	14.6	1.8	20.6	30.4	21.9	6.4	4.3	100.0 (776)
	이혼	7.7	0.0	46.2	0.0	46.2	0.0	0.0	100.0 (13)
	사별	7.7	7.7	23.1	15.4	46.2	0.0	0.0	100.0 (13)
체류 기간	1년미만	75.0	25.0	0.0	0.0	0.0	0.0	0.0	100.0 (4)
	1~2년미만	16.7	0.0	0.0	16.7	0.0	33.3	33.3	100.0 (6)
	2~5년미만	10.5	0.0	15.8	36.8	26.3	10.6	0.0	100.0 (19)
	5~10년미만	12.5	0.7	27.1	28.6	19.3	6.1	4.6	100.0 (280)
	10년이상	15.0	2.0	17.1	31.9	24.7	5.5	3.9	100.0 (461)

출신국별로는 베트남이 초등학생 자녀 교육상의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고, 그 외는 출신국과 무관하게 대부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제지도하기의 어려움은 필리핀, 몽골, 북미·호주·서유럽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습지도는 중국 한족, 태국, 일본에서 높게 지적되었다. 학원비마련은 중국 조선족, 태국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표 3-123〉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초등학교 자녀 양육 상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 명)

구분	어려움 없음	알림장 챙기기	숙제 지도 하기	학습지도 (예습 및 복습)	학원비 마련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부진	기타	계
중국(조선족)	16.1	1.2	11.8	28.9	33.2	3.7	5.0	100.0 (322)
중국(한족 등)	13.6	0.0	18.2	43.2	25.0	0.0	0.0	100.0 (44)
베트남	40.0	5.0	30.0	10.0	5.0	10.0	0.0	100.0 (20)
필리핀	11.2	2.8	43.8	18.5	13.5	6.2	3.9	100.0 (178)
몽골	0.0	0.0	60.0	20.0	0.0	20.0	0.0	100.0 (5)
태국	0.0	0.0	12.5	37.5	37.5	0.0	0.0	100.0 (8)
캄보디아	0.0	0.0	0.0	0.0	0.0	0.0	0.0	0.0 (0)
일본	13.4	2.6	12.4	43.3	14.9	9.8	3.6	100.0 (194)
북미·호주·서유럽	0.0	0.0	100.0	0.0	0.0	0.0	0.0	100.0 (2)
기타	11.5	0.0	30.8	11.5	26.9	11.5	7.7	100.0 (26)

시군별로는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높은 지역은 부안(26.9%), 군산(25.8%), 순창(24.2%)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장수로 2.9%만이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전주, 정읍, 김제, 완주 지역은 학원비 마련의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군산, 익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등에서는 예습, 복습의 학습지도, 남원, 무주는 숙제 지도하기를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표 3-124〉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초등학교 자녀 양육 상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 명)

시·군	어려움 없음	알림장 챙기기	숙제 지도하기	학습지도(예 습 및 복습)	학원비 마련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부진	기타	계
전주	9.2	0.8	23.8	30.8	30.8	2.3	2.3	100.0 (130)
군산	25.8	0.0	16.1	32.3	12.9	12.9	0.0	100.0 (31)
익산	8.1	1.4	23.0	33.8	21.6	6.8	5.4	100.0 (74)
정읍	13.7	1.1	18.9	20.0	30.5	8.4	7.4	100.0 (95)
남원	21.1	5.3	34.2	10.5	10.5	10.5	7.9	100.0 (38)
김제	13.3	0.0	30.0	10.0	43.3	1.7	1.7	100.0 (60)
완주	10.0	0.0	10.0	33.3	35.0	5.0	6.7	100.0 (60)
진안	19.6	6.5	23.9	37.0	6.5	4.4	2.2	100.0 (46)
무주	4.3	0.0	39.1	34.8	21.7	0.0	0.0	100.0 (23)
장수	2.9	0.0	17.1	42.9	14.3	11.5	11.4	100.0 (35)
임실	20.0	0.0	20.0	35.0	15.0	5.0	5.0	100.0 (20)
순창	24.2	1.5	13.6	28.8	18.2	12.1	1.5	100.0 (66)
고창	12.9	4.3	14.3	48.6	10.0	5.7	4.3	100.0 (70)
부안	26.9	3.8	21.2	25.0	15.4	5.8	1.9	100.0 (52)

3) 초등학교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초등학교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 결혼이민자의 94.7%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장 필요한 지원은 기초교과 지도(36.6%), 학교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23.9%), 한국어 및 한글교육(10.5%), 나의 모국어 교육(7.6%), 진학지도(7.155), 심리상담(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25〉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교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 명)

구분	지원 필요 없음	한국어, 한글 교육	기초교과 지도	나의 모국어 교육	심리 상담	진학지도	학교 교육비·급식비 지원	기타	계(수)
전북	5.3	10.5	36.6	7.6	4.1	7.1	23.9	4.0	1000 (675)
전국	9.5	9.3	27.8	8.1	5.6	8.0	25.5	6.1	1000 (13,407)

특성별로는 동지역보다 읍면 지역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읍면 지역은 기초 교과지도를 가장 많이 지적한 반면, 동지역은 학교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24세 이하 집단에서 지원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50세 이상을 제하고 기초교과 지도를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세 이상에서는 학교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까지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지원이 필요없다는 비율이 높아졌으나 대학교 이상에 다시 낮아졌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기초교과 지도를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초등학교 이하에서는 66.7%가 기초교과지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나의 모국어 교육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기초교과 지도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사별의 경우 학교 교육비 및 급식 지원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체류기간별로는 기간에 따른 일관된 경향은 보이지 않았으나, 기초 교과지도

를 많이 지적한 가운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교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을 지적한 비율이 높아졌다.

〈표 3-126〉 전북 결혼이민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 명)

구분		지원 필요 없음	한국어, 한글 교육	기초교과 지도	나의 모국어 교육	심리 상담	진학 지도	학교 교육비·급식비 지원	기타	계
지역	동지역	7.8	8.9	27.1	1.5	3.3	6.3	41.3	3.7	100.0 (269)
	읍면지역	5.3	11.0	38.7	10.2	4.4	8.2	16.9	5.3	100.0 (527)
연령	24세이하	25.0	25.0	0.0	0.0	25.0	0.0	0.0	0.0	100.0 (4)
	25~29세	0.0	33.3	41.7	8.3	0.0	0.0	16.7	0.0	100.0 (12)
	30~34세	9.5	18.9	32.4	10.8	2.7	4.1	14.9	6.8	100.0 (74)
	35~39세	6.6	12.5	34.9	7.7	5.1	5.9	23.2	4.0	100.0 (272)
	40~49세	5.8	6.8	35.9	6.1	3.3	9.9	27.3	4.8	100.0 (395)
	50세이상	0.0	5.1	25.6	10.3	5.1	2.6	41.0	10.3	100.0 (39)
교육 수준	초등학교이하	0.0	6.7	66.7	6.7	0.0	0.0	20.0	0.0	100.0 (15)
	중학교	5.8	9.1	42.1	4.1	3.3	9.1	17.4	9.1	100.0 (121)
	고등학교	7.8	9.4	31.0	6.5	3.6	7.0	29.9	4.7	100.0 (384)
	대학교이상	4.0	12.0	35.8	9.5	5.1	8.0	22.3	3.3	100.0 (274)
혼인 상태	유배우	6.3	10.4	34.8	7.4	4.2	7.7	24.5	4.8	100.0 (768)
	이혼	0.0	25.0	33.3	8.3	0.0	8.3	25.0	0.0	100.0 (12)
	사별	0.0	0.0	35.7	0.0	0.0	0.0	57.1	7.1	100.0 (14)
체류 기간	1년미만	0.0	25.0	25.0	25.0	25.0	0.0	0.0	0.0	100.0 (4)
	1~2년미만	16.7	16.7	0.0	0.0	0.0	33.3	0.0	33.3	100.0 (6)
	2~5년미만	4.8	14.3	23.8	23.8	4.8	14.3	9.5	4.8	100.0 (21)
	5~10년미만	4.3	17.1	37.7	7.5	5.7	5.3	17.8	4.6	100.0 (281)
	10년이상	7.5	5.3	34.4	6.8	2.6	8.6	30.6	4.2	100.0 (454)

출신국별로는 ‘지원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 조선족으로 10.1%였다. 모든 국가들에서 기초교과 지도를 가장 많이 지적한 가운데,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서 한국어 및 한글 교육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고, 중국 조선족과 한족, 베트남,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학교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북미·호주·서유럽과 일본, 필리핀 출신의 경우 나의 모국어 교육을 지적한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27〉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초등학생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 명)

구분	지원 필요 없음	한국어, 한글 교육	기초교과 지도	나의 모국어 교육	심리 상담	진학 지도	학교 교육비· 급식비 지원	기타	계
중국(조선족)	10.1	3.8	32.4	3.8	3.5	11.0	28.6	6.9	100.0 (318)
중국(한족 등)	4.3	17.4	41.3	0.0	0.0	13.0	23.9	0.0	100.0 (46)
베트남	4.3	21.7	26.1	8.7	8.7	4.3	26.1	0.0	100.0 (23)
필리핀	2.3	25.1	34.3	9.1	9.1	2.9	13.1	4.0	100.0 (175)
몽골	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5)
태국	0.0	37.5	50.0	0.0	0.0	0.0	12.5	0.0	100.0 (8)
캄보디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일본	4.2	5.2	35.6	12.0	1.0	6.3	31.4	4.2	100.0 (191)
북미·호주·서유럽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2)
기타	7.1	7.1	42.9	10.7	0.0	7.1	25.0	0.0	100.0 (228)

시군별로 ‘지원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지역은 군산으로 22.6%였고, 장수는 0.0%, 익산 1.3%, 고창 1.4%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은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전주, 김제, 장수군을 제외한 시군에서 기초교과 지도를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주시, 김제시, 장수군은 기초교과 지도(32.6%, 38.3%, 33.3%)보다 학교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이 각각 40.2%, 38.3%, 38.9%로 가장 높았다. 기초교과 지도를 가장 많이 지적한 시군에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대체로 학교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이었으나, 이 중 남원시, 진안군은 한국어 및 한글교육(23.7%, 26.1%)을 두 번째로 많이 지적하였고, 임실은 진학지도(23.8%)를 두 번째로 많이 지적하였다.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은 고창 19.7%, 진안 15.2%, 임실 14.3%, 순창 13.6%로 다른 시군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3-128〉 전북 14개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초등학교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 명)

시·군	지원 필요 없음	한국어, 한글 교육	기초교 과지도	나의 모국어 교육	심리 상담	진학 지도	학교 교육비 · 급식 비지원	기타	계
전주	7.6	8.3	32.6	0.0	2.3	8.3	40.2	0.8	100.0 (132)
군산	22.6	0.0	32.3	0.0	3.2	12.9	25.8	3.2	100.0 (31)
익산	1.3	13.3	34.7	6.7	5.3	4.0	30.7	4.0	100.0 (75)
정읍	4.3	9.6	31.9	5.3	6.4	9.6	25.5	7.4	100.0 (94)
남원	5.3	23.7	28.9	7.9	2.6	5.3	18.4	7.9	100.0 (38)
김제	6.7	6.7	33.3	5.0	1.7	1.7	38.3	6.7	100.0 (60)
완주	6.8	8.5	39.0	6.8	1.7	5.1	18.6	13.6	100.0 (59)
진안	2.2	26.1	28.3	15.2	10.9	4.3	8.7	4.3	100.0 (46)
무주	4.5	18.2	45.5	4.5	4.5	0.0	18.2	4.5	100.0 (22)
장수	0.0	8.3	33.3	8.3	2.8	2.8	38.9	5.6	100.0 (36)
임실	4.8	14.3	42.9	14.3	0.0	23.8	0.0	0.0	100.0 (21)
순창	6.1	6.1	40.9	13.6	1.5	6.1	21.2	4.5	100.0 (66)
고창	1.4	12.7	35.2	19.7	4.2	12.7	12.7	1.4	100.0 (71)
부안	13.7	3.9	41.2	7.8	5.9	9.8	15.7	2.0	100.0 (51)

4.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경험 및 도움정도

1)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받은 경험

다문화가족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을 받은 경험은 전체의 41.0%로 전국 조사결과보다 13% 포인트 높았고,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의 경우도 43.4%로 전국 조사결과보다 13.7% 포인트 높았다.

〈표 3-129〉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받은 비율

(단위 : %, 명)

구분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분석대상	비율	분석대상	비율
전북	4,672	41.0	4,709	43.4
전국	114,299	28.0	114,545	29.7

먼저,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경험에 대해 다문화가족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읍면 지역 거주자가 동 지역 거주자보다 지원받은 경험이 13.7% 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지원받은 경험이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초등학교 이하와 대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가 지원을 받은 비율이 높았다. 혼인 상태별로는 유배우자가 배우자 없는 경우보다 지원받은 경험이 두 배 가까이 높았고, 체류기간별로는 1년 미만을 제하고 기간이 짧을수록 지원받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은 읍면지역 거주자가 49.0%, 동지역 거주자가 36.1%로 읍면지역 거주자가 지원받은 경험이 12.9% 포인트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34세가 49.5%로 가장 많았고, 25-29세 48.4%, 35-39세가 45.4% 순으로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교 이상 학력소지자의 경우 거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이하가 지원받은 경험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지원받은 경험이 높았으며, 체류기간은 5-10년 미만이 52.2%로 지원받은 경험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5년 미만이 48.8%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5-29세, 초

등학교 이하와 대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 유배우자인 경우, 체류기간 1-2년 미만인 경우가 높았다. 자녀양육 및 학습 지원을 받은 경험은 읍면지역 거주자, 30-34세,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소지자, 유배우자, 체류기간 5-10년 미만인 경우가 높았다.

〈표 3-130〉 전북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받은 비율

(단위 : 명, %)

구분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분석대상	비율	분석대상	비율
지역	동지역	2,038	33.3	2,046	36.1
	읍면지역	2,635	47.0	2,665	49.0
연령	24세이하	685	45.4	687	37.7
	25~29세	1,200	50.3	1,221	48.4
	30~34세	836	49.4	842	49.5
	35~39세	720	36.9	727	45.4
	40~49세	987	29.9	990	41.4
	50세이상	243	11.5	242	16.1
교육 수준	초등학교이하	437	45.5	441	45.4
	중학교	1,337	40.2	1,359	38.4
	고등학교	1,903	37.9	1,917	41.5
	대학교이상	965	45.6	961	2.8
혼인 상태	유배우	4,558	41.4	4,596	43.6
	이혼	68	27.9	70	37.1
	사별	36	16.7	37	37.8
체류 기간	1년미만	533	25.1	534	20.8
	1~2년미만	703	48.5	703	36.3
	2~5년미만	1,489	48.0	1,507	48.8
	5~10년미만	995	43.5	1,001	52.2
	10년이상	631	22.5	634	40.4

출신국별로 먼저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경험을 비교해보면, 캄보디아와 필리핀이 63.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몽골 55.8%, 베트남 46.7%로 높게 나타

났다. 지원 받은 경험이 가장 낮은 국가는 북미·호주·서유럽 10.0%이며, 다음이 중국 조선족 24.0%로 낮았다.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을 받은 경험은 태국 69.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필리핀 66.3%, 일본 57.0%, 캄보디아 53.4%, 베트남 47.2%, 몽골 46.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지원받은 경험이 낮은 국가는 북미·호주·서유럽 20.0%이며, 다음이 중국 조선족 29.00%로 낮았다.

〈표 3-131〉 전북 다문화가족의 출신국별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받은 비율

(단위 : 명, %)

구분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분석대상	비율	분석대상	비율
중국(조선족)	1,080	24.0	1,088	29.0
중국(한족 등)	915	37.0	912	32.6
베트남	1,237	46.7	1,268	47.2
필리핀	607	63.4	609	66.3
몽골	52	55.8	49	46.9
태국	67	61.2	68	69.1
캄보디아	216	63.4	219	53.4
일본	334	32.6	335	57.0
북미·호주·서유럽	30	10.0	30	20.0
기타	135	27.4	131	35.9

시군별로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을 받은 경험을 비교해보면, 경험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김제 54.7%이고, 다음으로 장수 54.2%, 임실 53.4%, 완주, 진안, 순창이 50.3%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받은 경험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주시로 26.7%였다.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을 받은 경험은 장수 5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순창 56.9%, 임실 55.9%, 남원 53.5%, 무주 51.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원 받은 경험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주로 31.8%였다.

〈표 3-132〉 전북 14개 시·군별 다문화가족의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받은 비율
(단위 : 명, %)

시·군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분석대상	비율	분석대상	비율
전주	869	26.7	873	31.8
군산	430	36.7	438	40.6
익산	626	35.5	620	38.5
정읍	463	37.1	465	38.3
남원	231	47.6	228	53.5
김제	373	54.7	375	48.5
완주	340	50.3	344	49.7
진안	175	50.3	184	45.1
무주	143	48.3	147	51.7
장수	153	54.2	152	57.9
임실	148	53.4	152	55.9
순창	194	50.3	195	56.9
고창	291	45.0	297	48.1
부안	237	42.2	239	46.4

2)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의 도움정도 및 필요도

(1) 지원의 도움정도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을 받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가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57.9%였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5.2%로 나타났다.

〈표 3-133〉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의 도움정도

(단위 : %, 명)

구분	매우 도움이 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이 안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계(수)	평균
전북	30.4	27.5	26.9	7.3	7.9	100.0 (1,916)	2.35
전국	29.0	25.3	23.5	9.3	12.9	100.0(32,005)	2.52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도움받은 정도를 비교해보면, 읍면 지역 거주자가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동지역보다 9.4% 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가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고등학교 학력까지는 학력이 높을수록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체류기간별로는 1-2년 미만이 67.7%로 가장 높았고, 2-5년 미만이 60.8%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표 3-134〉 전북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의 도움받은 정도

(단위 : %, 명)

구분		매우 도움이 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이 안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계(수)	평균
지역	동지역	27.6	24.2	25.7	7.4	15.2	100.0 (678)	2.58
	읍면지역	31.9	29.3	27.7	7.3	3.9	100.0 (1,239)	2.22
연령	24세이하	37.9	28.3	22.8	5.5	5.5	100.0 (311)	2.12
	25~29세	36.0	28.2	24.8	6.5	4.5	100.0 (602)	2.15
	30~34세	27.1	27.5	29.7	6.8	8.9	100.0 (414)	2.43
	35~39세	22.6	28.6	33.1	8.3	7.5	100.0 (266)	2.50
	40~49세	23.1	25.8	25.8	10.8	14.6	100.0 (295)	2.68
	50세이상	25.0	14.3	32.1	7.1	21.4	100.0 (28)	2.91
교육 수준	초등학교이하	39.7	17.6	31.7	5.5	5.5	100.0 (199)	2.20
	중학교	28.8	30.5	24.3	7.2	9.1	100.0 (538)	2.38
	고등학교	30.0	29.7	25.1	7.6	7.6	100.0 (721)	2.33
	대학교이상	28.6	25.0	31.1	8.0	7.3	100.0 (44)	2.40
혼인 상태	유배우	30.4	27.7	26.9	7.3	7.6	100.0 (1,890)	2.34
	이혼	30.0	20.0	20.0	0.0	30.0	100.0 (20)	2.77
	사별	16.7	0.0	66.7	16.7	0.0	100.0 (6)	2.82
체류 기간	1년미만	32.6	20.7	15.6	10.4	20.7	100.0 (135)	2.66
	1~2년미만	33.1	34.6	20.8	5.3	6.2	100.0 (341)	2.17
	2~5년미만	34.0	26.8	25.6	6.3	7.3	100.0 (714)	2.26
	5~10년미만	22.6	27.6	35.0	9.9	4.8	100.0 (434)	2.46
	10년이상	26.8	29.6	22.6	13.4	7.7	100.0 (142)	2.46

출신국별로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캄보디아가 7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베트남 69.4%, 태국 69.1%, 몽골 69.0%, 일본 58.7% 등의 순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과반수 이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례수가 적은 북미·호주·서유럽을 제외하고, 중국 한족과 조선족이 각각 42.5%, 47.1%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3-135〉 전북 다문화가족의 출신국별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의 도움받은 정도

(단위 : %, 명)

구분	매우 도움이 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이 안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계(수)	평균
중국(조선족)	17.4	29.7	28.2	11.2	13.5	100.0 (259)	2.73
중국(한족 등)	16.2	26.3	23.0	8.8	25.7	100.0 (339)	3.02
베트남	39.6	29.8	25.1	3.6	1.9	100.0 (578)	1.98
필리핀	30.2	22.4	36.7	7.3	3.4	100.0 (384)	2.32
몽골	20.7	48.3	20.7	10.3	0.0	100.0 (29)	2.17
태국	40.5	28.6	21.4	9.5	0.0	100.0 (42)	2.00
캄보디아	48.9	25.5	16.8	7.3	1.5	100.0 (137)	1.87
일본	28.4	30.3	24.8	14.7	1.8	100.0 (109)	2.32
북미·호주·서유럽	0.0	0.0	100.0	0.0	0.0	100.0 (3)	3.00
기타	40.5	27.0	32.4	0.0	0.0	100.0 (37)	1.91

시군별로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군산(41.5%)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군에서 과반수 이상의 결혼이민자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완주가 6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읍 63.4%, 부안 63.0%, 고창 61.0%, 진안 60.7%, 무주 60.3% 등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군산과 전주는 다른 시군에 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각각 20.8%, 15.9%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36〉 전북 14개 시·군별 다문화가족의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의 도움받은 정도

(단위 : %, 명)

시·군	매우 도움이 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이 안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계(수)	평균
전주	26.6	26.2	22.7	8.6	15.9	100.0 (233)	2.61
군산	23.9	17.6	30.8	6.9	20.8	100.0 (159)	2.82
익산	30.2	25.7	29.3	6.8	8.1	100.0 (222)	2.36
정읍	46.5	16.9	26.7	7.6	2.3	100.0 (172)	2.01
남원	30.0	26.4	29.1	8.2	6.4	100.0 (110)	2.33
김제	23.5	33.3	30.9	5.4	6.9	100.0 (204)	2.38
완주	36.3	33.3	17.5	8.2	4.7	100.0 (171)	2.11
진안	36.0	24.7	28.1	7.9	3.4	100.0 (89)	2.17
무주	27.9	32.4	23.5	10.3	5.9	100.0 (68)	2.35
장수	21.4	35.7	31.0	4.8	7.1	100.0 (84)	2.38
임실	40.5	19.0	21.5	11.4	7.6	100.0 (79)	2.26
순창	27.6	30.6	31.6	9.2	5.3	100.0 (98)	2.27
고창	28.2	32.8	23.7	9.9	5.3	100.0 (131)	2.31
부안	26.0	37.0	32.0	1.0	4.0	100.0 (100)	2.22

(2) 지원의 필요도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45.7%로 전국 조사결과보다 7.3%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표 3-137〉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의 필요도

(단위 : %, 명)

구분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별로 필요치 않음	전혀 필요치 않음	계(수)	평균
전북	32.1	13.6	13.1	14.0	27.3	100.0(4,706)	2.91
전국	27.0	11.4	10.5	15.3	35.8	100.0(112,811)	3.22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읍면 지역 거주자(48.4%)가 동 지역 거주자(42.4%)보다 6% 포인트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필요한 출산을 이미 마쳤다

고 여겨지는 4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급격히 낮아졌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체류기간 역시 기간이 짧을수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3-138〉 전북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의 필요도

(단위 : %, 명)

구분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별로 필요치 않음	전혀 필요치 않음	계(수)	평균
지역	동지역	30.3	12.1	12.8	15.3	29.8	100.0(2,041)	3.03
	읍면지역	33.6	14.8	13.3	13.0	25.3	100.0(2,664)	2.82
연령	24세이하	51.9	16.3	14.3	6.5	11.0	100.0 (707)	2.09
	25~29세	44.7	17.9	12.6	11.2	13.4	100.0(1,227)	2.31
	30~34세	35.8	16.0	17.1	14.3	16.8	100.0 (858)	2.60
	35~39세	23.5	11.8	13.1	16.4	35.3	100.0 (712)	3.28
	40~49세	11.3	8.5	11.2	20.9	48.1	100.0 (955)	3.86
	50세이상	4.5	2.1	4.9	13.2	75.3	100.0 (243)	4.53
교육 수준	초등학교이하	43.4	10.0	13.1	8.8	24.8	100.0 (452)	2.62
	중학교	35.5	14.0	12.4	12.1	25.9	100.0(1,362)	2.79
	고등학교	29.3	14.4	12.7	15.4	28.2	100.0(1,925)	2.99
	대학교이상	26.5	13.4	14.8	16.4	29.0	100.0 (271)	3.08
혼인 상태	유배우	32.6	13.7	13.2	13.9	26.6	100.0(4,585)	2.88
	이혼	10.8	6.8	12.2	20.3	5.0	100.0 (74)	3.91
	사별	12.8	10.3	5.1	10.3	61.5	100.0 (39)	3.99
체류 기간	1년미만	58.2	14.7	9.5	8.4	9.1	100.0 (570)	1.95
	1~2년미만	45.7	19.3	13.3	9.2	12.4	100.0 (715)	2.23
	2~5년미만	32.5	15.6	15.3	14.2	22.4	100.0(1,509)	2.79
	5~10년미만	17.3	11.5	14.3	19.9	37.0	100.0 (955)	3.48
	10년이상	9.6	5.5	7.4	18.5	59.0	100.0 (605)	4.12

출신국별로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몽골이 78.1%로 가장 높았고, 캄보디아 76.8%, 베트남 63.8% 순으로 비교적 최근에 결혼이민을

오는 국가들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북미·호주·서유럽과 중국 조선족, 일본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3-139〉 전북 다문화가족의 출신국별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의 필요도

(단위 : %, 명)

구분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별로 필요치 않음	전혀 필요치 않음	계(수)	평균
중국(조선족)	16.5	7.9	8.0	17.2	50.4	100.0(1,060)	3.77
중국(한족 등)	34.2	13.8	15.1	16.3	20.6	100.0 (941)	2.75
베트남	47.7	16.1	14.0	8.4	13.8	100.0(1,288)	2.24
필리핀	23.5	20.7	18.2	17.9	19.8	100.0 (605)	2.90
몽골	56.1	22.0	0.0	9.8	12.2	100.0 (41)	2.00
태국	26.9	13.4	20.9	7.5	31.3	100.0 (67)	3.02
캄보디아	62.3	14.5	11.4	5.5	6.4	100.0 (220)	1.80
일본	10.4	7.7	12.9	20.9	48.2	100.0 (326)	3.89
북미·호주·서유럽	10.0	0.0	0.0	10.0	80.0	100.0 (30)	4.50
기타	31.5	15.4	13.1	12.3	27.7	100.0 (36)	2.88

시군별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라북도 평균 45.7%보다 낮게 나타난 지역은 전주(41.0%), 군산(42.9%), 정읍(42.2%), 진안(38.9%), 고창(44.6%)으로 진안이 가장 낮았으며, 반대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순창으로 52.3%였다. 특히 전주, 정읍, 부안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40〉 전북 14개 시·군별 다문화가족의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의 필요도

(단위 : %, 명)

시·군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별로 필요치 않음	전혀 필요치 않음	계(수)	평균
전주	27.5	13.5	11.0	15.1	32.9	100.0 (881)	3.12
군산	30.4	12.5	15.5	14.1	27.5	100.0 (425)	2.96
익산	36.7	12.1	13.9	17.4	19.9	100.0 (627)	2.72
정읍	32.4	9.8	11.1	13.2	33.5	100.0 (478)	3.06
남원	39.0	12.6	17.3	13.4	17.7	100.0 (231)	2.58
김제	31.5	16.4	12.4	11.6	28.0	100.0 (371)	2.88
완주	31.6	15.5	12.3	16.1	24.6	100.0 (342)	2.87
진안	28.6	10.3	21.1	10.3	29.7	100.0 (175)	3.02
무주	31.2	20.3	9.4	13.8	25.4	100.0 (138)	2.81
장수	25.0	22.2	13.9	17.4	21.5	100.0 (144)	2.89
임실	34.4	14.0	13.4	13.4	24.8	100.0 (157)	2.80
순창	39.6	12.7	13.7	7.6	26.4	100.0 (197)	2.68
고창	30.6	14.0	15.3	15.0	25.2	100.0 (301)	2.90
부안	35.3	15.1	8.8	8.4	32.4	100.0 (238)	2.88

3)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의 도움정도 및 필요도

(1) 지원의 도움정도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이 도움이 되었는가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64.6%로 나타났다.

〈표 3-141〉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학습지원의 도움정도

(단위 : %, 명)

구분	매우 도움이 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이 안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계(수)	평균
전북	37.5	27.1	24.1	5.4	6.0	100.0 (2,047)	2.15
전국	37.0	25.0	20.8	6.5	10.7	100.0 (34,011)	2.29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읍면지역 거주자가 67.9%로 동 지역 거주자 58.6%보다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고, 사별을 한 경우가 이혼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높았다. 체류기간별로는 2~5년 미만이 6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10년 이상(66.6%)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3-142〉 전북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자녀양육·학습지원의 도움정도

(단위 : %, 명)

구분		매우 도움이 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이 안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계(수)	평균
지역	동지역	36.0	22.6	24.4	6.6	10.3	100.0 (738)	2.33
	읍면지역	38.3	29.6	23.9	4.7	3.5	100.0(1,306)	2.06
연령	24세이하	43.5	28.1	20.8	1.9	5.8	100.0 (260)	1.98
	25~29세	45.1	24.2	22.9	4.4	3.4	100.0 (590)	1.97
	30~34세	36.8	29.6	18.8	6.7	8.2	100.0 (416)	2.20
	35~39세	34.7	24.0	30.4	7.0	4.0	100.0 (329)	2.22
	40~49세	27.6	31.5	26.7	5.9	8.3	100.0 (409)	2.36
	50세이상	17.9	15.4	41.0	10.3	15.4	100.0 (39)	2.87
교육 수준	초등학교이하	54.5	20.5	18.0	2.5	4.5	100.0 (200)	1.81
	중학교	37.4	28.2	19.7	4.4	10.3	100.0 (522)	2.22
	고등학교	27.5	22.6	21.1	4.3	4.2	100.0 (797)	2.19
	대학교이상	17.8	13.5	14.0	3.8	1.6	100.0 (507)	2.17
혼인 상태	유배우	37.4	27.2	24.1	5.4	5.9	100.0(2,006)	2.15
	이혼	40.0	20.0	24.0	0.0	16.0	100.0 (25)	2.38
	사별	53.8	23.1	15.4	7.7	0.0	100.0 (13)	1.81
체류 기간	1년미만	39.6	16.2	14.4	6.3	23.4	100.0 (111)	2.58
	1~2년미만	38.8	25.1	20.0	6.3	9.8	100.0 (255)	2.24
	2~5년미만	39.5	28.8	22.7	3.5	5.4	100.0 (735)	2.07
	5~10년미만	36.2	26.6	28.4	6.5	2.3	100.0 (522)	2.12
	10년이상	32.5	34.1	23.5	5.9	3.9	100.0 (255)	2.15

출신국별로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태국 85.1%, 캄보디아 82.9%, 베트남 78.5%, 몽골 78.3%, 일본 74.9% 등의 순으로 높았다.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국가는 중국 한족으로 42.0%이고 다음이 중국 조선족 56.5%로 낮았다.

〈표 3-143〉 전북 다문화가족의 출신국별 자녀양육·학습지원의 도움정도

(단위 : %, 명)

구분	매우 도움이 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이 안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계(수)	평균
중국(조선족)	26.0	30.5	25.1	7.0	11.4	100.0 (315)	2.47
중국(한족 등)	20.5	21.5	25.6	10.1	22.2	100.0 (297)	2.92
베트남	49.7	28.8	17.9	1.5	2.2	100.0 (598)	1.78
필리핀	30.9	21.7	38.5	7.7	1.2	100.0 (405)	2.26
몽골	34.8	43.5	17.4	4.3	0.0	100.0 (23)	1.94
태국	63.8	21.3	8.5	6.4	0.0	100.0 (47)	1.56
캄보디아	59.0	23.9	10.3	6.0	0.9	100.0 (117)	1.65
일본	39.3	35.6	20.9	3.7	0.5	100.0 (191)	1.91
북미·호주·서유럽	0.0	50.0	50.0	0.0	0.0	100.0 (6)	2.50
기타	43.5	28.3	28.3	0.0	0.0	100.0 (46)	1.86

시군별로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임실 7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완주 73.7%, 부안 72.9%, 고창 71.4%, 정읍 67.4%, 무주 65.8%, 순창 63.0%, 장수 62.5% 등의 순으로 정읍을 제외하고 대체로 군 지역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지역은 군산으로 57.9%였다.

〈표 3-144〉 전북 14개 시군별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학습지원의 도움정도

(단위 : %, 명)

시·군	매우 도움이 됨	약간 도움이 됨	보통	별로 도움이 안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계(수)	평균
전주	37.3	23.3	22.6	6.5	10.4	100.0 (279)	2.29
군산	33.7	24.2	25.8	6.7	9.6	100.0 (178)	2.35
익산	34.4	26.1	28.2	4.1	7.1	100.0 (241)	2.23
정읍	46.6	20.8	21.3	6.2	5.1	100.0 (178)	2.03
남원	33.6	28.7	26.2	4.9	6.6	100.0 (122)	2.22
김제	33.1	27.6	25.4	7.2	6.6	100.0 (81)	2.27
완주	35.7	38.0	18.1	3.5	4.7	100.0 (171)	2.04
진안	39.5	23.5	33.3	2.5	1.2	100.0 (81)	2.04
무주	32.9	32.9	22.4	9.2	2.6	100.0 (76)	2.17
장수	27.3	35.2	27.3	5.7	4.5	100.0 (88)	2.25
임실	51.8	22.4	18.8	3.5	3.5	100.0 (85)	1.84
순창	39.6	23.4	27.9	8.1	0.9	100.0 (111)	2.08
고창	40.6	30.8	21.0	4.2	3.5	100.0 (143)	2.00
부안	44.1	28.8	21.6	0.9	4.5	100.0 (111)	1.94

(2) 지원의 필요도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3.2%로 전국 조사결과 62.7%보다 10.5% 포인트 높았다.

〈표 3-145〉 전북과 전국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학습지원의 필요도

(단위 : %, 명)

구분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별로 필요치 않음	전혀 필요치 않음	계(수)	평균
전북	55.9	17.3	9.2	5.2	12.4	100.0 (4,920)	2.01
전국	49.0	13.7	7.8	7.7	21.7	100.0 (117,937)	2.40

결혼이민자의 특성별로는 읍면지역 거주자(76.7%)가 동지역 거주자(68.6%)보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4세 이하를 제외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10% 포인트 이상 높았으며, 체류기간별로는 기간이 일관적이지는 않으나 대체로 기간이 짧을수록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표 3-146〉 전북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자녀양육·학습지원의 필요도

(단위 : %, 명)

구분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별로 필요지 않음	전혀 필요지 않음	계(수)	평균
지역	동지역	53.6	15.0	9.7	5.8	15.9	100.0 (2,115)	2.15
	읍면지역	57.6	19.1	8.8	4.8	9.7	100.0 (2,805)	1.90
연령	24세이하	62.0	18.0	9.8	4.5	5.6	100.0 (727)	1.74
	25~29세	65.0	18.1	7.8	3.8	5.4	100.0 (1,277)	1.66
	30~34세	63.5	18.6	9.7	2.6	5.6	100.0 (896)	1.68
	35~39세	61.4	16.2	8.2	5.2	9.0	100.0 (766)	1.84
	40~49세	39.4	18.0	11.7	9.0	21.9	100.0 (1,004)	2.56
	50세이상	14.0	8.0	5.6	8.8	63.6	100.0 (250)	4.00
교육 수준	초등학교이하	58.4	11.8	10.1	4.8	14.9	100.0 (457)	2.06
	중학교	56.6	14.3	8.0	6.6	14.5	100.0 (1,419)	2.08
	고등학교	54.7	19.1	9.0	5.1	12.1	100.0 (2,012)	2.01
	대학교이상	55.7	21.0	10.5	3.6	9.2	100.0 (1,000)	1.90
혼인 상태	유배우	56.2	17.5	9.3	5.1	11.9	100.0 (4,794)	1.99
	이혼	44.2	7.8	6.5	13.0	28.6	100.0 (77)	2.76
	사별	48.7	12.8	2.6	7.7	28.2	100.0 (39)	2.53
체류 기간	1년미만	60.8	13.6	8.4	7.3	9.9	100.0 (574)	1.92
	1~2년미만	58.0	18.5	9.5	4.1	9.9	100.0 (735)	1.89
	2~5년미만	57.7	16.4	8.6	5.5	11.7	100.0 (1,570)	1.97
	5~10년미만	55.9	18.3	8.6	4.6	12.6	100.0 (1,031)	2.00
	10년이상	46.1	20.1	10.3	5.6	17.9	100.0 (642)	2.29

출신국별로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몽골이 97.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태국 88.4%, 베트남 85.1%, 캄보디아 79.8%, 필리핀 78.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국가는 북미·호주·서유럽 30%이고 다음이 중국 조선족 56.5%, 중국 한족 69.2%로 나타났다.

〈표 3-147〉 전북 다문화가족의 출신국별 자녀양육·학습지원의 필요도

(단위 : %, 명)

구분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별로 필요치 않음	전혀 필요치 않음	계(수)	평균
중국(조선족)	43.8	12.7	7.6	9.8	26.1	100.0 (1,106)	2.62
중국(한족 등)	57.7	11.5	9.6	6.8	14.4	100.0 (967)	2.09
베트남	65.9	19.2	7.1	2.5	5.3	100.0 (1,350)	1.62
필리핀	53.0	25.9	13.5	2.6	5.0	100.0 (659)	1.81
몽골	79.2	12.5	0.0	2.1	6.3	100.0 (48)	1.42
태국	76.8	11.6	4.3	5.8	1.4	100.0 (69)	1.43
캄보디아	65.9	13.9	12.6	2.2	5.4	100.0 (223)	1.68
일본	45.5	28.7	12.0	5.1	8.7	100.0 (334)	2.02
북미·호주·서유럽	10.0	20.0	10.0	0.0	60.0	100.0 (30)	3.79
기타	57.5	17.9	11.2	3.0	10.4	100.0 (134)	1.90

시군별로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장수 82.9%로 가장 높았고 진안 81.5%, 무주 81.3%, 고창 79.3%, 순창 79.0%, 임실 77.5% 등의 순으로 주로 군지역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군산, 전주, 정읍 등의 시지역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148〉 전북 14개 시·군별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학습지원의 필요도

(단위 : %, 명)

시·군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별로 필요치 않음	전혀 필요치 않음	계(수)	평균
전주	53.3	15.3	7.8	6.7	16.9	100.0 (915)	2.18
군산	52.1	15.7	10.2	5.9	16.1	100.0 (459)	2.18
익산	59.0	14.7	11.3	5.8	9.2	100.0 (654)	1.91
정읍	54.6	14.0	8.5	5.6	17.3	100.0 (485)	2.17
남원	60.1	16.4	12.2	6.3	5.0	100.0 (238)	2.02
김제	54.6	19.2	9.4	3.4	13.4	100.0 (381)	2.00
완주	50.3	23.4	11.0	6.2	9.0	100.0 (354)	1.71
진안	67.7	13.8	6.2	5.6	6.7	100.0 (195)	1.81
무주	59.3	22.0	6.7	2.0	10.0	100.0 (150)	1.73
장수	62.0	20.9	6.3	4.4	6.3	100.0 (158)	1.94
임실	59.4	18.1	5.8	2.6	14.2	100.0 (155)	1.82
순창	57.1	21.9	9.5	3.8	7.6	100.0 (210)	1.87
고창	55.0	24.3	8.6	2.9	9.3	100.0 (313)	2.06
부안	55.9	15.4	10.2	4.3	14.2	100.0 (254)	2.01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제 2 절 정책제언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1.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의 일반적 특성

(1) 거주지역

2009년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 의하면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가정의 현황은 6,590세대이며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전주로 1,410세대 그 다음으로 익산 1,224세대, 정읍 611세대, 군산 520세대, 완주 509세대, 김제 452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시지역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군 지역에서는 완주군이 다른 군 지역에 비해 다문화가족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은 동 지역 72.1%, 읍·면지역 27.9%로 주로 도시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동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표본의 지역분포로 볼 때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43%,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57%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사는 결혼이민자의 표본이 더 많이 추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의 거주 비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시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제결혼의 추세가 과거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농촌 지역 결혼이주민들의 인근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가족생애주기 상 자녀들의 교육에 의한 도시전입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출신국

전라북도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특성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28.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 조선족 22.0%, 중국 한족 등 19.9%, 일본 6.3%, 캄보디아 4.5%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국시기에 따라서 살펴보면 1995년 이전 경우 일본과 중국 조선족의 비율이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비율은 낮았다. 반면 2000년 이후에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의 국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이민자의 98.3%가 2005년 이후에 입국하였으며, 베트남 89.7%, 중국 한족 등 79.5%, 몽골 74.1%가 2005년 이후에 입국하여 최근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국가들의 추세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일본과 중국 조선족 출신 국가들과의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 졌다면, 최근에는 캄보디아, 중국 한족 등, 몽골 출신 국가들과의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3) 연령

전라북도 결혼이민자의 연령은 25~29세가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40~49세가 20.8%로 나타났다. 반면 50세 이상은 5.5%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 구성은 20대 > 30대 > 40대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국 및 다른 시·도와 비교해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완주군으로 48.3%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김제 43.9%, 익산 43.6%, 무주 44.3%가 20대 연령층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입국시기 및 체류기간

전라북도 결혼이민자의 입국 시기는 2005년 이후에 59.6%가 입국하였으며 2000년 이전에는 23.4%가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북 결혼이민자들의 대부분은 2005년 이후에 입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평균(54.1%)과 비교해보면 2005년 이후의 최근 입국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

어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는 2005년 이후, 특히 24세 이하자의 초기 2005년 이후 급증했으며, 30대는 결혼이민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4·50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그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2000년 이전에는 고졸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2000년 이후에는 중졸 이하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결혼이민자들의 교육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북 결혼이민자들의 체류기간을 살펴보면, 2~5년 미만이 34.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10년 미만이 22.3%, 1~2년 미만이 16.1%로 나타났다. 전북은 결혼이민자들의 1년 미만 거주 비율이 13.0%로 전국 평균 9.6%와 비교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10년 이상 거주 비율은 13.9%로 전국 평균인 15.6% 보다 낮게 나타나 전북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 결혼이민자들의 체류기간이 길지 않고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군산과 임실지역 결혼이민자들의 10년 이상 체류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수 지역은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 10년 이상 체류한 기간이 높게 나타난 반면, 2년 미만의 체류기간은 군 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최근에는 군 지역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교육수준

전라북도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4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졸 29.2%, 대졸 이상 20.1%, 초졸 이하 9.7%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고졸 및 대졸 이상의 비율은 전국 평균이 전북 보다 높고, 중졸 및 초졸 이하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전북 결혼이민자들의 교육수준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별로는 북미·호주·서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중 몽골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결혼이민자가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필리

편이 53.1%, 일본 49.9%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캄보디아는 중졸이하의 학력을 지닌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69.8%로 나타나 가장 낮은 교육수준을 보였으며, 베트남 61.2%, 태국, 중국 한족 등도 중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40%를 넘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한국어 능력

전북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말하기·읽기·쓰기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라북도 결혼이민자는 전국 평균에 비해 말하기·읽기·쓰기 영역 모두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기 능력의 경우 ‘(매우)잘한다’의 비율이 29.2%로 전국 평균인 37.3%와 비교해 낮은 비율을 보인 보였으며,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은 각각 31.6%, 26.5%로 전국 평균인 38.0%, 33.0%와 비교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북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체류기간에 따른 한국어 능력은 비례관계가 있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수준이 높음에 따라 한국어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7) 가구소득 및 삶의 만족도

전북 다문화가족의 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의 비율도 27.9%로 전국과 비교해 저소득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의 비율이 낮아졌고, 고소득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혼인상태별로는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았으며, 체류기간별로는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북 결혼이민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지만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즉, 전북의 경우 ‘(매우)만족’의 비율이 53.7%인데 반해 전국은 56.8%로 전국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우)불만’은 전북이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전북 결혼이민자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북 평균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 결혼이민자가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이혼이나 사별과 같이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체류기간에 따라서는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취업실태와 근로조건

(1) 가구소득 및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은 100-200만원이 가장 많고,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00만원 미만인 그 다음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았다. 특히 전국 조사결과, 16개 광역시도 중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전남과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나 전북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 문제가 그 어떤 지역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사별 여성의 소득이 가장 낮았다. 유배우자의 경우는 가구소득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북의 다문화가족은 남성 가구부양자, 여성 전업주부라는 전통적 성역할분업이 강고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혼인상태를 벗어난 여성결혼이민자의 빈곤화 문제는 해당 여성의 빈곤화뿐만 아니라 돌보아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 전체의 빈곤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날 가능성을 내포한다. 체류기간이 길수록 가구소득이 낮았는데 이는 체류기간과 전통사회 통합이 결코 비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아님을 반증한다. 즉, 체류기간이 길어서 언어, 문화적 측면에서의

적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회문화적 통합이 경제적 통합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출신국가별로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조선족 순으로 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많았고, 지역별로는 진안, 순창, 장수, 무주, 남원, 임실, 부안, 김제가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전체의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서 특히 경제적 지원 및 자립을 위한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경제생활에 대한 주관적 견해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현재의 가족을 다른 한국가족과 비교했을 때는 대부분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며 하층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혼인 지속 여부와 체류기간에 따른 차이가 현저한데, 이혼이나 사별로 혼인이 종결된 경우는 2/3 가량이 하층이라고 생각하였고, 체류기간이 길수록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중국 조선족과 중국 한족이 하층이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진안, 정읍, 전주, 익산, 군산 등의 순으로 하층이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높았다.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전국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삶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 교육수준, 체류기간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별로는 베트남, 캄보디아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일본과 필리핀, 북미·호주·서유럽 등 선진국 출신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 익산, 남원, 군산, 무주에서 만족도가 높고, 장수, 완주, 순창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최근에 결혼이민이 증가한 국가들에서 높았는데, 이는 ‘기대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즉, 체류기간이 짧기 때문에 모국에서의 생활이 판단의 기준으로 고려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한국에서의 경제생활 및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모국이 아닌 한국의 생활이 판단기준이 되어 기대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생활 및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

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조사 결과 체류기간이 길수록 주관적 경제수준과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에서 증명된다.

(2) 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와 근로조건

가. 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와 근로조건

□ 취업률과 입국 전 취업 경험률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은 대체로 저조하였고 전국과 비교해서도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10위에 해당하였다. 이는 농업 등의 1차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북의 산업구조의 특성상 국내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비해 결혼이민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국내 체류 기간이 길수록, 입국 전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가 취업률이 높았다. 출신국별로는 북미·유럽과 필리핀 등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와 중국조선족, 일본 등 비교적 체류 기간이 길고 연령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률의 시군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입국 전 취업경험률은 74.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이는 전라북도로의 유입이 애초부터 노동을 목적으로 한 이주보다 결혼을 통한 이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입국 후 취업률과 비교해 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으로의 이민 이후 노동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혼 및 임신,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과 본국에서 취득한 학위나 자격증 등이 한국에서 거의 통용되지 않는 이민 장벽이 원인으로 보인다. 노동경력 단절은 경제적 소득 측면에서도 손실일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긍심이나 자아성취감 등의 정서적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24세 미만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절반 정도가 입국 전 취업 경험이 없었다. 이 사실은 최근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과 입국 전 취업 경험과 한국에서의 취업 여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이들

20대 초반의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출신국별로 보면 전국적 경향성과 달리 선진국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입국 전 취업률이 낮는데, 이는 농촌 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비록 선진국 출신이라 하더라도 모국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만한 자원을 갖지 못한 집단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 결혼이민자의 직종

취업을 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큰 반면, 전문직 종사자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는 높아서 전라북도의 이민시장이 전국보다 훨씬 전문직과 저숙련직으로 양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도 전국에 비해 훨씬 높아서 이들을 전문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서비스직 종사 비율이 높은 반면, 단순 노무직은 절반 이상이 20대로 나타났다. 전문직에는 30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 종사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단순노무직과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졌다. 체류기간이 적을수록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농림어업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체류기간이 길수록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출신국별로는 영어를 사용하는 북미·호주·유럽 출신과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전문직 종사 비율이 높고,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의 경우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농림어업 종사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국 조선족과 한족 등은 서비스직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 전주, 남원, 무주, 장수는 상대적으로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반면, 진안, 순창, 고창, 임실지역 거주자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익산, 정읍, 진안은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종사상 지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임시직 비율이 높고, 전국 평균에 비해 무급가족종사가

높은 것도 특징적이다.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은 농림어업 종사자를 포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체류기간이 길수록 상용고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그 외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차이는 없었다. 출신국별로는 선진국 출신은 절반 이상이 상용고인 반면, 다른 국가들은 임시직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장수, 남원, 전주가 상용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순창, 고창, 진안은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비정규직 중 임시직보다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일용직의 경우는 부안, 김제, 익산이 높게 나타났다.

(2) 결혼이민자의 근로조건과 구직경로

□ 근로조건

여성결혼이민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39.22시간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나, 이들이 대부분 시간 탄력성이 있는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의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근접한다는 것은 불안정 고용에 장시간 근로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주 19시간 이하 근무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인데, 이는 고용상태가 가장 불안정한 일용직 혹은 파트타임 근로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암시한다.

40세 이상 결혼이민자와 24세 이하 결혼이민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으로 길었는데 40세 이상에서는 상용고 및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며, 24세 이하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력이 낮을수록, 사별한 경우, 입국한지 5년 미만인 경우가 더 오랜 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별로는 필리핀 출신이 가장 짧은 시간 일하고 있었고,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다. 필리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전문직종 비율이 높음에도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은 이들이 종사하는 전문직종이라는 것이 영어 학원강사나 통역 등의 파트타임이나 임시, 일용직 고용부문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 이민자들은 대부분 서비스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안정 고용과 장시간 근로라는 특징과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열악한 근로조

건을 특징짓는 것이 바로 저임금이다. 전북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90.16만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경북과 함께 최하위였다. 이는 전북의 결혼이민자들이 서비스 및 단순노무직과 농림어업 등 근로소득이 낮은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그것도 상용고가 아닌 임시·일용직의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출신국별 근로소득의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다.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에서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가별 소득 차이가 적다는 것은 이들 전문직종이 시간당 임금을 받는 불안정 고용이라는 것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진안, 고창, 무주는 근로소득이 없거나 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결혼이민자의 직업상 고충

전북의 결혼이민자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낮은 임금’, ‘자녀양육’ 순으로 높았다. 전국 조사결과에서는 ‘저임금’의 문제보다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높았던 것에 비추어보면, 전북의 결혼이민자들은 주변의 태도나 편견 등의 포괄적 차별보다는 저임금이나 자녀양육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더욱 큰 고충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체류기간이 길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체류기간이 길수록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더 많이 지적되었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한 반면, 이혼한 경우는 자녀양육 문제를, 사별한 경우는 낮은 임금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대체로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중국 조선족과 몽골 출신 이민자를 제하고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그 외 중국 조선족과 한족은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자는 ‘고된 일’을, 몽골은 ‘긴 노동시간’, 태국은 ‘낮은 임금’과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일본은 ‘집안일과의 병행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지역별로는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무주군 거주 이민자가 많이 지적하였고, ‘고된 일, 긴 노동시간, 낮은 임금’ 등의 노동조건에서의 어려움은 주로 전주, 군산, 김제, 남원 등의 시지역 거주 이민자가 많이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양육’이나 ‘집안일과의 병행 어려움’은 장수, 고창에서 주로 많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해당 시군에 형성된 이민자 노동시장의 특성 및 취업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제도에서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구직경로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개인적 네트워크 이용률은 전국에 비해 높았다. 동시에 공공기관 소개 이용률도 전국보다 높았다. 이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 기관과 대중매체 및 전단지 이용률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의 함의를 갖는다. 하나는 전라북도에서 이민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호나 능력을 고려한 능동적 구직행위가 어렵고, 일자리를 타인으로부터 소개받는 것에 의존하는 수동적 구직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소개를 이용한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체류기간이 길수록, 사별한 경우에서 높았다. 비교적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없는 중국 조선족은 대중매체나 전단지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필리핀은 공공기관의 소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 군산은 대중매체나 전단지 이용비율이 높았고, 장수는 공공기관 소개 비율이, 남원은 둘다 높게 나타났다.

(3) 미취업 결혼이민자의 취업 관련 태도

□ 결혼이민자의 미취업 사유

결혼이민자들의 낮은 취업률에는 ‘자녀양육 책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최근에 결혼이민이 증가한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조차 ‘한국말의 서툰’ 보다 ‘자녀양육’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자녀양육기를 벗어난 4, 50대의 경우조차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라는 응답이 높아서, 전반적으로 가사일과 자녀양육이 취업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서 현재와 같은 언어 중심적 지원책들은 대단히 편향적인 것임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 역시 일반적

으로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패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이민에 따른 친족 지원망의 부재로 일-가족 양립을 고립적으로 혼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가족 양립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취업 사유로 ‘자녀양육’을 지적하는 것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취업을 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기혼여성의 일-가족 관계에 관한 가족사회학적 접근에서는 강한 가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일수록 ‘가족의 돌봄 책임’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에 대한 지향성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의 돌봄 책임’은 미취업의 ‘이유’이기도 하고 (제한된 선택으로서의) ‘미취업’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 미취업 결혼이민자의 향후 취업 희망

미취업 결혼이민자들의 대부분이 향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북의 결혼이민자들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육아와 가사일 등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가 전국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취업희망률이 더 높았다. 체류기간은 2~5년 미만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 기간이 임신, 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기간일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이 집단의 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출산과 육아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출신국별로는 몽골, 중국한족, 필리핀이 90% 이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군산, 순창, 전주가 90% 이상 높았고, 임실 지역 결혼이민자들의 향후 취업 희망률이 가장 낮았다.

□ 미취업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도움

전북의 미취업 결혼이민자들은 전국 평균보다 더 취업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필요한 도움으로는 ‘일자리 알선’과 ‘한국어 교육’이 가장 높았다. 반면, 전국 조사결과는 ‘자녀교육 및 양육 지원’이 ‘일자리 알선’ 다음으로 높아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령이 낮고, 체류기간이 짧은 결혼이민자가 전북에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녀양육기인 30대에서 ‘자녀보육, 양육 지원’을 가장 많이 호소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일자리 알선’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한 경우는 일자리 알선을, 사별한 경우는 자녀보육 및 양육지원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체류기간은 2년 미만까지 ‘한국어 교육’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며, 체류기간이 길수록 ‘일자리 알선’에 대한 수요가 ‘자녀 보육, 양육 지원’보다 많아졌다. 그러나 체류기간의 길고 짧음과 무관하게 ‘자녀보육, 양육지원’에 대한 수요는 일관되게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주로 미취학 아동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 정책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출신국별로는 중국 조선족과 베트남, 태국, 일본 출신 이민자의 경우 ‘일자리 알선’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였고, 몽골과 캄보디아 출신 이민자의 경우 ‘한국어 교육’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였다. 군산, 완주, 진안, 무주, 장수는 일자리 알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김제, 순창은 직업교육, 자녀보육 및 양육 지원은 정읍, 남원, 임실에서 높았다. 또한 가족의 이해와 지원이라는 응답은 남원, 진안, 임실, 고창, 부안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및 교육

□ 직업훈련 참여경험 및 직업훈련 요구도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16.3%로 저조하나, 향후 참여 의향률은 높았다. 전북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전국 평균 참여율보다 높은데도 취업률이 전국보다 낮은 것은 전북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이 기술이나 훈련의 부족 이외의 요인에 의해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0대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율도 가장 높았고, 향후 참여 의향도 가장 높게 나타나 취업을 위한 자기 계발의 요구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향후 직업훈련 참여 의향이 높았다. 이는 체류기간이 짧은 이민자들에게 주로 일상적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교육 편향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히려 언어나 한국문화 이해 중심적인 현재의 프로그램이 직업훈련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다.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직업 훈련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입국 전과 입국 후 취업 경험이 있거나 향후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훈련 참여율이 높았고,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자일수록 향후 참여 의향률이 높았다. 이는 직업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출신국별로는 필리핀, 몽골 출신 이민자들의 참여율이 높았고, 베트남과 일본 출신은 낮았다. 향후 참여 의향률 역시 몽골과 필리핀이 가장 높았고 중국 조선족이 선진국 출신 이민자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장수, 순창, 완주, 임실 지역 결혼이민자의 참여율이 20% 이상으로 높았으며, 참여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무주로 8.7%에 불과하였다. 향후 참여 의향률은 시군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 향후 직업훈련 요구 영역

향후 직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영역으로는 어학에 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컴퓨터/정보통신 교육에 대한 요구도도 높았다. 어학에 관한 요구가 높은 것은 언어가 기본적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던지간에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직업훈련의 영역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업 기술 및 기능교육과 병행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농어업/원에 관한 교육 요구도는 전국보다 높았다. 이는 전라북도의 일자리 특성상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나 농림어업 관련 일자리를 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 경험이 없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경우 음식, 미용/피부, 간병/간호 등의 개인 서비스직에 필요한 훈련 요구도가 높았다. 컴퓨터/정보통신은 주로 30대와 대졸 이상, 이혼한 경우, 체류기간 5년 이상인 결혼이민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3. 자녀양육 및 교육현황

(1) 자녀구성 및 추가자녀 계획

결혼이민자들의 평균 현존 자녀수는 1.1명, 추가희망 자녀수는 0.6명, 기대자녀수는 1.7명으로 2010년 전라북도 합계출산율 1.28명 보다 높다. 이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다문화가족이 저출산의 심화를 막아주는 방과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은 중국 조선족과 중국 한족 등의 기대자녀수가 각각 1.4명, 1.3명으로 낮은 것은 결혼이민이 저출산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24세 이하와 50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 비교적 연령이 많고 재혼비율이 높은 다문화가족과 가장 최근에 이주하여 출산을 하지 않은 가족으로 양분되어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들의 자녀는 미취학 >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전라북도의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비중이 미취학 연령 자녀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은 크게 미취학자녀에 대한 보육과 양육, 취학자녀에 대한 교육 등 두 개의 축으로 구분되어 지원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미취학 자녀의 양육 및 보호

다문화가족의 미취학 자녀의 보육·교육시설 이용률은 60.8%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전북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이 전국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미취학 자녀의 시설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엄마가 부재한 동안의 보호라는 목적 외에도 자녀의 교육에 대한 목적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취학 자녀를 보육시설·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만 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아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또한 전국 조사결과는 보육료 부담이 2순위,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안 되어서가 3순위인 반면, 전북의 조사결과는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안 되어서’가 2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엄마)의 역할을 신성시하는 것이 전라북도에 더 강하게 유포되어 있

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이 낮고,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영아를 받아줄 시설부족’을 많이 지적하였고, 교육수준이 높고, 체류기간이 길수록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안 된다’는 지적이 높았다. 중국 한족, 태국, 베트남은 영아 시설 부족을, 필리핀, 캄보디아는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안 되어서, 중국 조선족은 보육료 부담 때문에 보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만 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아서’가 50% 이상인 지역은 전주, 군산, 완주, 무주, 장수, 순창이었고,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이 안 되어서’는 김제, 익산이, 보육료 부담을 많이 지적한 시군은 전주, 임실로 나타났다.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86.9%로 가장 많았다. 문제가 되는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중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일수록, 1-2년 미만 체류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신국별로는 중국 한족 등과 베트남 출신자가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군산, 남원, 김제, 무주 지역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3)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보호

결혼이민자의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본인 및 배우자 32.5%,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20.6%, 사설학원 12.2% 등으로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전국 조사결과보다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이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학교교육 및 시설을 통한 보호와 교육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가 되는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도 13.6%나 되어 방과 후 결혼이민자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출신국별로는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는 중국 조선족과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국가는 몽골과 중국 한족, 사설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중국 조선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초등학생 자녀 교육 상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응답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전라북도 거주 결혼이민자들이 초등학교 자녀 교육상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습·복습의 학습지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숙제 지도하기’, ‘학원비 마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전라북도의 결혼이민자들은 학습 지도 면에서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이 일차적 원인이겠지만, 한국어로 일상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작문, 독해 등의 고급 언어능력이 요구되는 학습 지도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습부진 등의 어려움은 6.1%로 낮은 편이었으나, 중요한 것은 일부의 자녀들이라도 낮은 연령대에서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낳기 때문에 이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학원비 마련을 지적하였고, 40대 이하는 학습지도와 숙제지도의 어려움을 많이 지적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학습지도의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혼 및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학원비 마련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출신국별로는 숙제지도하기의 어려움은 필리핀, 몽골, 북미·호주·서유럽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습지도는 중국 한족, 태국, 일본에서 높게 지적되었다. 학원비마련은 중국 조선족, 태국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결혼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 필요한 지원은 기초교과 지도> 학교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한국어 및 한글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기초교과 지도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였고, 사별한 경우 학교 교육비 및 급식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체류기간이 길수록 학교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을 지적한 비율이 높아졌다. 시군별로는 전주, 김제, 장수군은 학교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였고, 그 외 지역에서는 기초교과 지도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4)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경험 및 도움정도

다문화가족의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경험률은 41.0%,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경험률은 43.4%로 전국 평균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을 받은 결혼이민자의 57.9%,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을 받은 결혼이민자의 64.6%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은 비교적 최근에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한 결혼이민자가 많은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았고,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은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았다.

향후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5.7%로, 아직 계획한 출산을 다 마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는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3.2%로 전국 조사결과 62.7%보다 10.5% 포인트 높았다. 이는 전북 다문화가족의 초등학교 이상의 취학 아동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보육 서비스에 편향적으로 집중되는 행정력을 학령기 아동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 절 정책제언

1. 다문화가족 취업과 자녀양육 지원 개선방향

1) 다문화가족 자립과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도시와 농촌의 지역특성 반영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4개 전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시군별 다문화업무를 수행하는 최일선 서비스 전달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본사업으로는 방문교육서비스, 한국어교육 교재보급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국제결혼 희망자(배우자)교육 사업, 가족통합교육 및 상담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프로그램이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기관이 수행해야 할 만큼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단 하나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정된 예산 하에 소수의 인력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지역사회내의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센터도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가용가능한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경우, 접근성 제약 등으로 인해 센터에서의 집합교육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농번기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곤란하다.

본 실태조사에서도 다문화가족의 거주지역의 차이에 따라 체류기간, 언어능력의 정도와 취업욕구, 자녀양육과 교육에서의 욕구와 현실적인 제약사항이 많이 다를 수 있었다. 특히 최근 군단위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체류기간이 짧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연령이 낮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 가족형성기와 출산에 대한 지원이 더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시 지역은 학령기 아동자녀의 방과 후 보호 및 기초학습지원에 대한 욕구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직업 상 고충에 있어서도 시 지역에서는 ‘고된 일, 긴 노동시간, 낮은 임금’ 등의 직업적인 조건에서의 애로사항이 많은 반면, 군 단위

에서는 ‘자녀양육’이나 ‘집안일과의 병행 등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어 보육과 양육의 인프라 취약이 직업 활동에서의 장애요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애로사항과 욕구가 지역적으로 다르다는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최일선의 서비스지원센터가 획일적·일률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어교육,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과 같은 프로그램만을 필수교육으로 정하고, 그 이외의 프로그램은 지역의 여건과 전문인력 활용정도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종사자 중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센터에서는 상담 프로그램을 특화하고, 가족통합교육 전문인력이 있는 센터는 가족통합 프로그램을 특화하며, 지역의 농특산물을 창업화 하는 센터는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차별화 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각 센터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의 추진과 그에 따른 사업인력 및 평가에 따라 예산지원도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다문화유관 협력기구 역할정립과 결혼이민자의 의사결정권 부여

전라북도는 2009년 1월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체계적 지원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자문·심의와 유관기관간의 다문화사업에 대한 협의 및 시책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북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와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회”,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등의 협력기구가 발족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협의체 등의 다문화유관 협력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개발과 재원확보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고, 지역 내 관련 주체 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조정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장단기 계획에 의해 사업의 경중을 논의하고 선택과 집중의 사업실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의체의 기능에 대해 구체적인 역할을 확립하고 아울러 이 협의체에는 반드시 여성결혼이민자 대표가 반드시 참

여하여 의사결정에 있어 주체로서의 결혼이민자의 요구를 수렴하도록 한다.

정책반영에서 다문화가족의 직접적인 의사반영을 위한 통로가 기존에는 미흡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일방적인 소통에 그치거나 그들의 정확한 현실과 욕구를 반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웃 일본의 가나가와현에서는 공모를 통해 2년 임기로 구성된 20명의 ‘외국 국적 현민 가나가와회의’에서 제안하는 제언의 70%를 정책반영 비율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 결혼이민자의 인권과 권한을 반영하는 각종 기구와 회의에서 위원으로 참석하여야 하며 각 영역별에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과별 위원회 설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복지자원이 부족한 동부권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개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결혼이주민이 처한 지역사회 적응이나 취업 및 자녀에 대한 욕구는 도시와 농촌의 환경과 조건이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적에 있어서는 최근 연령이 낮고 학력수준이 낮은 캄보디아 아 태국 여성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체류기간도 짧아 한국사회적응과 언어교육에 대한 지원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령이 낮은 결혼이주여성에게서 취업과 직업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에서의 직업교육 참여율과 향후 취업희망을 역시 타 시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취업에 대한 높은 의지는 가구소득과의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동부권(진안 42.2% 전주 21.5%)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가구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자녀양육에 관련된 인프라의 부족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움호소가 시 지역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자녀의 출산과 관련해서는 최근 임실, 진안, 장수에서의 신생아 출산율이 늘고 있으나 이 지역에서의 출산 관련 산부인과와 의료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어서의 응답에 있어 무주와 진안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

며 동부권 지역에 해당하는 타 지역이 다른 시군지역에 비해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과 후 초등학생을 돌보는 사람에 있어서도 아이혼자 지내는 비율은 임실, 순창, 진안, 고창에서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동부권 지역에 해당하는 군 단위의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교육 및 취업관련 지원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지원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점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식 교육과 자원봉사의 지원 및 다른 지역의 시설연계를 구축하는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 취업지원과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예산확대

중앙정부의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2010년도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총 예산(안)은 512억 원으로 2008년과 비교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예산이 증가하였다. 전라북도 2010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7,471 백만 원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 지도에 해당하는 각종 교육비 사업으로 2,682 백만 원이며 전체 사업비의 35.9%를 점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주여성 경제·사회적 자립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2,295억 원이며 전체사업비의 30.7%에 해당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예산은 409백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5%에 해당하고 있어 결혼이민자의 2세대를 위한 교육비 지원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국비와 도비 및 시군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지도>이주여성의 경제사회적 자립지원>다문화가족지원 시스템 등의 순으로 예산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의 예산은 국비 지원을 제외하고 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사업비는 12.1%정도의 비중을 지나지 않는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자녀학교생활 지원예산은 전액 교육청지원 예산에 해당하고 있어 자녀양육비 지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에 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결혼이주민의 자립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 및 그들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

원의 예산확대가 필요하다 하겠다. 물론 2011년부터 결혼이민자 사업 가운데 취업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발표가 있어 희망적이지만 그들 자녀의 양육과 보육에 필요한 예산확대는 불투명하다. 타 지자체의 경우, 다문화가족의 자녀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지자체(충남)도 있으며 보육시설에서의 외국인 자녀 5인 이상일 경우 보육시설 도우미를 파견(서울시)하거나 다문화다민족어린이집 지정에 따른 교재교구비 지원(서울, 경북) 등 보육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어머니의 한국어부족으로 인한 언어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보육시설은 아동에게 있어 중요한 수단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충분한 교육지원은 빈곤의 재생산을 확대 시키는 만큼 결혼이주민에 대한 자녀양육과 교육지원은 중요한 결혼이주민에 대한 모든 정책 가운데우선정책에 해당한다 하겠다.

2) 취업교육의 개선과 연계 활성화 방안

□ 취업과 자녀양육을 위한 특화된 언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한국어교육은 한국어가 서툰 사람들의 기초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기본적인 정착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한국어 강좌수준이 다양하지 않아 실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다양한 교재가 없는 점도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같은 지역 안에서도 여러 개의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단체가 유사한 영역에 대한 유사한 수준의 언어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모든 기관이 비슷한 수준의 입문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필요한 욕구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언어교육으로 제한되어 결혼이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기초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한국어 교육 외에는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기관별로 전문적이고 특화된 언어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기관별로 특화하는 것이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자녀양육 등에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관은 자녀양육을 위한 한국 전래동화를 엄마와 아이가 동시에 읽고 말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한다거나 B기관은 구직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기관별로 특화되고 차별화 된 교육을 갖춘다면 다양한 수준의 질 좋은 전문교육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언어를 교육하는 기관도 언어교육기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취업관련 기관에서는 구직기술교육에 관련된 언어를 기초부터 심화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녀양육과 관련된 언어교육은 자녀양육시설인 보육시설, 초등학교 등과 연계하여 양육에 필요한 아동의 정서발달과 성장 등에 대한 교육 등과 연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언어교육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해결하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등에 별도의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 취업관련 이력 DB 구축 및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강화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실태를 살펴보면, 이들은 주로 공장이나 식당, 마트 등 한국어 실력을 제외한 특별한 능력이나 교육 없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생산직 또는 서비스직에 취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결혼이민자의 학력, 본국에서의 경력, 취업사유, 취업희망직업 등 구직자로서의 특징은 매우 상이하며 다양하다. 이들은 고졸자서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그 학력이 상이하고, 본국에서의 경력 또한 무직, 생산직·판매직·서비스직·사무직·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이들은 가정경제를 돕거나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친정 식구를 돕기 위해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발전을 이루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다른 여성결혼이민자를 돕기 위해 취업하려고 하는 등 구직 요구도 다르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입국 이전에 모국에서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력자의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지만 미취업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심각한 것도 전북지역의 특성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이 원하는 취업과 직종을 다양화하고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의 개인정보와 취업이력 등에 관한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1년부터는 결혼

이민자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취업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들이 원하는 직업교육과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정보에 대한 DB구축이 시급하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취업경로를 보면, 사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지원센터 등의 공공기관이나 워크넷 등의 취업포털 등 공공 취업지원의 혜택을 보는 결혼이민자가 소수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아직 취업지원 분야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정부 서비스 의존 정도가 매우 낮은 편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의 공공 취업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고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코디네이터를 둔 다든가 결혼이민자의 특화 취업지원 사이트를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결혼이민자의 취·창업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활용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양성평등 촉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여성단체의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1998년부터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은 대부분 전략적 사업수행을 위해 도내 여성단체들에게 균등배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철저한 공모사업과 전년도 사업평가를 통한 차등적 지원을 위한 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여성단체들은 여성계의 현안이슈 예를 들면 출산장려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이나 일반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일부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다문화관련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관련된 사업은 너무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취·창업능력개발 사업에 여성발전기금의 일정부문을 할당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건강가족지원센터 등에서도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업관련해서는 예산의 부족으로 이렇다 할 사업추진이 어렵다. 다만 일부 지역 예를 들면, 장수 지역에서는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친환

경 된장, 고추장을 직접 담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체험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판매를 통해 이익사업을 하는 등의 예가 일부 있을 뿐이다.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취·창업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알고 있지만 이를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기관들의 취·창업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여성 가정의 생애주기별로 보아도 현 시점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은 취·창업 사업이므로 이를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발전기금 사업 중 지정 공모사업인 일자리 갖기, 저출산 극복, 성매매 및 성폭력 예방 등의 사업 중 일자리 갖기 사업에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갖기 사업과 다문화가정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의 사업에 여성발전 기금의 5~10%정도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 전문농업인 육성 및 인력자원화에 대한 정책지원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을 한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큰 반면,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는 높아서 전라북도의 이민시장이 전국보다 전문직과 저숙련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율도 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은 전북의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국제결혼이 주로 농가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농가의 유지와 재생산, 부족한 농업 노동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전문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에서는 농업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문화 적응교육의 생활농업기술 및 여성농업인 후견인제 등을 운영하였으며 전라북도 농협전북지부에서는 이민여성을 위한 전통혼례식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농이 과학화 전문 기술화되고 있고 특화작물을 통한 농가의 고소득을 창출하는 현실 등을 반영하여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인력을 자원화하는 다양한 교육과 정책적 지원이 함께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되어 있는 농촌의 새로운 주역으로서 그들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하며 통합적 사회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력과 자원을 잘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요즘 농촌은 젊은 귀농인의 정착으로 농가의 새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들이 미래의 농촌을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기대 또한 크다. 귀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농업에 관한 기술을 터득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의 농업 멘토로서의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결혼이민자 전문직에 대한 직종개발 : 다문화전문인력 양성

결혼이민자들의 전문 직종에 대한 선호는 높으나 적합 직종이 많지 않다. 어학강사나 통번역 및 상담 등의 직종이 결혼이민자들이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전문직에 해당하나 근로조건이 계약직이거나 일당직으로 이들의 언어자본을 싼 값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주변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취업 및 창업에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같은 처지에 놓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직업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다문화서비스 직종은 우리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현재 열려 있는 흔하지 않는 사무직, 그 중에서도 전문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분야가 이민자가 잘 할 수 있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일정 정도의 한국어 유창성만 확보된다면 한국어와 모국어를 함께 사용하면서도 모국에서 온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모두가 이 직업에 오래종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직업군에 속하는 개인들의 수준 역시 고르지 않고, 임금이 낮고, 1년 내외의 임시직이 많아 소득원으로서의 매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문적인 훈련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모적으로 상담과 정착업무에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능력수준에 따른 급여나 대우수준을 제시하고 이들의 신분을 안정되게 정착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이 직종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화된 직종으로서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한국인 전문 인력과 함께 다문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교육훈련 체계를 개발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3)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정책의 강화

□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춘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지원은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은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즉,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체험교육, 자녀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해당되며 간접적인 지원은 자녀보다는 부모에게 또는 부모와 함께 이루어지는 지원으로 가족통합교육, 부모교육,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이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의 이러한 직·간접적인 지원은 일회적이거나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1세대를 위한 한국어교육은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반면, 2세대를 위한 한국어교육은 거의 없거나 검사 및 교정 차원에서의 지원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인지적·정의적 발달에 따라 즉 1세에서부터 아동양육지원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시작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그리고 중등교육과정까지 연계되어진 다문화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외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어교육과 이에 대한 검사 및 교정교육, 놀이방 및 육아정보나눔터 운영 등은 전시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개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발달단계와 더불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된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아가 많은 군 단위 지역은 육아정보제공 및 신체발달프로그램 그리고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부모와 함께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유아와 학령기 아동이 많은 시 단위 지역에서는 언어와 기초학습지원 교육과 더불어 지역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방문지도사의 전문성 강화와 자녀양육 상담지원 강화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임신 및 출산관련 지원 경험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지원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또한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은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았고 자녀양육과 학습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73.2%(전국 62.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최근의 전라북도 유입되는 결혼이주민의 특성은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주로 군 단위에서의 결혼이주민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민의 연령이 낮은 점과 이들이 지역사회 초기 정착기에 해당하여 주변에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또한 자녀양육에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한 군단위에 집중화 되어 있다는 점은 자녀양육에 관한 제반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결혼과 더불어 자녀양육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들이 느끼는 문화적 충격은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의 발달단계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학습과 더불어 인지적 발달에 따른 전문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방문교육사업의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방문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담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양육지원 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는 필수적이다. 아동양육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 및 교재의 개발과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지역특성 및 대상자 요구를 반영하여 규모 및 교육프로그램을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지역 센터에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 방과 후 자녀돌봄과 교육 지원 확대

본 연구결과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이 32.5%, 학교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은 20.6%로 전라북도의 경우 전국조사보다 학교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학교교육 및 시설을 통한 보호와 교육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가 되

는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도 13.6%나 되어 방과 후 결혼이민자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은 ‘초등학교 자녀 교육상의 어려움이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전국평균보다 많으며 구체적으로는 ‘예습·복습의 학습지도’, ‘숙제지도’ 등 기초학력에 관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농촌지역의 보육시설 및 사설학원 등의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개인적 교육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대학생의 지원봉사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 자녀 등과의 연계를 적극 지원하여 학습에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가족 취업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제안사업

구분	프로그램 내용	주요대상	운영형태	기대효과
교육/ 보육 서비스	엄마와 함께 책임기	영유아/부모	-방문교사와 연계하여 동화책을 주기적으로 배포하고 엄마에게 책 읽어주기 지도 -짧은 동화(전래동화, 역사 등)를 지속적으로 영유아에게 읽어주도록 지도	-영유아 및 부모의 언어능력 증진 -한국 전래동화 등을 통한 문화이해 -자녀와의 정서교감 증진 등
보육 서비스	다문화보육 교사 지원	보육시설아동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자녀 5인 이상 보육시설에 다문화보육강사 파견	-다문화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 -결혼이민자의 전문직업으로서 자긍심 고취
농촌 일자리 창출	귀농인-결혼 이민자 멘토멘티지원	결혼이민자	-귀농인이 농촌에 정착하는 성공적인 과정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고 농업에 관련 지식을 교육시키는 멘토-멘티 사업	-농촌에서의 성공적인 정착과 농업인력 자원화
지역사회 지원	영유아교육 기관 관계자 인식증진교육	영유아대상, 교사, 원장 및 시설장	-다문화에 대한 인식증진과 아동의 이해 및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교육 이수 -다문화가족 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시설 및 기관에 대해 의무교육	-다문화 이해증진과 다문화학급 운영을 위한 구체적 교수방법 교육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구명숙(2007), 「여성결혼이민자 자활능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GROW”」, 부산
인적자원개발원
- 국회예산정책처(2009),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평가」
- 국회입법조사처(2009),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 김민화 외(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방문교육 교재개발 연구」, 문화관광부
-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
부
- 김영주(2006), 「충남 국제결혼가족 실태 및 지원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여성정책개
발원
- 김영혜 외(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은숙(2010), 「강원도 다문화가족 실태 및 정책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 김이선 외(2008),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농림부
- 김혜순 외(2009),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 및 방향성 모색-2009년도 외국인정책 시행
계획을 중심으로」, 법무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08),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정책토론회 자료집」
- 모선희 외(2008),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문무경 외(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안」, 농림부
- 서혜정(2009), 「경기도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보육지원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설동훈 외(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 외(2008),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 심인선 외(2008),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윤덕경 외(2009),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여성부
- 이순형 외(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안」, 농림부
- 장명선(2009),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활성화 방안-지역적 특색에 따른 모델
개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명선 외(2009),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
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서영 외(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노동부
- 장영희 외(2007), 「생애초기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발달지원프로그램 개발방향」,
교육인적자원부
- 전혜정 외(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및 성장지원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_____ (2009), 「다문화가정 영유아 사회·정서발달 증진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가족부
- 정상기 외(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
17권 제2호
- 조영달 외(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_____ (2006),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통계청, 2000~2009, 「인구동향조사」
- 행정안전부, 2007~2009, 「외국인주민실태조사」

Jthink 2010-PR-05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 취업과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

발행인 | 원도연

발행일 | 2010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앙동 4가 1)

전화:(063)280-7100 팩스:(063)286-9206

ISBN 978-89-6612-003-1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

